2012-PR-35 Working Paper

서울시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

이창우

서울연구원
The Seoul Institute

서울시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

2012

서울연구원
The Seoul Institute

연구진

연구책임 이 창 우 • 안전환경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연 구 원 황 우 진 • 안전환경연구실 연구원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서울특별시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목 차

Ⅰ.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3

Ⅱ. 도시농업의 의의와 필요성 ····· **5**

제1절 도시농업의 발전 배경 ····· 5

제2절 도시농업의 의의 ····· 7

제3절 도시농업의 필요성 ····· 11

Ⅲ. 서울시 도시농업 현황 ····· **14**

제1절 서울시 도시농업 일반 현황 ····· 14

제2절 도시농업에 대한 시민의 인식과 태도 ····· 30

제3절 시민참여 프로그램 현황 ····· 53

제4절 서울시 도시농업의 쟁점 ····· 60

Ⅳ. 외국의 도시농업 사례 ····· **65**

제1절 외국 도시농업의 일반 현황 ····· 65

제2절 외국의 시민참여 프로그램 사례 ····· 71

Ⅴ.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 ····· **86**

제1절 경작가능지 확대 ····· 86

제2절 도시농업 종합계획 수립 ····· 89

제3절 도시농업 거버넌스 강화 ····· 94

제4절 도시농업의 다양성 추구 ····· 97

제5절 도시농업 교육 홍보 강화 ····· 100

Ⅵ. **결론 및 정책제언** ····· **102**
제1절 결론 ····· 102
제2절 정책 제언 ····· 104

참고문헌 ····· **108**
부 록 ····· **111**

표 목 차

〈표 2-1〉 도시농업의 형태 ····· 10
〈표 2-2〉 도시농업의 다양성 ····· 10
〈표 3-1〉 서울시 본청 도시농업 추진실적 (2012년 6월 기준) ····· 15
〈표 3-2〉 자치구 도시농업 추진실적 (2012년 6월 기준) ····· 15
〈표 3-3〉 서울시 도시농업 예산 ····· 17
〈표 3-4〉 강동구 도시농업 추진실적 (2012년 6월 기준) ····· 22
〈표 3-5〉 도봉구 도시농업 추진실적 (2012년 6월 기준) ····· 23
〈표 3-6〉 종로구 도시농업 추진실적 (2012년 6월 기준) ····· 25
〈표 3-7〉 도시농업 언급 신문기사 현황 ····· 27
〈표 3-8〉 응답자 표본 특성 (1) ····· 34
〈표 3-9〉 응답자 표본 특성 (2) ····· 35
〈표 3-10〉 경관형용사를 이용한 공원과 텃밭의 개념적 차이 ····· 64
〈표 5-1〉 미국 도시의 도시계획조례 중 도시농업 관련조항 ····· 95
〈표 5-2〉 미국 도시의 동물관리조례 중 양봉, 양계 등 관련조항 ····· 96

그 림 목 차

〈그림 1-1〉 연구의 체계 ····· 4
〈그림 2-1〉 도시농업과 식량체계 ····· 8
〈그림 2-2〉 도시농업의 기능 ····· 13
〈그림 3-1〉 자치구별 공공/민간 텃밭 분포도 ····· 16
〈그림 3-2〉 유형별 텃밭 분포도 ····· 16
〈그림 3-3〉 2012년도 서울시 도시농업 예산 ····· 18
〈그림 3-4〉 2013년도 서울시 도시농업 예산(안) ····· 18
〈그림 3-5〉 우리나라 도시농업 제도화 시기 ····· 20
〈그림 3-6〉 현장조사 대상 ····· 21
〈그림 3-7〉 강동구 텃밭 ····· 22
〈그림 3-8〉 도봉구 텃밭 ····· 24
〈그림 3-9〉 종로구 텃밭 ····· 25
〈그림 3-10〉 노들섬 텃밭 ····· 26
〈그림 3-11〉 도시농업 언론동향 누적 기사량 ····· 28
〈그림 3-12〉 도시농업 언론동향 기사별 글자수 추이 ····· 28
〈그림 3-13〉 조사 개요 ····· 30
〈그림 3-14〉 조사 설계 ····· 31
〈그림 3-15〉 조사 진행 과정 ····· 32
〈그림 3-16〉 도시농업 인지 여부 ····· 36
〈그림 3-17〉 도시농업 인지 경로 ····· 37
〈그림 3-18〉 관상용 화초 재배 여부 ····· 37
〈그림 3-19〉 농작물 재배 여부 ····· 38
〈그림 3-20〉 도심 농사활동 동기 ····· 39
〈그림 3-21〉 농작물 재배 장소 ····· 39
〈그림 3-22〉 현재 경작 농작물 종류 (중복) ····· 40

〈그림 3-23〉 농사활동 기간 ····· 41
〈그림 3-24〉 연중 평균 농사활동 기간 ····· 41
〈그림 3-25〉 월평균 농사활동 투자 시간 ····· 42
〈그림 3-26〉 농사활동 참여 주체 (중복) ····· 43
〈그림 3-27〉 텃밭까지 이동 수단 ····· 43
〈그림 3-28〉 텃밭까지 소요 시간 ····· 44
〈그림 3-29〉 텃밭 유지비용/임대료 ····· 45
〈그림 3-30〉 과거 농작물 재배 경험 (농작물 비재배자) ····· 45
〈그림 3-31〉 농작물 재배 중단 이유 ····· 46
〈그림 3-32〉 도심 농작물 재배가 어려운 이유 ····· 47
〈그림 3-33〉 도시농업 활성화 장애 요소 ····· 48
〈그림 3-34〉 희망하는 농작물 재배 방식 ····· 49
〈그림 3-35〉 도시농업에 대한 긍정 요소 ····· 49
〈그림 3-36〉 서울시 도시농업 확대에 대한 태도 ····· 50
〈그림 3-37〉 도시농업 활성화의 중요 목적 ····· 51
〈그림 3-38〉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필요 조치 ····· 52
〈그림 3-39〉 가구당 적정 경작 면적 ····· 52
〈그림 4-1〉 마스터 컴포스터의 교육 모습 ····· 71
〈그림 4-2〉 마스터 컴포스터의 홍보자료 ····· 71
〈그림 4-3〉 팜스쿨의 교육 모습 ····· 72
〈그림 4-4〉 트럭팜의 순회 교육 모습 1 ····· 73
〈그림 4-5〉 트럭팜의 순회 교육 모습 2 ····· 73
〈그림 4-6〉 유스 마켓 판매 모습 ····· 75
〈그림 4-7〉 밴쿠버 엑스포 광장의 솔푸드 상자텃밭 ····· 78
〈그림 4-8〉 노마딕 그린의 프린세스 가든 ····· 81

〈그림 4-9〉 교도소 내의 경작지 ····· 83
〈그림 4-10〉 마을 소풍 행사 ····· 85
〈그림 5-1〉 서울시 도시농업 종합계획(안) 예시 ····· 93

Ⅰ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도시농업의 환경보호 및 환경교육 효과와 공동체 회복에 기여하는 장점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는 2012년을 도시농업 원년으로 선포하고 서울시내 곳곳의 자투리 땅을 활용한 텃밭을 비롯해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도시농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고 있는 데 비하여 서울시민이 도시농업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으며 서울시 도시농업의 현황은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연구된 바가 거의 없다.

불량식품에 대한 시민의 우려가 커지면서 건강한 먹을거리와 안전한 식품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을 계기로 도시농업에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고 있다. 먹을거리 불안사회에서 적어도 내가 먹을 채소는 내 집 가까이에서 내가 길러 먹어야겠다는 인식이 싹트고 있다. 약식동원(藥食同原)이란 말이 있다. “질병 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약물과 평소 섭취하는 음식물의 근원이 동일하다”는 의미다. 히포크라테스도 말했듯이 우리가 먹는 음식이 우리 몸을 치료하는 약이 된다. 유전자조작식품 논란에 이어 광우병 파동과 조류독감 및 구제역 발생을 거치며 건강과 음식의 관계에 대한 시민의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시민의 삶도, 경제도 점점 흙에서 멀어지고 있다. 3차 산업인 서비스 산업이 도시경제를 주도하는 현 시점에서 1차 산업인 농업의 의미를 도시의 관점에서 다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농촌의 도시화 시대가 가고 도시의 농촌화 시대가 오고 있다. 국민 모두가 농사짓는 시대가 멀지 않았다는 말이 들리고 농업이 앞으로 신성장산업이 된다는 말도 들린다. 이러한 시대에서 우리는 도시농업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보아야 한다.

도시농업의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시민, 기업, 행정 부문이 각각의 영역에서 역할을 해야겠지만, 시민의 건강한 먹을거리 공급을 책임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그 무

엇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하지만 현재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모두 도시농업에 대한 정책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도시농업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도 마련해놓지 못하고 있다.

최근 들어 자기집 옥상이나 베란다, 발코니, 마당에 상추나 배추, 고추를 심고 가꾸는 시민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놀려두고 있는 동네 빈터를 텃밭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도 상당히 많다. 강동구와 도봉구를 비롯한 서울시의 많은 자치구가 도시농업 전담부서를 만들고 적극적으로 텃밭을 조성해 주민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도시농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를 반영하듯 2011년 11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12년 5월부터 시행되고 있고 서울시도 2012년 11월 1일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서울뿐 아니라 세계 여러 도시에서 시민의 도시농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많은 연구자가 도시농업의 새로운 의미를 찾고 이를 통하여 도시와 농촌의 장점이 조화되는 미래의 새로운 도시공간구조의 창조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도시농업은 세계적 현상이다. 세계 곳곳에서 선진국과 후진국을 가리지 않고 대도시와 중소도시를 막론하고 다양한 형태의 도시농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환경 보호와 환경 교육, 공동체 활성화, 여가 선용, 건강 관리, 식량 제공 등 도시농업의 목적도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다. 세계의 많은 도시가 도시농업에 있는 이러한 다양한 기능에 주목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세계 여러 도시에서 도시농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고 있는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많은 전문가가 환경위기 시대에 도시농업의 새로운 의미를 찾고 이를 통해 도시와 농촌의 장점을 고루 갖춘 생태도시 만들기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 도시농업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리고 주요 외국도시에 비해 서울시 도시농업은 시민참여의 기반이 취약한 문제도 있다. 따라서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설문조사를 수행해 서울시 도시농업의 현 주소를 정확히 알아보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이다. 이러한 현황 분석을 기반으로 시민참여의 활성화라는 관점에서 서울시 도시농업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시민참여의 활성화라는 관점에서 서울시 도시농업의 현황을 정리하고 서울시민의 도시농업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분석하여 서울시에 적합한 서울시 도시농업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이 연구에서 사용하는 현황자료는 2012년 현재 통계 자료를 기본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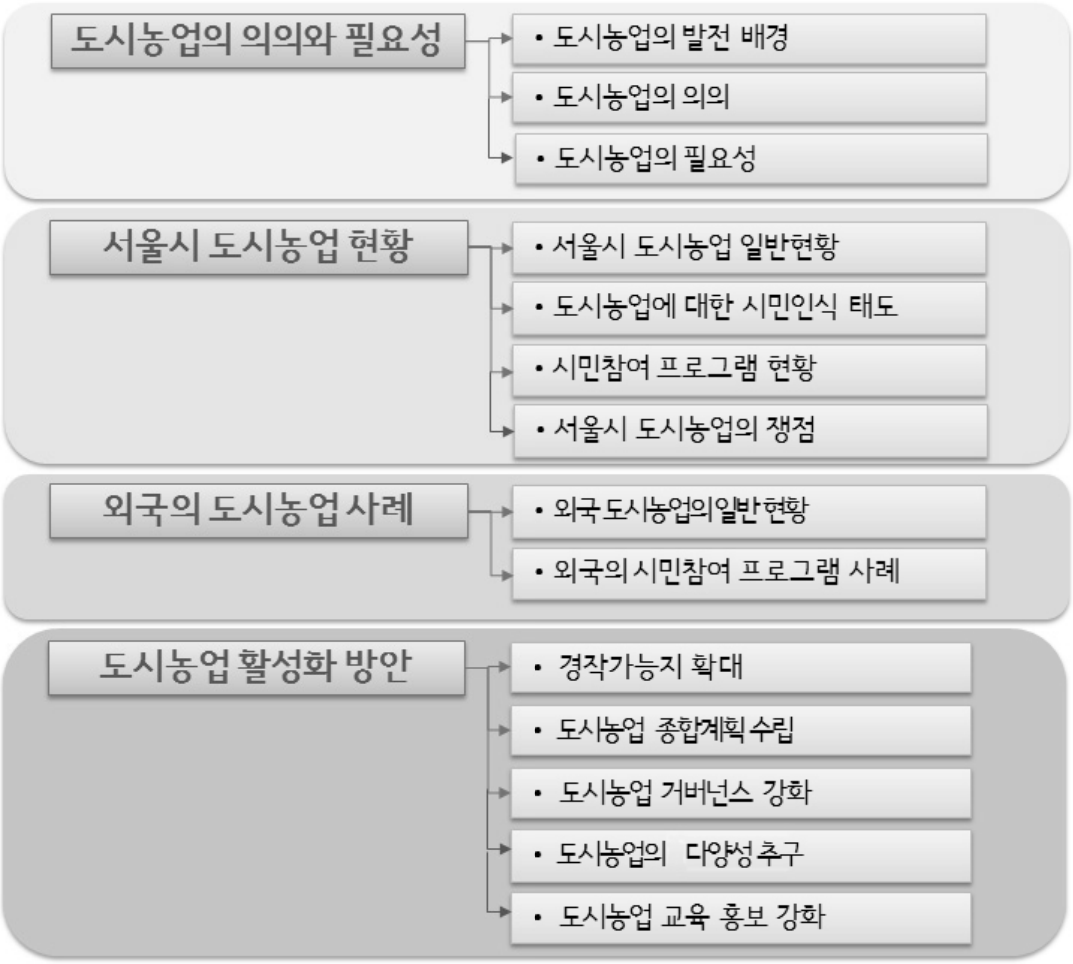
서울시 도시농업은 공간적으로 말해 도심을 비롯한 서울시 행정구역 내와 근교를 포함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농사활동을 말한다. 하지만 서울시 도시농업 현황을 분석할 때 필요시 경기도 지역의 통계가 포함될 수도 있다.

여러 가지 형태의 도시농업 중 이 연구보고서에서 다루는 도시농업은 영리 목적의 상업농을 제외하고 주로 여가와 공익 목적의 도시농업을 연구대상으로 한다.

해외사례는 주로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다루고자 한다. 이 연구의 주목적이 시민참여를 중심으로 한 도시농업의 활성화 방안을 찾아보고자 하는 데 있기 때문에 외국 주요 도시의 모든 사례를 다루지는 않는다.

연구의 방법은 문헌조사, 설문조사, 현장조사, 사례조사를 병행하였다. 서울시 현황자료는 서울시 담당부서의 협조를 받았으며, 국내외 참고문헌을 광범위하게 수집해서 분석하였다. 해외사례는 주로 인터넷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서울시 강동구, 도봉구, 종로구의 도시농업 경작지와 노들텃밭에 직접 가서 현장을 조사하고 담당 공무원과 면담하였다.

설문조사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도시농업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서울시 도시농업 정책에 대한 요구사항 등을 조사하여 서울시 도시농업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목적이다.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자치구 내 성별, 연령별 모집단 분포에 따라 비례 할당을 하여 표본 추출하였으며, 모집단 분포의 틀은 통계청 2011년 12월 말 기준 주민등록인구 수를 기준으로 하였다. 조사방법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온라인 웹 설문조사로 진행되었으며, 총 유효 표본 수는 총 1,000명으로 95% 신뢰구간에서 최대허용 오차범위는 ±3.1이다.


도시농업의 의의와 필요성
• 도시농업의 발전 배경
• 도시농업의 의의
• 도시농업의 필요성
서울시 도시농업 현황
• 서울시 도시농업 일반현황
• 도시농업에 대한 시민인식 태도
• 시민참여 프로그램 현황
• 서울시 도시농업의 쟁점
외국의 도시농업 사례
• 외국 도시농업의 일반 현황
• 외국의 시민참여 프로그램 사례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
• 경작가능지 확대
• 도시농업 종합계획 수립
• 도시농업 거버넌스 강화
• 도시농업의 다양성 추구
• 도시농업 교육 홍보 강화

〈그림 1-1〉 연구의 체계

Ⅱ 도시농업의 의의와 필요성

제1절 도시농업의 발전 배경

베버(Weber)는 도시란 경제적으로 정의할 때 “농업보다는 주로 교역을 통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사는 정주공간”이라고 말했다.[1] 그러나 도시와 농업의 관계는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인정하고 있다. 베버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도시가 성장하면 할수록 도시 내 토지를 자체 식량 공급용으로 이용할 기회가 줄어든다면 도시농업은 베버의 명제에 반하는 현상이 될 것이다. 멈퍼드(Mumford)는 유럽 중세도시의 주민들은 집 뒤뜰에 채원이 있었으며 도시 내에서 농업적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적고 있다.[2] 월터스(Walters)는 “수렵채취에서 농업으로의 전이는 직접적으로 일어났다기보다는 최초의 농업은 텃밭과 같이 어쩌면 원예의 형태였을 것이다”고 주장하고 있다.[3] 제이콥스(Jacobs)는 도시농업이 농촌농업보다 앞섰다고 주장한다. 도시에서 곡식을 생산하고 가축을 기르고 있을 때 아직 전문적으로 농업으로만 살아가는 농촌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4] 이렇게 볼 때, 도시농업은 농촌지역에서 행해지고 있는 일반적인 농업형태보다 훨씬 자연적이고 오래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

1) Weber, Max, 1960, *The City*, London: Heinemann, p.66. 참조.

2) Mumford, Lewis, 1961, *The City in History: Its Origins, Its Transformation, and Its Prospects*, London: Secker & Warburg, 참조.

3) Waters, A. Harry, 1973, *Ecology, Food & Civilization*, London: Charles Knight & Co. Ltd, p.19. 참조.

4) Jacobs, Jane, 1969, *The Economy of Cities*, New York: Vintage Books.

서울에서 광의의 도시농업은 조선왕조 성립 이후 수 백 년 동안 내려오던 전통적인 것이었다. 친잠 또는 양잠 권장을 목적으로 하는 잠실은 서잠실(연희동), 동잠실(현재의 잠실), 남잠실(잠원동) 등이 서울 근교에 있었다. 권농동에서는 조선시대에 내농포가 있었는데 내농포는 궁중에 공급하는 채소를 가꾸는 밭으로 내시들이 이를 맡았다. 지금 연희동 근처도 내수용의 논밭이 있었던 듯 1456년에 세조가 이곳에서 모내는 것을 시찰하였다고 하며 고추를 심었다는 고초전(苦草田)도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지금의 방송통신대학 자리는 서울배추의 산지로 유명했다. 의주로 1가에는 미나리골, 을지로 5가에는 미나리논이 있었다고 하며, 이로 미루어 보아 저습지대에는 미나리밭이 상당히 있었다고 짐작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서울 곳곳에서 채소가 경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5)]

한편 도시농업이 발전한 배경에는 지구온난화 문제가 있다.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이산화탄소 저감을 통한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도시농업이 전 세계적으로 크게 주목받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2004년 불량 만두소 파동, 2010년 배추 파동 등을 거치며 도시농업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약식동원, 오소렉시아 너보사(Orthorexia Nervosa) 등의 말이 나오는 가운데 건강과 음식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싹트고 있다. 이제 농촌의 도시화시대가 가고 도시의 농촌화시대가 오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에서 도시농업이 커다란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5) 이춘녕, 1989, “서울의 농업지대 소고”, 「향토서울」, 제47호.

제2절 도시농업의 의의

1. 도시농업의 정의

이창우(1995)는 도시 행정구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체의 농업 행위를 도시농업으로 정의한 바 있다. 유병규(2000)는 도시농업을 근교농업이 지닌 1차 산업적 생산 개념과 2,3차 산업적 가공 및 서비스 개념이 도입된 복합 산업적 행위라고 정의했다. 요시다 타로(2002)는 주위가 택지로 둘러싸여 뿔뿔이 흩어진 토지조각들을 이용한 농업으로, 학교와 공장의 인접지, 회사와 병원, 주택가 옥상과 발코니에 이르기까지, 시내 한복판이라도 빈 땅이면 어디서든 유기농업으로 농산물을 생산하는 활동이 도시농업이라고 정의했다. 김종덕(2002)은 도시의 공터, 아파트 베란다, 뒤뜰, 옥상 등에서 영농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을 도시농업이라고 했다. 오대민, 최영애(2005)는 도시농업을 도시민이 도시의 다양한 공간을 이용하여 식물을 재배하고, 동물을 기르는 과정과 생산물을 활용하는 농업활동으로 보았다. 장동헌(2006)은 도시와 농업의 관계 속에서 공공적이며 생태지향적인 성격을 갖는 농업을 도시농업이라고 했다. 농촌진흥청(2010)은 도시농업을 “도시민이 도시 또는 인근에서 농사짓는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용어로서, 넓게는 농작물, 관상용 화초뿐만 아니라 가축을 기르고 가공・유통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김태곤, 박문호, 허주녕(2010)은 도시농업이란 “공간적으로는 도시지역과 도시근교지역에서 행해지는 생업농업과 생활농업을 말하며, 환경보전이나 재해방지, 경관형성 등의 다원적 기능을 발휘한다. 또한 활동주체의 관점에서 보면 생업으로서의 농업인과 생활농업으로서의 텃밭농원 이용자, 그리고 교류나 직거래 참가자 등을 포함한다.”고 말하고 있다.

UNDP(1996)에 따르면 도시농업은 도시 또는 도시 인근의 토양과 수상에서 다양한 작물이나 가축을 생산하기 위해 자연자원이나 도심의 폐자원을 활용해 집약적인 생산, 가공, 유통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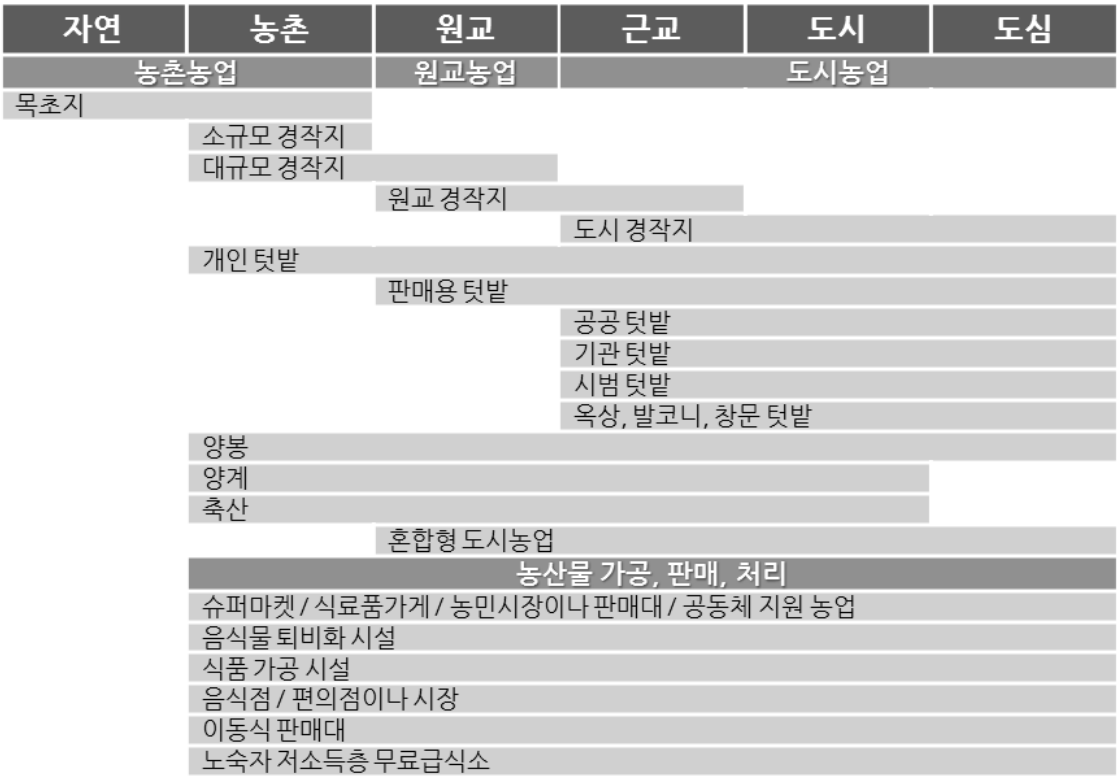
FAO(1999)에 따르면 도시농업은 마을, 도시, 대도시권 내의 소비수요에 대응하여 식량과 연료를 생산, 가공, 유통하는 산업으로 도시 및 도시근교 지역에 분산된 토지와 수자원을 이용하며, 다양한 작물과 가축을 수확하기 위해 집약적 생산방식을 적용하고, 쳔

연자원과 도시폐기물을 (재)사용한다.

CAST(Council on Agricultural Science and Technology: 2002)에 따르면, 도시농업은 생산, 가공, 판매, 유통, 그리고 소비와 관련한 전통적 농업활동에서부터 다원적 효용을 제공하는 서비스까지, 광범위한 관심영역을 관통하는 복잡한 체계이다. 다양한 관심영역은 휴양과 여가, 경제적 활력과 기업가 정신, 개인의 건강과 복리, 공동체의 건강과 복리, 경관의 미화, 그리고 환경복원과 개선을 포함한다.

RUAF(Resource centres on Urban Agriculture and Food security: 2007)에 따르면 도시농업은 도시 안과 주변에서 식물이나 동물을 기르는 행위로 도시경제와 생태의 한 부분을 차지하며 도시체계 중 식량체계로 기능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도시농업을 “도시 행정구역 내와 근교를 포함한 도시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농사활동”으로 정의한다(<그림 2-1> 참조).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여가 및 공익형 도시농업만을 다루고 영리 목적의 상업농은 다루지 않기로 한다.



〈그림 2-1〉 도시농업과 식량체계

자료: Kimberley Hodgson, Marcia Caton Campbell and Martin Bailkey, 2011, Urban Agriculture: Growing Healthy, Sustainable Places, American Planning Association, p.14

2. 도시농업의 유형 분류

다양한 연구자가 다양한 측면에서 도시농업을 유형 분류하고 있다.

이창우(1995)는 도시농업을 텃밭경작, 무단점유, 상업농업, 취미농업으로 분류한 바 있다.

오대민・최영애(2005)는 다양한 도시농업의 정의를 소개하는 한편, 도심에서 실천 가능한 농업의 유형으로 옥상정원, 실내 공간 농업, 학교정원, 공동체정원, 원예치료(치료 및 재활공간), 도시민농장, 동물 키우기를 들고 있다.

장동헌(2006)은 도시농업을 취미 및 생활농업, 농업인의 자가생산, 상업적 생산으로 분류했다. 농촌진흥청(2008)은 주거지형, 농장형, 학교형, 공공복지시설형, 공원형, 상공업지형으로 분류했다. 김태곤 외(2010)는 도시농업을 생업농업, 생활농업, 교류 및 직거래의 3가지로 분류했다.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11.22) 제8조(도시농업의 유형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도시농업은 주택활용형 도시농업, 근린생활권 도시농업, 도심형 도시농업, 농장형・공원형 도시농업, 학교교육형 도시농업의 5가지로 분류되어 있다.

Koont(2011)는 쿠바의 도시농업 형태를 Patio(자가 소비형 가정텃밭), Parcela(공한지 이용 텃밭), Huerta Intensiva(베드를 이용하지 않는 경작), Organoponico(재배 베드 이용 경작)의 4가지로 분류하였다.

한편 도시농업의 형태를 영리 목적 여부를 기준으로 나누면 다음의 <표 2-1>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도시농업은 크게 여가 및 공익형, 영리형, 혼합형으로 나눌 수 있다. 여가 및 공익형에는 개인텃밭, 공동텃밭, 기관텃밭, 시범텃밭, 식용식물 조경, 무단점유 텃밭, 취미 양봉, 취미 양계 등이 있다. 영리형 도시농업에는 판매용 소규모 텃밭, 상업적 도시농업, 원교 상업농, 상업적 양봉이 있다. 혼합형은 여가 및 공익형과 영리형이 혼합된 형태를 말한다.

도시농업은 <표 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체, 목적, 입지, 규모, 생산기술과 생산물을 기준으로 분류할 경우 형태가 매우 다양함을 알 수 있다.

〈표 2-1〉 도시농업의 형태

구분	형태	내용
여가 및 공익형	개인 텃밭	개인이 자신의 정원, 옥상, 발코니, 테라스 등에 조성한 텃밭
	공동 텃밭	여러 사람이나 단체가 중심이 되어 경작하는 텃밭
	기관 텃밭	학교, 병원, 교회, 성당, 사찰, 공장
	시범 텃밭	시민 대상 시범 목적의 텃밭
	식용식물 조경	사유지나 공유지에 식용 식물을 경관 목적으로 심은 경우
	무단점유 텃밭	남의 토지를 무단 점유하여 경작하는 형태
	취미 양봉	취미로 하는 양봉
	취미 양계	취미로 하는 양계
영리형	판매용 소규모 텃밭	도시 내 소규모 토지에서 판매용으로 농사를 짓는 경우
	상업적 도시농업	도시 및 근교의 상당 규모 농지에서 상업적으로 농사를 짓는 경우
	원교 상업농	도시 근교와 농촌 사이에서 상업적으로 농사를 짓는 경우
	상업적 양봉	도시 내에서 상업적으로 양봉을 하는 경우
혼합형	혼합형 도시농업	자가소비, 교육, 기부, 판매용이 혼합된 경우. 시민사회단체가 운영

자료: Kimberley Hodgson, Marcia Caton Campbell and Martin Bailkey, 2011, Urban Agriculture: Growing Healthy, Sustainable Places, American Planning Association, p14

〈표 2-2〉 도시농업의 다양성

구분	내용
주 체	행정 주도형: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농업기술센터 민간 주도형: 농민, 시민사회단체, 개인 혼합형: 민관 파트너십
목 적	개인 소비, 여가 활용, 교육 및 시범, 공동체 회복, 지역경제 활성화, 치유, 판매, 기부, 기타
입 지	도시와의 거리: 도심, 도시, 근교, 원교, 농촌 토지 건물 소유권: 사유 토지 및 건물, 국공유 토지 및 건물 용도 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규 모	필지 단위: 대규모 필지, 소규모 필지 기타 경작 장소: 옥상, 발코니, 베란다, 테라스, 전기가스수도 용지, 울타리, 벽, 지하공간
생산 기술	노지 재배, 베드 재배, 비닐하우스 재배, 온실 재배, 수경 재배, 아쿠아포닉(물고기 양식과 수경재배 융합), 영구농법, 식물공장, 수직농업
생 산 물	채소, 과일, 곡물, 꽃, 나무, 벌꿀, 육류, 농자재, 퇴비

제3절 도시농업의 필요성

거대 식품산업은 시민의 식탁과 부엌을 지배하면서 우리의 일상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식탁의 80%를 차지하는 가공식품이 우리의 건강을 해치고 있는데[6], 가공식품의 해악을 줄이기 위해서도 로컬푸드를 생산하는 도시농업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도시텃밭에서 하는 경작활동은 다양한 신체기관을 사용하는 운동이기도 하므로 경작행위 자체가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며 영양소가 풍부한 신선한 채소를 생산하여 건강증진에 기여한다.

쓰레기가 나뒹구는 공한지를 정비하면서 공동체 의식까지 회복시킨다는 차원에서 버려진 땅을 활용하는 도시농업은 지역주민에게 실제적이고 즉각적인 효과를 가져다준다. 도시텃밭은 초등학생 대상의 환경교육 장소가 되기도 한다. 도시텃밭은 도시공원에 비해 조성 및 관리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공원녹지 확충을 위한 좋은 대안이 된다.

도시농업은 값싸고 신선한 농산물을 시민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효과가 있다. 저소득층 주민이 저렴한 이용료를 내고 도시텃밭에서 직접 경작해서 농작물을 수확할 경우 음식비 지출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으며 건강증진에도 도움을 주어 의료비 지출을 줄이는 데도 기여한다. 도시텃밭 경작자가 수확한 농작물의 일부를 저소득층주민에게 기부하면 소득 재분배 효과도 생긴다.

도시농업의 기능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즉 도시농업은 신선하고 안전한 채소와 작물의 공급, 방재 기능과 피난 장소, 수환경 보전과 수자원 함양, 자연환경 및 경관 보전, 소음 저감, 온도와 습도의 조절과 열섬효과의 완화, 대기오염 저감, 이산화탄소 저감을 통한 지구온난화 방지, 야생동식물 서식처 제공으로 생물종다양성 증진, 자연체험학습 등 환경교육의 장, 건강 증진, 휴양 및 레크리에이션 장소, 지역 간·시민 간 교류 장소, 전통문화의 계승과 재창조 기능을 한다.

위와 같은 기대효과 때문에 전 세계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농업 활동에 시민 참여를 조장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주요한 기능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그림 2-2> 참조).

---

6) 윌리엄 레이몽 지음, 이희정 옮김, 2010, 식탁의 배신, 서울: 랜덤하우스코리아.

1) 환경보전

도시농업의 농지공간은 식물피복지가 감소하고 있는 도시지역에서 채소나 꽃 등을 재배해서 적극적으로 녹지환경을 확보하는 기능을 한다. 건물이나 포장으로 덮힌 도시공간에서 공원이나 도시림과 함께 귀중한 토양공간을 확보하는 기능도 한다. 도시농업 경작지는 도시지역 녹지 환경자원으로서의 농지를 보전하고 농업자 자산으로서의 농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관리하여 보전하는 기능도 한다.

2) 방재

도시농업 경작지는 화재 발생 시 확산을 방지하고 재해가 발생했을 때 피난장소로 활용할 수 있다. 주택밀집지역에 있는 도시농업 경작지는 도시재해가 발생했을 때 복구작업용 장비 적치장으로 공간 활용이 가능하고 클럽 하우스가 잘 정비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시적인 피난공간으로 사용하거나 채소 등 식량을 확보하는 등 재해복구지원공간이 될 수 있다.

3) 공동체 형성

다수의 이용자가 각각의 구획을 이용하면서 인접구획 이용자와 다양한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된다. 특히 이용자단체가 농지 운영관리에 참여하는 도시농업 경작지에서는 공동체 형성기능이 강화된다. 농지 이용자가 농지 주인이나 관계 농민과 접촉함으로써 도시와 농촌 간 교류와 상해 이해가 촉진되는 효과를 거둔다.

4) 지역경제 활성화

도시농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유럽의 도시농업이 주로 건강증진 및 취미생활이 목적이라면, 우리나라 도시농업은 사회적기업, 마을 기업 육성과 연계하여 고용창출도 중요한 기능 중 하나로 보고 있다. 도시농업은 자급채소생산의 장으로서 생산기능을 가지고 있다.

5) 환경교육

도시농업 경작지는 흙과 같이 하는 생활을 잃어버린 시가화지역 시민에게 흙과 접촉하는 장소로서, 자연적 체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작물의 재배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교육적인 기능을 발휘한다.

6) 여가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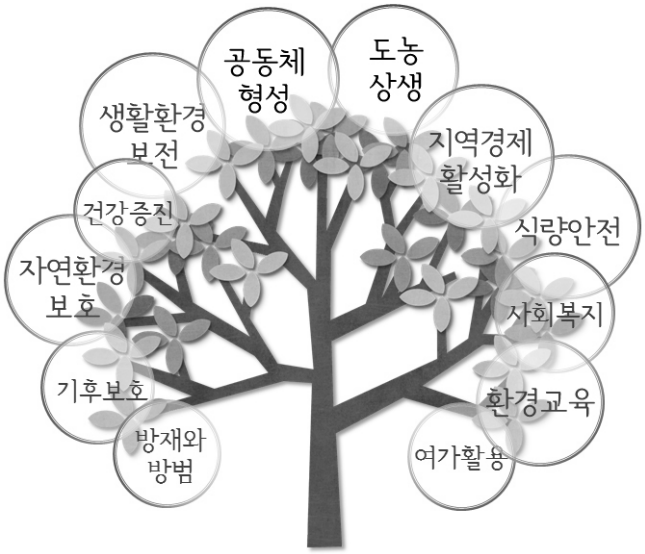
도시농업 경작지는 재배의 즐거움과 수확의 기쁨을 이용자에게 주면서 가족에게 레크리에이션 공간을 제공하는 동시에 참여자들에게 여러 가지 여가활동을 하는 공간을 제공한다.

7) 보건휴양

햇볕과 녹색이 풍부한 도시농업 경작지는 여러 이용자가 자신의 능력이나 처지에 맞는 규모로 경작하면서 땀을 흘림으로써 건강증진 기능을 가지며, 허브 등을 이용하는 등으로 원예요법 기능도 기대할 수 있다.

8) 사회복지

고령화가 진전되는 가운데, 도시농업 경작지는 고령자의 활력 있는 활동공간을 제공한다. 심신장애자의 야외생활공간으로 또는 요양자의 재활의 장으로서 사회복지적 기능이 기대된다.



〈그림 2-2〉 도시농업의 기능

Ⅲ 서울시 도시농업 현황

제1절 서울시 도시농업 일반 현황

1. 서울시 도시농업 추진 실적

서울시 도시텃밭은 총 411개소에 이른다(<표 3-1>, <표 3-2> 참조). 지원프로그램에 따라 마을공동체 텃밭이 98개소, 자투리 텃밭이 57개소, 소규모 옥상 텃밭이 85개소, 공영 텃밭이 10개소, 민간 텃밭이 55개소로 나뉘며, 이 중 공영텃밭은 서울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실버농원 2개소, 다둥이가족농원 2개소, 다문화가족농원 1개소, 서울시 공원조성과에서 운영하는 관악 청룡산 동네뒷산 공원텃밭 1개소, 노원 불암산 동네뒷산 공원텃밭 1개소, 그리고 서울시 공원녹지국 공원녹지정책과와 중부공원녹지사업소에서 운영하는 노들텃밭 1개소, 용산가족공원 친환경텃밭 1개소, 광화문광장 상자벼 1개소가 포함되어 있다.

민간텃밭과 공공텃밭으로 나눌 경우, 공공텃밭은 공영텃밭 10개소에 마을공동체 텃밭 98개소, 자투리 텃밭 57개소, 옥상텃밭 85개소를 더한 356개소를 나타낸다.

서울시와 자치구의 도시농업 지원실적 누적집계 자료(2012년도 2분기 기준)와 공영 및 민간텃밭 현황자료(2012년 6월 기준)를 바탕으로 서울시의 도시농업 현황을 도면화하였다(<그림 3-1>, <그림 3-2> 참조). 지도에 표시된 텃밭의 총 개소수는 민간텃밭 55개소에 공공텃밭 356개소를 더하여 총 411개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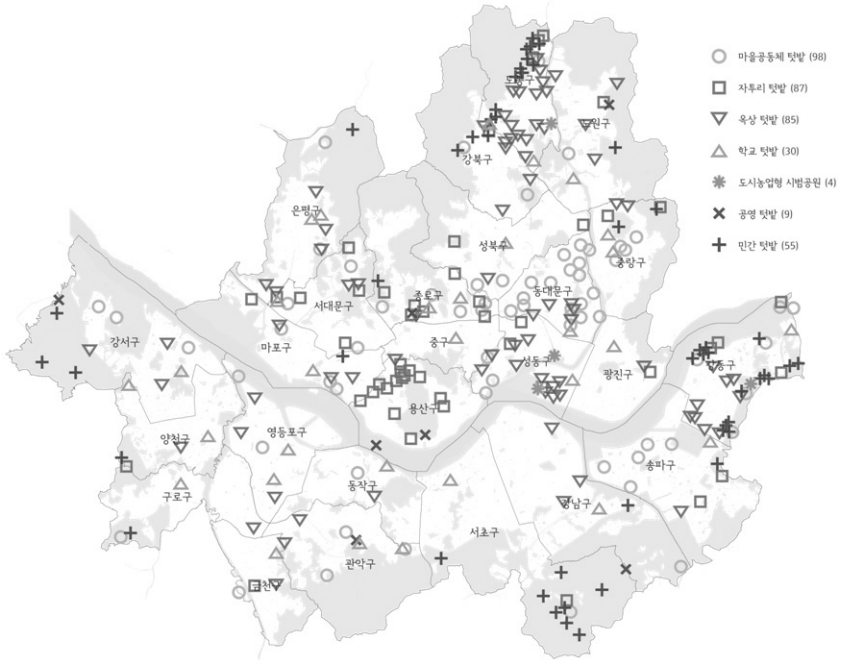
〈표 3-1〉 서울시 본청 도시농업 추진실적 (2012년 6월 기준)

구분	개소수	구획수	면적(㎡)
계	161	22,247구획, 상자 1,218개	447,580
희망서울 친환경농장	13	7,000	115,500
옥상농원	55	-	4,979
실버농원	2	600	8,000
다둥이 가족농원	2	200	3,000
다문화 가족농원	1	50	600
용산가족공원 텃밭	1	205	1,705
노들섬 텃밭	1	609	22,554
민간텃밭	55	13,483	281,236
광화문광장 상자벼	1	상자 1,218개	840
학교텃밭	30	-	9,166
도심양봉	1	봉군 5개	40리터

〈표 3-2〉 자치구 도시농업 추진실적 (2012년 6월 기준)

구분	개소수	구획수	면적(㎡)
계	250	5,626구획, 상자 27,434개	197,360
구 자체 텃밭	7	2,301	42,448
자투리텃밭	57	3,325	74,567
상자텃밭	-	상자 19,182개	4,630
마을공동체텃밭	98	상자 4,968개	53,109
소규모 옥상텃밭	85	상자 3,284개	18,062
도시농업공원형 시범농원	3	-	4,544

〈그림 3-1〉 자치구별 공공/민간 텃밭 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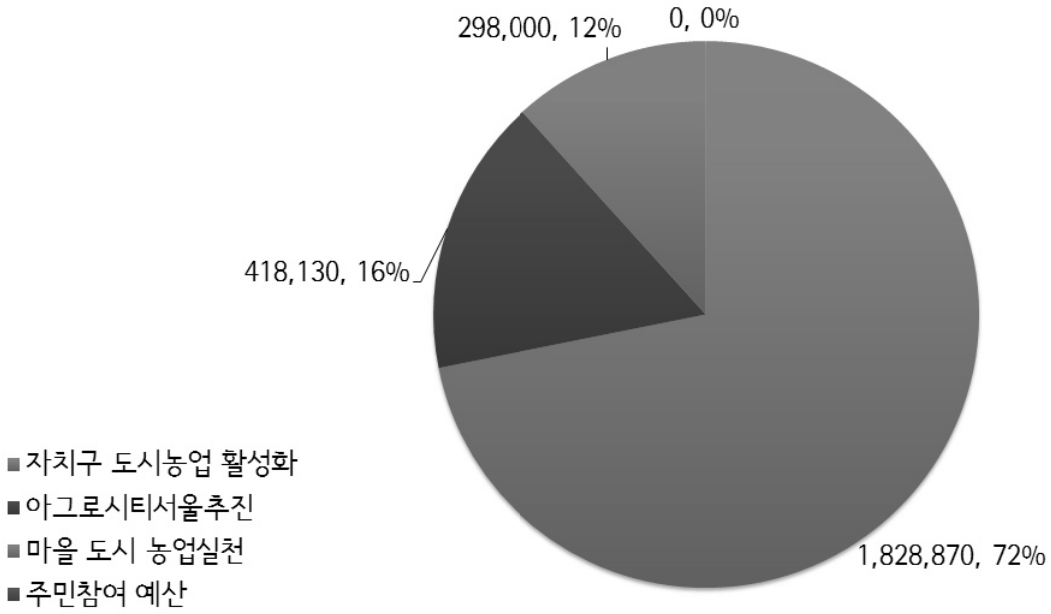
〈그림 3-2〉 유형별 텃밭 분포도

한편 서울시 도시농업예산은 2012년에 25억 4,500만원이었고, 2013년에는 27억 2,500만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자세한 내용은 <표 3-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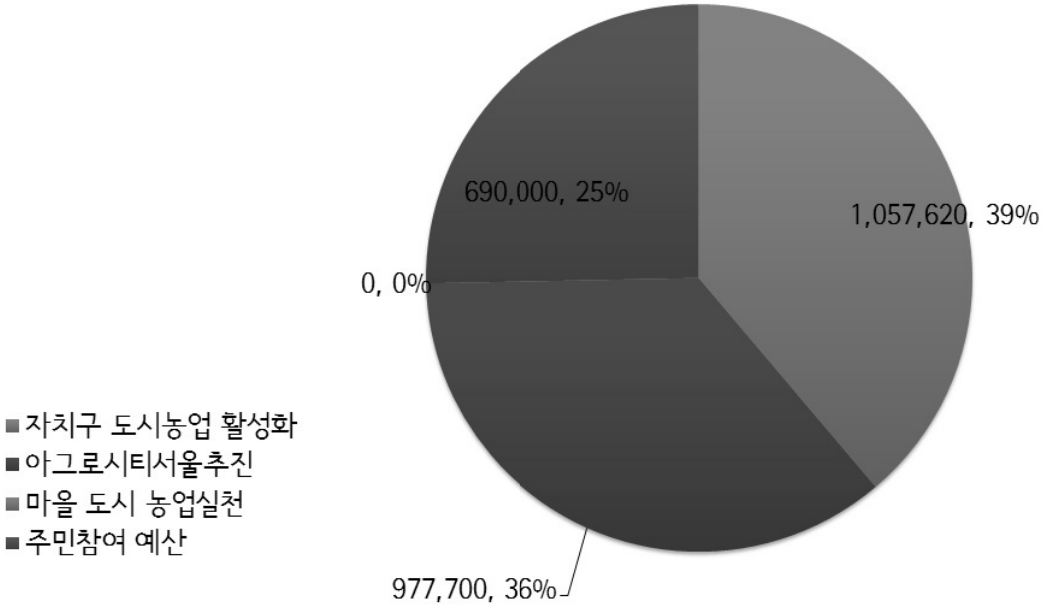
〈표 3-3〉 서울시 도시농업 예산

(단위: 천원)

사업명	통계목	세 부 내 역	2012년	2013년 (안)	'12년 대비 증감
		총 계	2,545,000	2,725,320	180,320
자치구 도시농업 활성화	자치단체 경상보조	소 계	1,828,870	1,057,620	△771,250
		자투리땅 텃밭조성	713,500	262,700	△450,800
		옥상텃밭 지원	270,000	633,000	363,000
		상자텃밭 보급	96,500	161,920	65,420
		도시농업공원형 시범농원 조성	748,870	-	△748,870
		자치구 텃밭운영관리비지원	-	-	-
		자치구 도시농업 실태조사	-	-	-
아그로시티 서울추진	민간경상 보조금	소 계	418,130	977,700	559,570
		도시농업지원센터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 운영비 지원	-	50,000	50,000
		민간단체 텃밭운영 공모사업	-	150,000	150,000
		대학생 도시농업 연합 동아리 지원	-	-	-
		장애인 양봉단 지원	-	-	장애인과
		원예치료 프로그램 시범농장 운영	-	50,000	50,000
	사무관리비	도시농업위원회 운영	5,000	9,600	4,600
		도시농업 워크숍 개최	-	8,200	8,200
		노들섬 도시농업공원 조성지원	41,130		△41,130
		열린광장논 조성, 상자벼 전시	-	22,000	22,000
		시청옥상 양봉관리		2,400	2,400
		FAO분담금	8,000	0	과사무관리로 통합 △8,000
	민간행사 보조금	도시농업박람회 개최	200,000	400,000	200,000
	시책업무 추진비	도시농업활성화시책 업무추진	-	7,500	750
	국외여비	선진도시농업 벤치마킹 견학	10,000	-	△10,000
	재료비	노들섬 도시농업공원 조성지원	1,000		△1,000
		열린광장논 조성, 상자벼 전시	-	6,000	6,000
	시설비	노들섬 도시농업공원 조성지원	28,000		△28,000
		열린광장논 조성, 상자벼 전시	-	22,000	22,000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학교농장조성	125,000	250,000	125,000
마을 도시 농업실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소 계	298,000	-	△298,000
		마을도시농업 실천지원	298,000	-	△298,000
주민참여 예산	자치단체 경상보조	소 계		690,000	690,000
		도심형도시농업 조성(송파구)	-	150,000	150,000
		상자텃밭가게(관악구)	-	80,000	80,000
		호미로 일구는 마을공동체(금천구)	-	160,000	160,000
		주민이 함께가꾸는 나눔 도시텃밭 조성(동대문구)	-	300,000	300,000



〈그림 3-3〉 2012년도 서울시 도시농업 예산



〈그림 3-4〉 2013년도 서울시 도시농업 예산(안)

2. 도시농업 제도화 현황

우리나라 도시농업의 제도화는 외국에 비해 상당히 늦은 편이다. 영국의 얼로트먼트법이 1908년에 제정되었고, 독일의 연방 클라인가르텐법이 1983년에 제정되었으며, 일본의 시민농원정비촉진법이 1990년에 제정된 것에 비해 우리나라의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2011년에야 제정되었다.

서울시는 2012년 2월부터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 끝에 7월 조례안을 상정하고 10월 본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11월 1일자로 조례를 제정했다. 총 22개 조로 이루어진 이 조례는 법에서 정한 대로 도시농업을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하여 취미, 여가, 학습 또는 체험 등을 위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재배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서울시의 12개 자치구가 현재 도시농업 관련조례를 제정해 놓고 있다. 강동구, 광진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마포구, 서대문구, 서초구, 성북구, 송파구, 은평구, 종로구 등 총 12개 구가 도시농업 관련 조례를 제정했는데, 이 중 강동구, 송파구는 2010년에 제정했고, 나머지 구는 2011년에 제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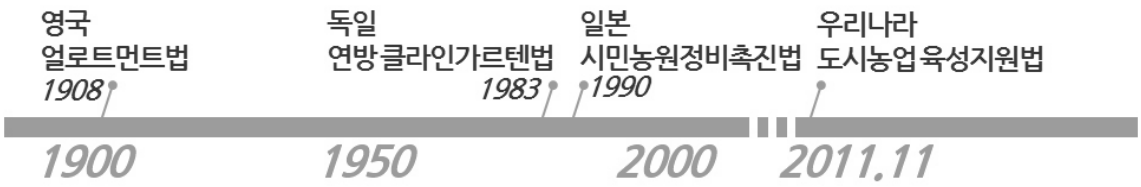
서울시 도시농업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2007년 제정된 서울특별시 친환경농업 및 주말·체험영농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가 서울특별시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이 변경되면서 일부 조항이 개정되었다. 그동안 「농지법」에 따라 운영하여 온 '주말·체험영농'이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근거한 조례에 따라 '도시농업인의 농작물 경작·재배'로 변경·운영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이 조례는 「친환경농업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조례의 범위를 축소하였다.

도시농업 전담 조직과 관련하여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변화가 있었다. 우선 서울시는 도시농업업무 추진체계를 공원녹지국으로 일원화하려던 당초 개편안이 무산되었다. 도시농업 업무를 경제진흥실에 존치하도록 하고, 도시영농팀을 도시농업팀과 영농관리팀으로 개편하였다. 농업기술센터 5급 기구를 4급 기구로 확대, 강화하여 도시농업 기술개발과 농업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자치구는 종로구 공원녹지과 도시농업팀, 성북구 공원녹지과 도시농업팀, 도봉구 환경정책과 녹색도시농업팀, 강동구 도시농업기반조성반 친환경도시농업팀이 조직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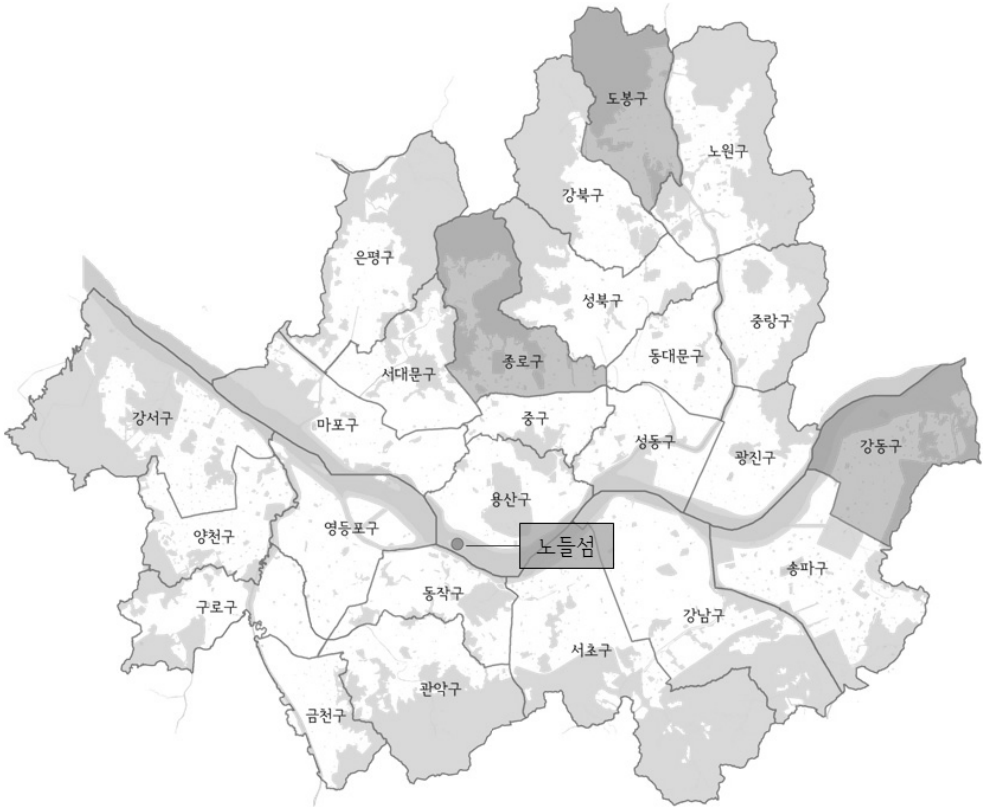
있으며, 금천구가 전담부서 신설을 추진 중이다.

도시농업과 관련한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이 증가하고 도시농업의 제도화가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외국에 비해 아직은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예를 들면 미국 클리블랜드 시는 2007년 미국 최초로 도시텃밭을 도시계획조례상 용도지역 지구로 입법화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 오클랜드 시는 최근 조례를 개정하여 시청에 40달러를 내면 자신의 집 텃밭에서 수확한 농작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미국 밀워키 시는 2010년 3월, 조례를 개정하여 주거지역에서 양봉을 허용했다. 영국, 미국의 도시들이 도시공원 내 일부 구역에서 텃밭 경작을 허용하기 시작했다.



〈그림 3-5〉 우리나라 도시농업 제도화 시기

3. 자치구 도시농업 추진 현황



〈그림 3-6〉 현장조사 대상

1) 강동구

강동구는 2020년까지 1가구 1텃밭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강동구는 지난 7월 14~15일 양일간 구청과 구청앞 디자인 거리 일대에서 제1회 강동 친환경 도시농부 한마당을 개최해 도시농업을 홍보하고 버스텃밭을 비롯해 다양한 형태의 텃밭을 전시하는 축제를 벌인 바 있다.

강동구에는 도시농업 전담부서인 도시농업기반조성반이 있다. 부서별 업무분담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도시농업기획팀은 박람회 준비, 공원 교육프로그램 구상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도시농업육성팀은 텃밭보급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고, 로컬푸드 지원팀은 도시농업지원센터 운영과 친환경 농산물 직거래 업무를 맡고 있다.

강동구는 6개소의 도시텃밭을 관리하고 있다. 가래여울 폐천부지를 포함한 도시텃밭 중 2곳은 미사용 국유지다. 논농사 조성계획도 있는데, 일반에게 분양하고 공동작업 및

수확을 원칙으로 할 계획이다. 도시텃밭 1,900구좌 중 1,600구좌는 일반인, 300구좌는 사회적 약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 상일동 보금자리 주택 예정지역에 공공용지 의무할당 면적 중 일부인 30% 이내 공원면적에 텃밭을 만드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강동구는 상자텃밭 보급에 적극적이다. 상자텃밭 사후관리 전담인원이 18명 있다. 가정방문과 사후관리를 귀찮아하는 주민들도 있어 개인분양보다는 단체별, 공동주택별로 분양하고 재배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다.

〈표 3-4〉 강동구 도시농업 추진실적 (2012년 6월 기준)

구분	개소수	구획수	면적(㎡)
계	21	1,932구획, 상자 8,271개	48,037
자투리텃밭	5	354	6,567
상자텃밭	-	상자 8,193개	1,753
마을공동체텃밭	6	1,578	39,580
소규모 옥상텃밭	9	상자 78개	137
도시농업공원형 시범농원	1	-	조성예정

〈그림 3-7〉 강동구 텃밭

2) 도봉구

도봉구는 쌍문동 442-1호(효문중학교 옆) 7,176㎡의 유휴토지 및 도봉동 199번지(북서울중학교 인근) 유휴토지에 친환경 도시텃밭을 조성하여 2012년 4월 15일 개장하였다. 도심 속 유휴지를 활용하여 조성한 친환경 도시텃밭은 조성 환경에 따라 50,000원 ~ 60,000원의 분양료가 책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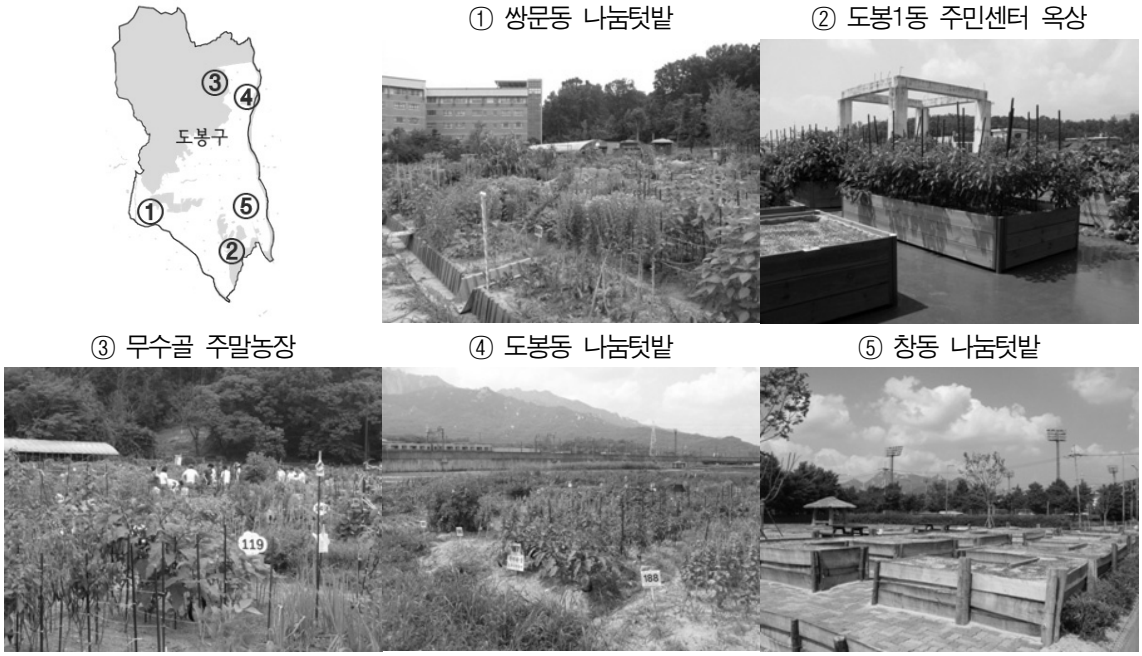
도봉구는 창동 1-7호 3394㎡ 및 도봉동 5-2호 9,300㎡에도 친환경 나눔텃밭을 조성하여 주민에게 추가로 분양했다. 특히 주택의 옥상 및 아파트의 베란다 등에서 채소류를 재배할 수 있는 상자텃밭 2,000세트를 세대당 2세트씩 주민에게 보급했다.

도봉구는 도봉구 창동 산183번지 일대에 초안산 도시농업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면적이 29,231㎡에 이르는 초안산 도시농업공원은 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시비 지원을 받아 금년 중에 착공해 내년 상반기에 준공할 예정이다.

도봉구에는 민간텃밭이 다수 있는데, 도봉동 469번지에 있는 무수골 주말농장은 조성면적이 16,510㎡이고 구좌수가 840구좌에 이르며, 방학동 571번지에 있는 정의공주 주말농장은 조성면적이 8,500㎡이고 구좌수가 420구좌에 이른다.

〈표 3-5〉 도봉구 도시농업 추진실적 (2012년 6월 기준)

구분	개소수	구획수	면적(㎡)
계	26	1,191구획, 상자 1,471개	26,337
자투리텃밭	4	1,001	21,197
상자텃밭	-	상자 1,240개	373
마을공동체텃밭	1	50	840
소규모 옥상텃밭	20	상자 231개	533
도시농업공원형 시범농원	1	140	3,394



〈그림 3-8〉 도봉구 텃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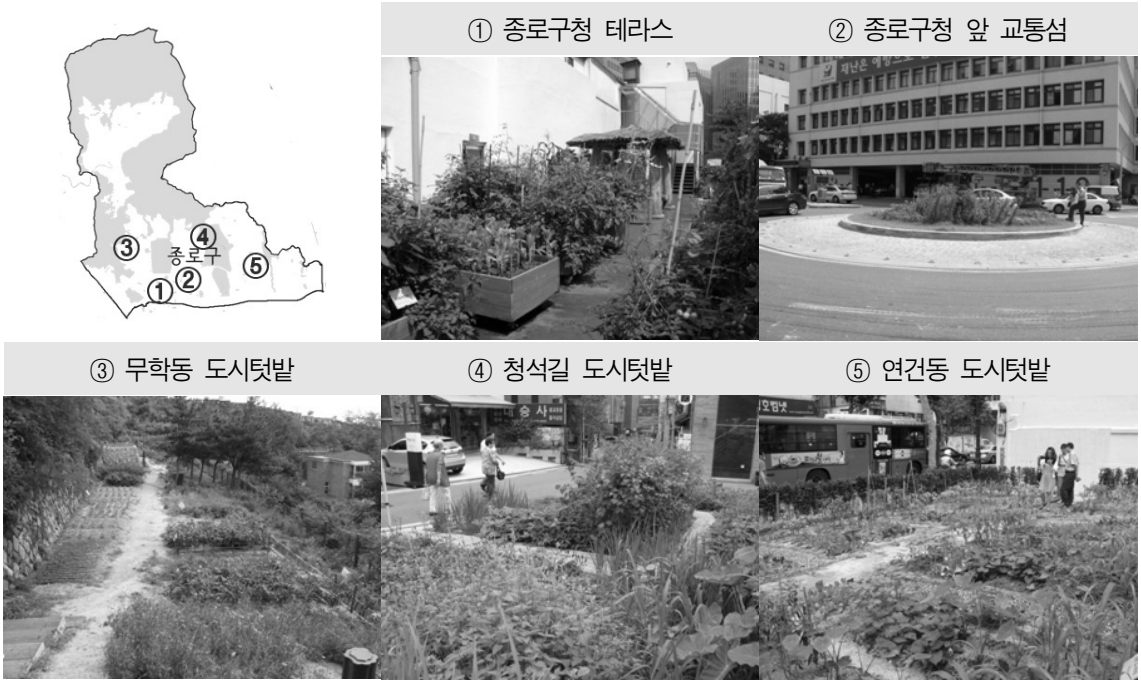
3) 종로구

종로구는 2012년 도시농업 활성화 추진계획과 마을공동체 도시농업 실천 지원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종로구 도시농업의 추진방향은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예술로 승화하는 도시텃밭로를 만든다. 둘째는 대학생 재능 기부를 통해 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셋째는 도시텃밭로를 조성해 관광 상품화 한다.

창신동, 무악동 도시텃밭 2개소 1,950㎡는 분양을 하거나 도시농부학교 체험장으로 활용하고 청석길 도시텃밭, 종로문화원 옆 도시텃밭 등 3개소 341㎡는 계절별 향토작물 식재 등 직영 관리하고 있다. 한편 동 주민센터와 복지회관 등에 상자텃밭 50세트를 보급했으며 분양신청자에게 550세트를 별도로 분양했다. 아울러 연건동 등 4개소 735㎡ 유휴지를 이용해 도시텃밭을 조성하였고 경희궁 공원과 종묘광장 730㎡ 등 공원 내 유휴지를 텃밭으로 조성했다. 종로구는 구청 본관에 상자텃밭을 포함한 옥상텃밭을 조성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표 3-6〉 종로구 도시농업 추진실적 (2012년 6월 기준)

구분	개소수	구획수	면적(㎡)
계	12	111구획, 상자 640개	1,697
자투리텃밭	6	61	928
상자텃밭	-	상자 600개	180
마을공동체텃밭	5(단체수:20)	50	557
소규모 옥상텃밭	1	상자 40개	32
도시농업공원형 시범농원	-	-	-



〈그림 3-9〉 종로구 텃밭

4) 노들섬 도시농업공원

노들섬 도시농업공원은 용산구 이촌동 노들섬 테니스장 부지에 조성되어 있다. 시민단체 및 중부 공원녹지사업소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다. 노들섬 도시농업공원은 서울시 제1호 도시농업공원으로서 서울시의 도시농업 육성 의지와 방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랜드마크이자 도시농업의 다양한 가치를 구현하여 도시농업의 필요성에 대한 시민인식을 확산시키며 농경문화에 기반을 둔 공동체 의식을 제고하고 시민참여에 의한 공원 조성과 운영의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다.

노들텃밭의 주요 시설로는 시민텃밭(6,000㎡)과 공동체텃밭(2,300㎡)이 있으며, 맹꽁이 토종논(1,000㎡), 토종밭(500㎡), 상자텃밭, 미나리꽝(300㎡)도 있다.

〈그림 3-10〉 노들섬 텃밭

4. 도시농업 관련 언론동향

12개 주요전국종합일간지, 8개 경제일간지에서 '도시농업'을 주제로 하거나 언급한 기사를 집계, 분석하여 도시농업에 대한 관심도의 추이를 도표화하였다(<표 3-7>, <그림 3-11>, <그림 3-12> 참조). '도시농업'이란 주제어가 언급된 신문지면 상의 동향을 살피기 위하여 해당 기사의 본문 글자수, 연도별 총 기사수, 연도별 총 본문 글자수를 조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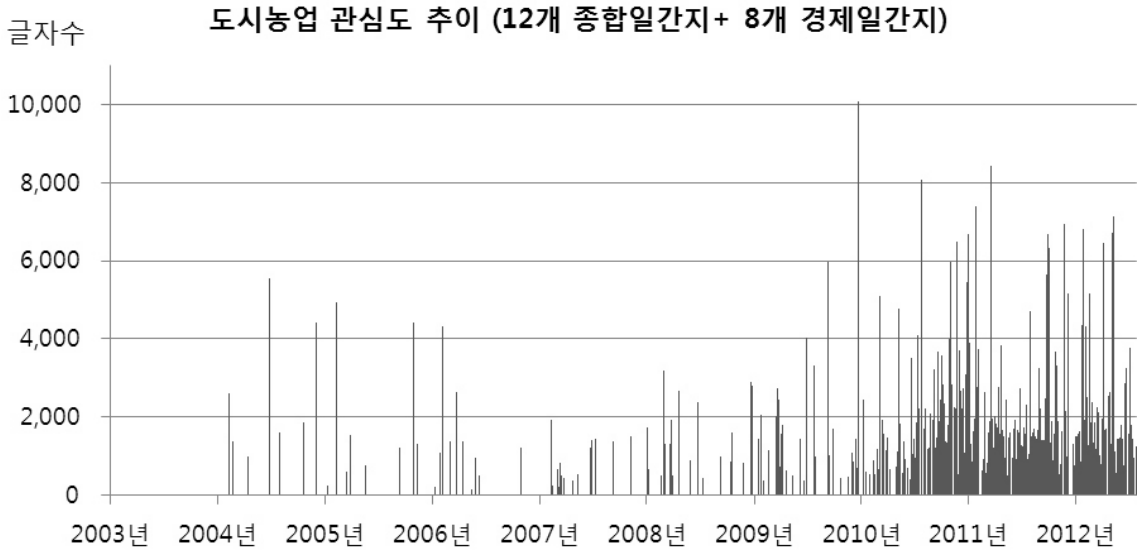
먼저 발행부수가 많은 12개 전국종합일간신문(조선, 중앙, 동아, 국민, 한국, 경향, 한겨레, 서울, 문화, 내일, 아시아투데이, 세계) 649건과 8개 경제일간신문(매일경제, 머니투데이, 서울경제, 이투데이, 파이낸셜뉴스, 프라임경제, 한국경제, 헤럴드경제) 326건, 총 975건의 기사에서 나타난 도시농업 관심도의 변화 추이를 분석하였다. 최초 기록 기사는 1992년이었으며, 2003년까지의 출현 빈도가 거의 없어 1992년부터 2003년까지는 합산하여 표에 정리하였다.

〈표 3-7〉 도시농업 언급 신문기사 현황

연도	기사수	기사당 평균 글자수	총 글자수(개별기사 글자수의 총합)
계	975	-	1,267,337
1992~2003	7	1,780	12,459
2004	12	2,000	23,993
2005	10	1,702	17,019
2006	11	1,383	15,215
2007	15	855	12,829
2008	24	1,567	37,612
2009	51	1,309	66,763
2010	217	1,341	291,062
2011	359	1,293	464,316
2012년 6월	269	1,212	326,069

〈그림 3-11〉 도시농업 언론동향 누적 기사량

위의 누적추이 그래프는 기사별 글자수를 시간순서로 누적하여 나타낸 것으로 도시농업 관련 기사의 양적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2010년 9월 말에 일어난 이른바 배추파동이 도시농업에 대한 관심도 상승에 큰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12〉 도시농업 언론동향 기사별 글자수 추이

위의 그래프에서 세로로 그어진 붉은 색 줄 하나는 해당 시점에 발행된 '도시농업' 언급 기사이며, 세로의 높이는 해당 기사의 본문 글자수를 나타낸다. 붉은 줄의 밀도가 높을수록 관련 기사가 많이 보도된 것이고, 길이가 길수록 도시농업을 중점적으로 다룬 기사이다. 1,000자 미만은 행사나 모집에 관한 간략한 안내, 1,000자 이상 3,000자 미만은 관련 단신, 4,000자 이상은 특집기사인 경우가 많았다.

위의 분석에서 알 수 있고, 다음 제2절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확인해볼 수 있듯이 최근 2~3년 사이에 도시농업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었다. 이 현상이 일시적인 붐이 될지, 아니면 앞으로도 지속될지는 두고 보아야 할 것이다. 현재는 도시농업에 대한 시민의 높아진 관심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서울시의 전략적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겠다.

제2절 도시농업에 대한 시민의 인식과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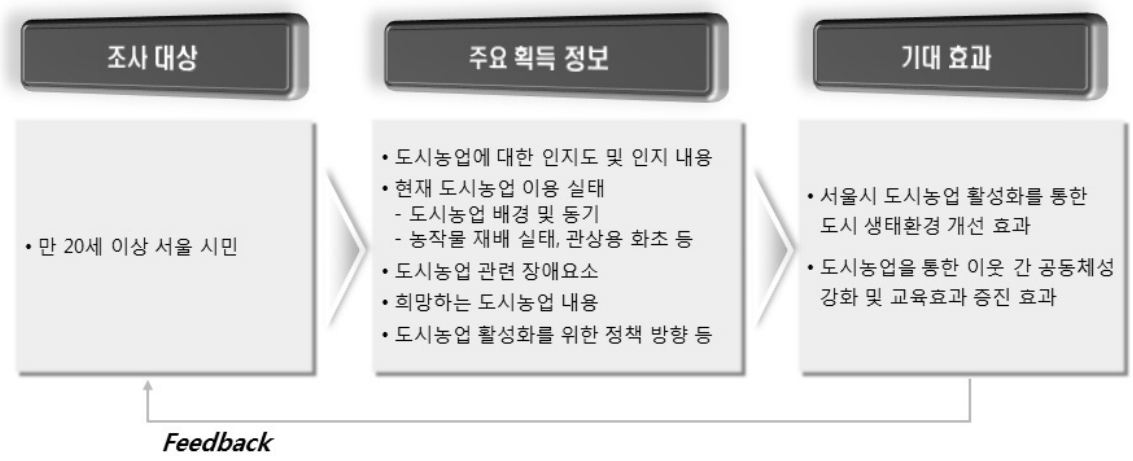
1. 설문조사 개요

1) 조사의 배경 및 목적

도심 속에서 농사를 짓는 '도시농업'이 생태환경 복원 및 교육 효과, 이웃들과의 공동체성 회복 등 다양한 장점이 부각되면서, 서울시는 주요 정책 중의 하나로 2012년을 '서울 도시농업 원년'으로 선포하고 도심 곳곳의 자투리땅을 활용한 본격적인 도시농업을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도시농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도시농업 10계명을 발표하고, 도시농업 멘토 50명을 육성하는 등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시농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반해, 서울시민들이 도시농업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으며, 관심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도시농업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한 자료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 조사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도시농업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서울시 도시농업 정책에 대한 요구사항 등을 조사하여 서울시 도시농업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림 3-13〉 조사 개요

2) 조사 설계

이 조사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자치구 내 성별, 연령별 모집단 분포에 따라 비례 할당을 하여 표본 추출하였으며, 모집단 분포의 틀은 통계청 2011년 12월 말 기준 주민등록인구 수를 기준으로 하였다.

조사방법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온라인 웹 설문조사로 진행되었으며, 총 유효 표본 수는 총 1,000명으로 95% 신뢰구간에서 최대허용 오차범위는 ±3.1이다.

구체적인 조사 설계 내용은 아래와 같다.

〈그림 3-14〉 조사 설계

3) 조사 진행

이 조사는 온라인을 통한 웹 설문 조사 방식의 조사로 서울시민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 추출 및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데이터 처리 과정을 거쳐 최종 유효 표본을 확정하였으며, 구체적인 조사 진행 과정은 아래와 같다.

〈그림 3-15〉 조사 진행 과정

4) 조사 내용

구 분	세부 조사 내용
도시농업 관련 인지 및 경험	도시농업 인지도 도시농업 관련 인지 경로 관상용 화초 재배 여부 현재 농작물 재배 여부
도시농업 참여 현황	농작물 재배 장소 - 주택 내부, 주택 외부 현재 경작하고 있는 농작물 종류 농사 활동 참여 동기 도시농업 참여 기간 농사 활동 할애 시간 (연간, 월간) 도시농업 참여 주체 - 혼자, 가족, 친구, 동료, 이웃 등 연간 텃밭 유지비 및 임대료 텃밭까지의 이동수단 및 이동 거리 (현재 농작물 재배 비참여자) 과거 농작물 재배 경험 여부 - 농작물 재배 중단 이유
도시농업 관련 인식 및 태도	도시농업 참여 시 어려운 점 농작물 재배 활동에서 장애요인 희망하는 농작물 재배 방식 도시농업 관련 긍정 요소에 대한 인식 - 먹을거리 안전, 공동체성 회복, 거리미관 향상, 자연환경 보호, 가계식비 절약, 여가시간 활용, 건강증진 기여, 환경 교육효과 등
도시농업 정책 방향 관련	도시농업 확대에 대한 태도 도시농업 활성화가 필요한 중요 목적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필요 조치 (정책 방향에 대한 인식) 적정 경작 면적에 대한 인식
응답자 특성	성, 연령, 거주 지역, 소득수준, 직업, 학력, 농촌 생활 경험 등

5) 응답자 표본 특성

〈표 3-8〉 응답자 표본 특성 (1)

구 분		사례수	구성비(%)
전 체		1,000	100.0
성별	남성	500	50.0
	여성	500	50.0
연령	20대	226	22.6
	30대	250	25.0
	40대	264	26.4
	50대	205	20.5
	60대 이상	55	5.5
교육수준	중졸 이하	12	1.2
	고졸	140	14.0
	대학교 졸업	698	69.8
	대학원 졸업 이상	150	15.0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28	2.8
	100~199만원	84	8.4
	200~299만원	141	14.1
	300~399만원	187	18.7
	400~499만원	176	17.6
	500~599만원	146	14.6
	600~699만원	76	7.6
	700~799만원	55	5.5
	800만원 이상	107	10.7
직업	농업/임업/수산업	1	0.1
	자영업	81	8.1
	판매/서비스직	51	5.1
	기능직	10	1.0
	사무/기술직	398	39.8
	경영/관리직	76	7.6
	전문/자유직	102	10.2
	전업 주부	133	13.3
	학생	85	8.5
	무직	35	3.5
	기타	28	2.8

〈표 3-9〉 응답자 표본 특성 (2)

구 분		사례수	구성비(%)
전 체		1000	100.0
권역 주1)	도심권	70	7.0
	동북권	301	30.1
	서북권	122	12.2
	서남권	287	28.7
	동남권	220	22.0
거주지역	종로구	25	2.5
	중구	16	1.6
	용산구	29	2.9
	성동구	37	3.7
	광진구	28	2.8
	동대문구	35	3.5
	중랑구	42	4.2
	성북구	47	4.7
	강북구	27	2.7
	도봉구	29	2.9
	노원구	56	5.6
	은평구	46	4.6
	서대문구	27	2.7
	마포구	49	4.9
	양천구	37	3.7
	강서구	61	6.1
	구로구	38	3.8
	금천구	17	1.7
	영등포구	35	3.5
	동작구	48	4.8
	관악구	51	5.1
	서초구	35	3.5
	강남구	60	6.0
	송파구	78	7.8
	강동구	47	4.7

주1) 권역별 구성
- 도심권 : 종로구, 중구, 용산구
- 동북권 :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 서북권 :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 서남권 :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 동남권 :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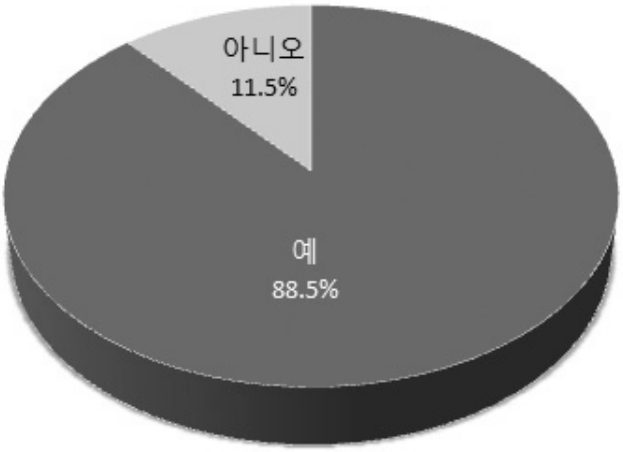
2. 설문조사 결과

1) 도시농업 관련 인지 및 경험

(1) 도시농업 인지 여부

도시농업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의 88.5%로, 도시농업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별로 보면, 40대 이상의 연령 계층 및 400만원 이상 가구소득 계층에서 도시농업에 대한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거주 지역 및 학력, 성별에 따른 인지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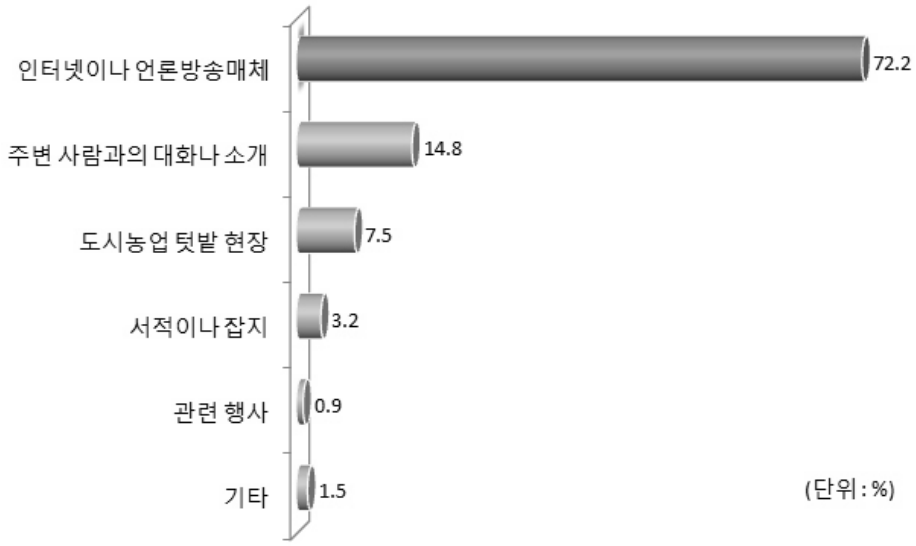
(Base : 전체 응답자 (N=1,000))

〈그림 3-16〉 도시농업 인지 여부

(2) 도시농업 인지 경로

도시농업을 접하게 된 주요 경로는 '인터넷이나 언론방송매체'를 통해 알게 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72.2%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이 '주변 사람의 구전' 14.8%, '도시농업 텃밭 현장' 7.5% 등의 순으로 파악되었다.

서적/잡지 및 관련 행사를 통해 알게 된 경우는 매우 미미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Base : 도시농업 인지자 (N=8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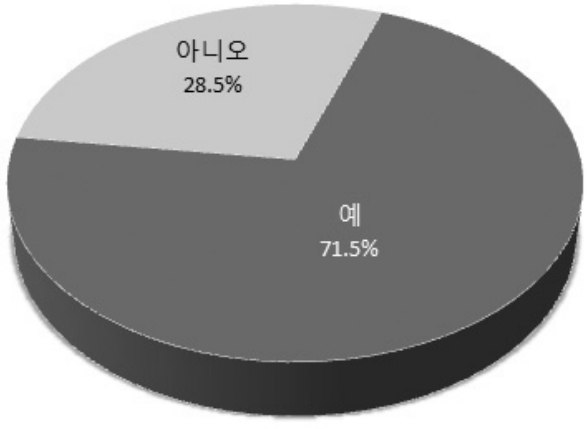
〈그림 3-17〉 도시농업 인지 경로

(2) 재배활동 현황

○ 관상용 화초 재배 여부

주택 내부 또는 외부에서 식용이 아닌 관상용으로 화초를 가꾸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의 71.5%로 상당 가구가 관상용 화초를 가꾸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상용 화초 재배에 대해 50대 이상 고 연령층 및 대졸 이상 학력자, 600만원 이상 고소득계층에서 관상용 화초를 재배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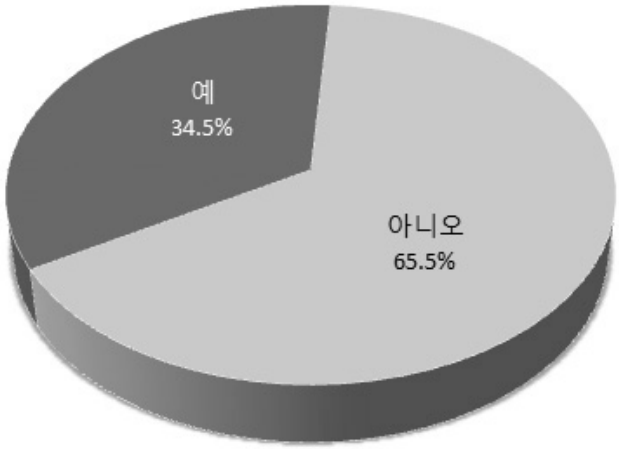
(Base : 응답자 전체 (N=1,000))

〈그림 3-18〉 관상용 화초 재배 여부

○ **농작물 재배 여부**

주택 내부 또는 외부에서 채소나 과수, 곡류 등의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4.5%로 3가구 중 평균 1가구 정도가 농작물 재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별로 보면, 600만원 이상 고소득 계층에서 현재 농작물 재배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연령 및 거주 지역, 학력 등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비슷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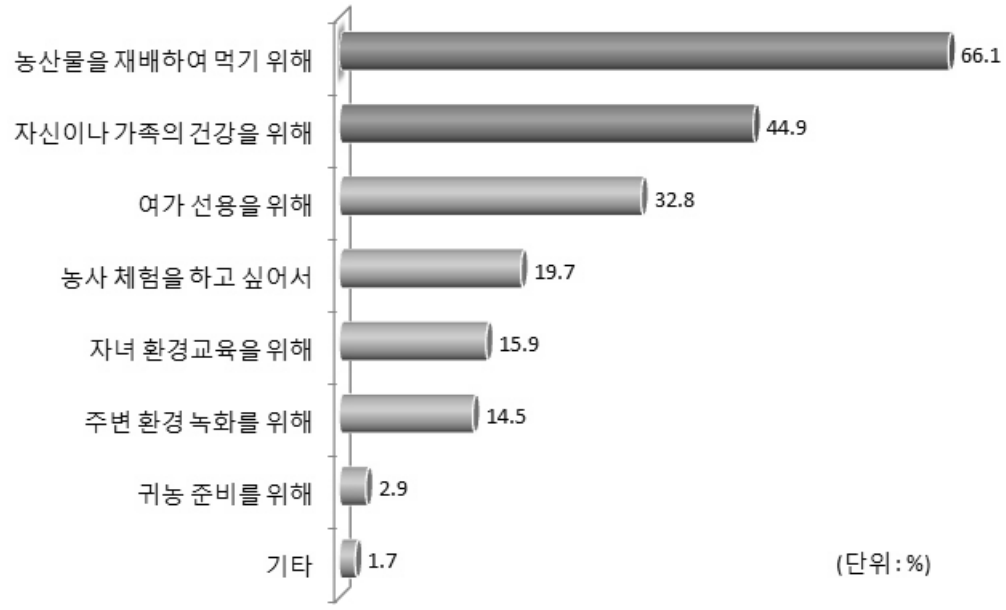
(Base : 응답자 전체 (N=1,000))

〈그림 3-19〉 농작물 재배 여부

2) 도시농업 참여 현황

(1) 도시농사 활동 동기

도시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사활동에 참여하게 된 동기로 '농작물을 재배하여 먹기 위해서'가 66.1%로 가장 많았으며, '건강을 위해'가 44.9%로 그다음으로 많아 대체로 믿을 수 있는 농작물 식용을 위해 농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귀농 준비나 환경 녹화, 자녀 교육 등의 목적으로 농사활동에 참여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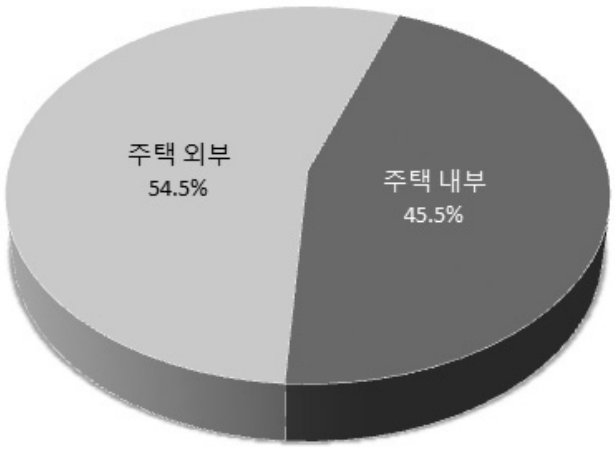


(Base : 농작물 재배자 (N=345))

〈그림 3-20〉 도심 농사활동 동기

(2) 농작물 재배 장소

농작물 재배 장소를 주택 외부라고 응답한 비율이 절반이 약간 넘는 54.5%로 나타났으며, 주택 내부에서 재배하는 경우도 45.5%로 적지 않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Base : 농작물 재배자 (N=3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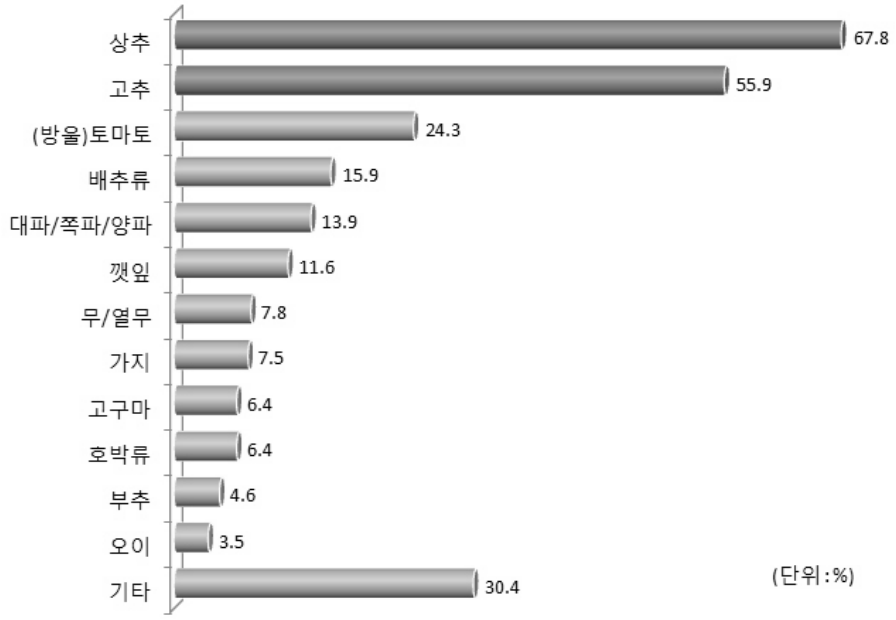
〈그림 3-21〉 농작물 재배 장소

(3) 현재 경작 농작물 종류

현재 경작을 하고 있는 농작물 종류에 대해서는 상추가 67.8%로 인기 있는 농작물로 나타났으며, 그다음은 고추 55.9%, (방울)토마토 24.3%, 배추류 15.9% 등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개별 재배 비율이 3% 이하인 기타 농작물의 비중이 30.4%인 것을 보면 매우 다양한 농작물 종류를 재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도심권 거주자는 상추 및 고추를 재배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50대 이상의 고 연령층은 고추를 재배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Base : 농작물 재배자 (N=3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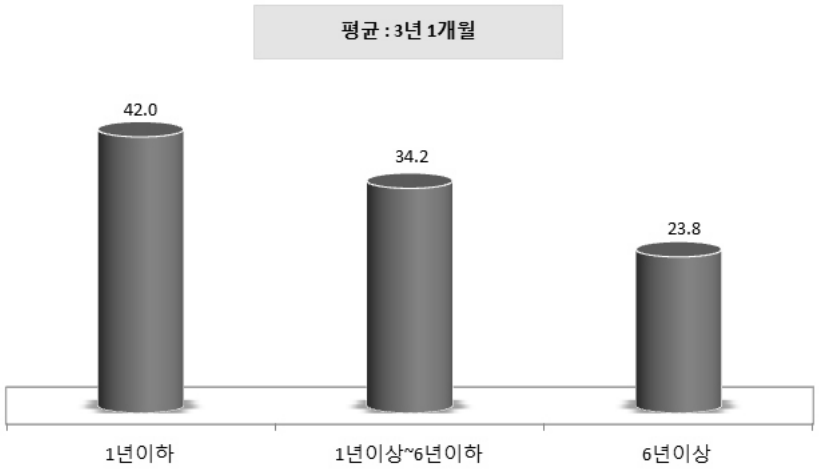
〈그림 3-22〉 현재 경작 농작물 종류 (중복)

(4) 농사활동 기간

도시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사활동을 한 기간은 1년 이하가 42.0%로 가장 많았으며, 6년 이상은 전체의 23.8%를 차지하여 농사활동 평균 기간은 3년이 약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이상 기후 변화에 따른 농작물 가격 폭등 및 친환경 농작물에 대한 선호 경향으로 인해 최근 들어 직접 농사활동에 참여하는 경우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농사활동 참여 기간에 대해 대졸 이상의 계층에서 최근 들어 농사 활동에 참여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은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연령 및 거주지역,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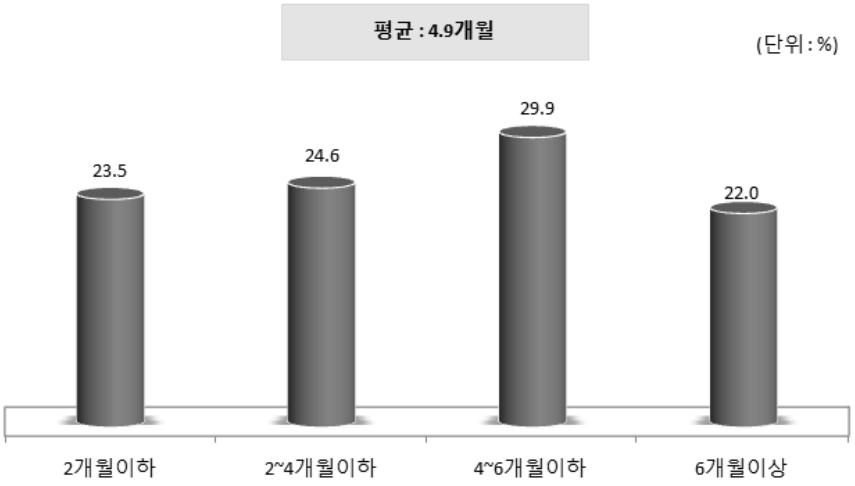


(Base : 농작물 재배자 (N=345))

〈그림 3-23〉 농사활동 기간

(5) 연중 평균 농사활동 기간

농사활동에 참여하는 기간은 1년 기준으로 평균 4.9개월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반적으로 한 해 동안 4~6개월 사이로 농사활동에 참여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Base : 농작물 재배자 (N=3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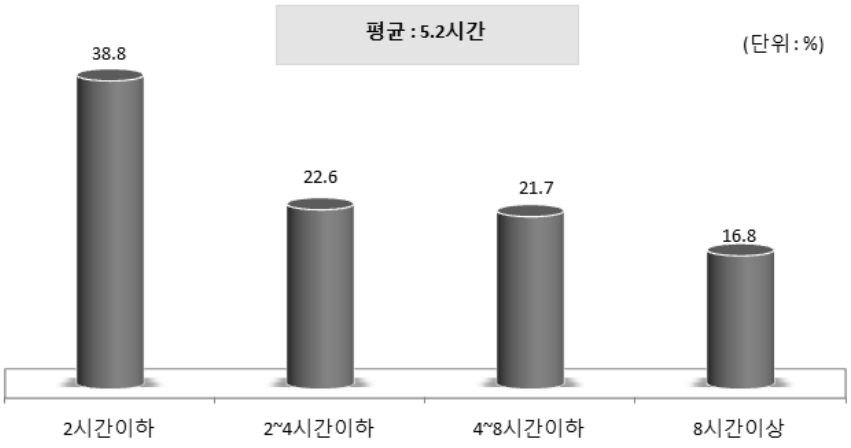
〈그림 3-24〉 연중 평균 농사활동 기간

(6) 월평균 농사활동 투자 시간

한 달 기준으로 농사 활동에 투자하는 시간은 평균 5.2시간 정도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볼 때, 2시간 이하가 38.8%로 가장 많아 자투리 시간을 이용하여 농사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

월평균 농사활동 투자 시간에 대해 남성은 여성에 비해 투자 시간이 5.8시간으로 많았으며, 서북권 거주자도 평균 6.7시간으로 다른 권역 거주자에 비해 농사활동 투자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남성은 직장 등으로 인해 농사활동에 자주 참여를 못하나 휴일을 이용해 농사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다소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Base : 농작물 재배자 (N=3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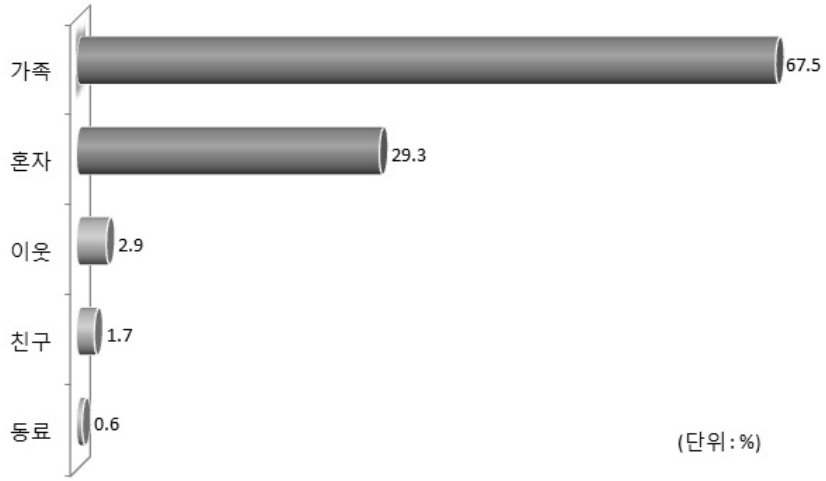
〈그림 3-25〉 월평균 농사활동 투자 시간

(7) 농사활동 참여 주체

농사활동을 하는 주체로는 가족이 67.5%로, 상당수가 가족 단위로 농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혼자 하는 경우도 29.3%로 그다음으로 많았다.

반면, 이웃이나 친구, 동료 등 공동체적 농사활동은 3% 미만으로 매우 미미한 수준을 보이고 있어 향후 공동체적 농사활동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농사활동의 공동체적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50대 이상의 연령 계층은 혼자 하는 경우가 44.9%로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40대 이하는 가족 단위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 대조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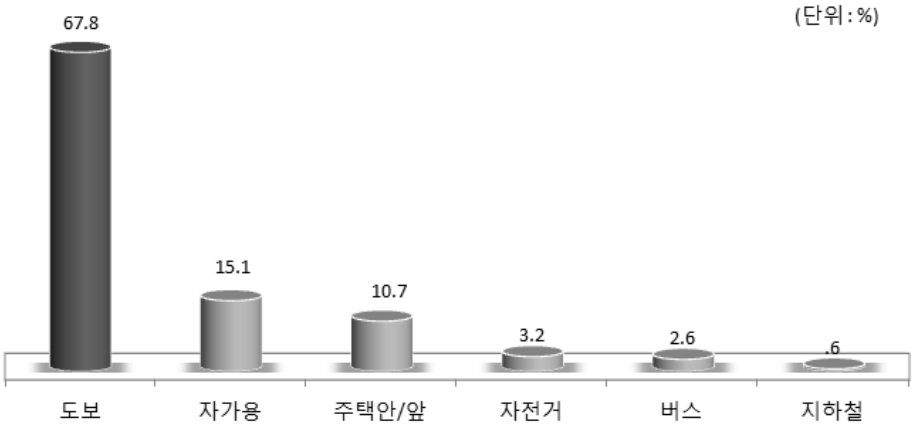
(Base : 농작물 재배자 (N=345))

〈그림 3-26〉 농사활동 참여 주체 (중복)

(8) 텃밭까지 이동 수단

텃밭까지의 이동 수단은 도보로 이동하는 경우가 67.8%로 가장 많았으며, 별도로 이동할 필요가 없는 주택에서 재배하는 경우도 10.7%로 나타나 대부분 도보로 이동이 가능한 인접 거리에서 농사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텃밭까지의 이동 수단에 대해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자가용을 이용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 거리가 좀 멀더라도 체계적으로 농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시설이나 장소로 이동하여 참여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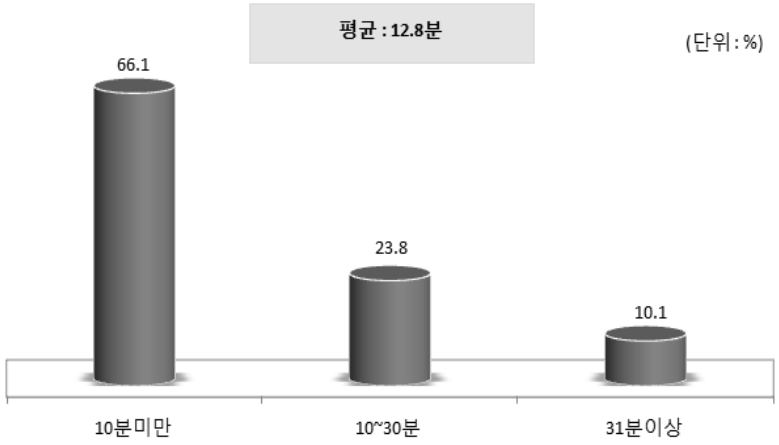
(Base : 농작물 재배자 (N=345))

〈그림 3-27〉 텃밭까지 이동 수단

(9) 텃밭까지 소요 시간

텃밭까지 소요 시간은 평균 12.8분으로 분석되었으며, 10분 미만이 전체의 66.1%를 차지한다.

대체로 도시 농사활동 참여에서 텃밭 접근성에 대한 부분은 10분 이내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0분 이상 이동 시에는 농사활동 참여에 부담이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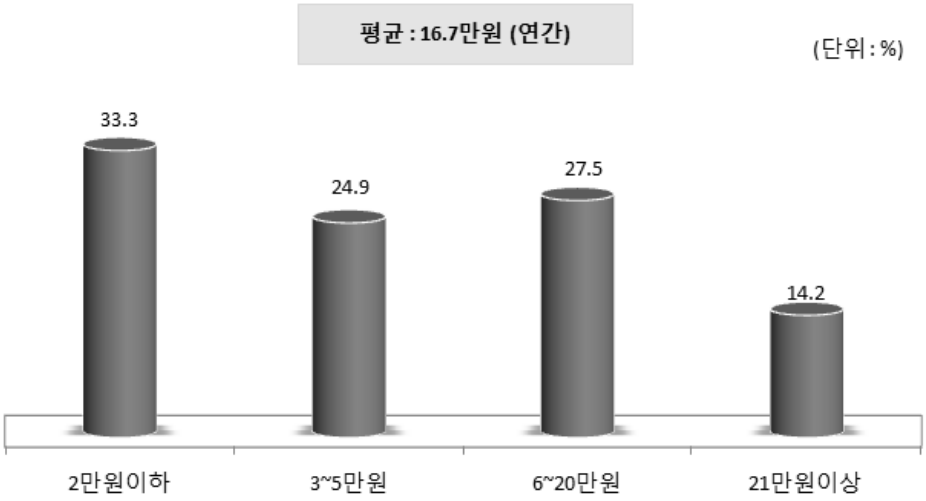
(Base : 농작물 재배자 (N=345))

〈그림 3-28〉 텃밭까지 소요 시간

(10) 텃밭 유지비용/임대료

농사활동을 위한 텃밭 유지비 및 임대료는 연간 평균 16.7만원으로 나타나, 매월 1만 4천원 꼴로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금액구간별로 보면, 연간 2만원 이하로 지출하는 경우가 33.3%로 가장 많았으며 이 경우는 텃밭 임대료보다 농작물 재배를 위한 도구나 씨앗 구입 등을 위한 비용인 것으로 판단되며, 21만원 이상은 14.2%로 텃밭 임대료가 포함된 금액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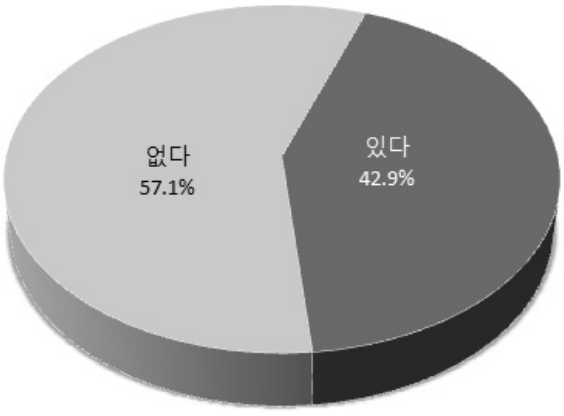
(Base : 농작물 재배자 (N=345))

〈그림 3-29〉 텃밭 유지비용/임대료

(11) 농작물 비재배자 관련

○ **과거 농작물 재배 경험**

현재 농작물을 재배하지 않고 있는 시민에 대해, 과거에 농작물 재배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2.9%로 파악됐으며, 이 경우는 과거에 농작물을 재배하다가 현재는 농작물 재배를 중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Base : 농작물 비재배자 (N=6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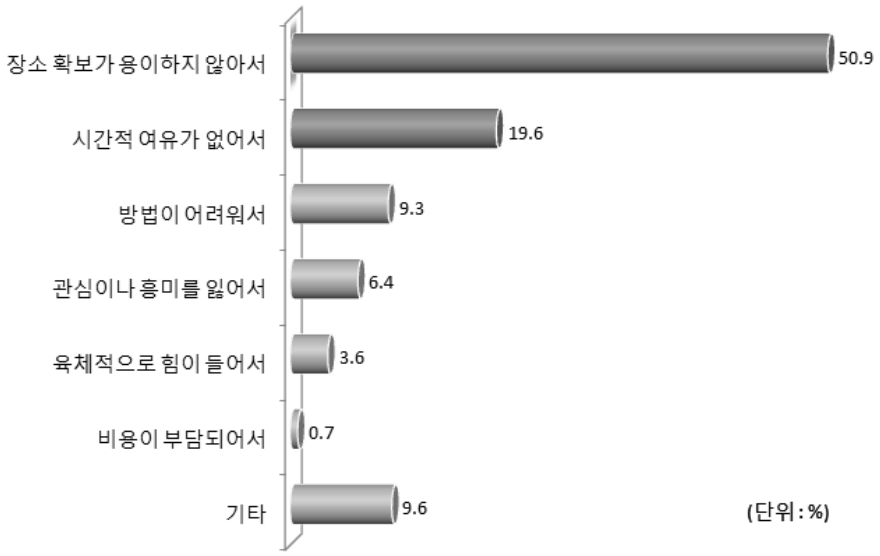
〈그림 3-30〉 과거 농작물 재배 경험 (농작물 비재배자)

○ **농작물 재배 중단 이유**

농작물 재배를 중단한 이유로는 '장소 확보가 용이하지 않아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50.9%로 가장 많았으며,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19.6%로 그다음으로 많았다.

반면, 경제적 부담이나 육체적인 어려움, 관심이나 흥미 등의 문제는 미미한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도시농업을 위한 제반 인프라 시설 부족 및 참여 시간 부족이라는 현실 문제로 인해 중단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농작물 재배 중단 이유에 대해 연령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30대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이유가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 20대는 방법이 어렵거나 관심/흥미가 없다는 이유가 상대적으로 많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40대 연령층은 전반적으로 장소 확보가 용이하지 않아서 중단한 경우가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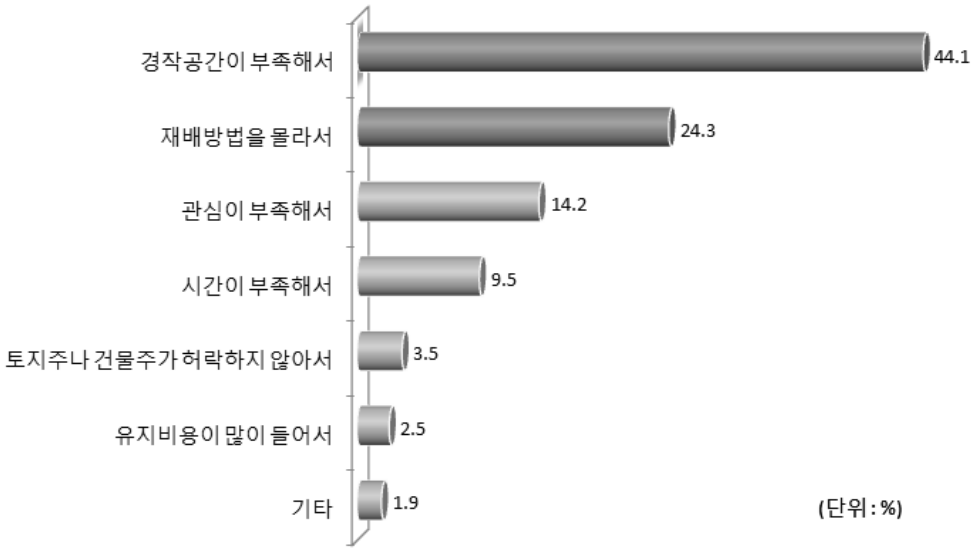
(Base : 과거 농작물 재배 경험자 (N=281))

〈그림 3-31〉 농작물 재배 중단 이유

3) 도시농업 관련 인식 및 태도

(1) 도시에서 농작물 재배가 어려운 이유

도시에서 농작물 재배가 어려운 이유로 '경작 공간이 부족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44.1%로 가장 많았으며, '재배 방법을 몰라서'라고 응답한 비율은 24.3%로 그다음으로 많았다. 경작 공간 부족 및 재배방법 문제가 전체의 68.4%에 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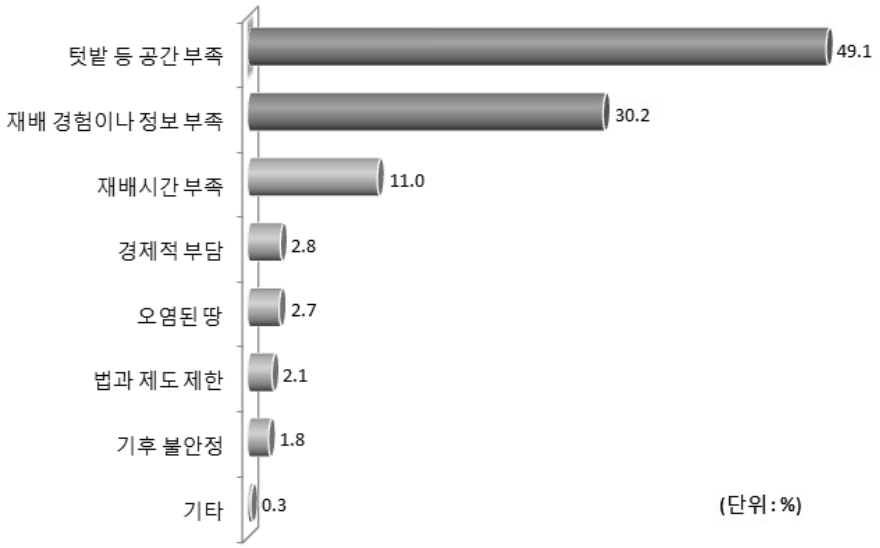
(Base : 응답자 전체 (N=1,000))

〈그림 3-32〉 도심 농작물 재배가 어려운 이유

(2) 도시농업 활성화 장애요소

도시농업 활성화에 대한 장애 요소로 '텃밭 등 공간 부족'이 49.1%로 가장 많았으며, '재배경험이나 정보 부족'은 30.2%로 그다음으로 많았다.

반면, 기후 불안정이나 법/제도 제한, 오염, 경제적 부담 등에 대한 장애 요인 인식은 매우 미미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Base : 응답자 전체 (N=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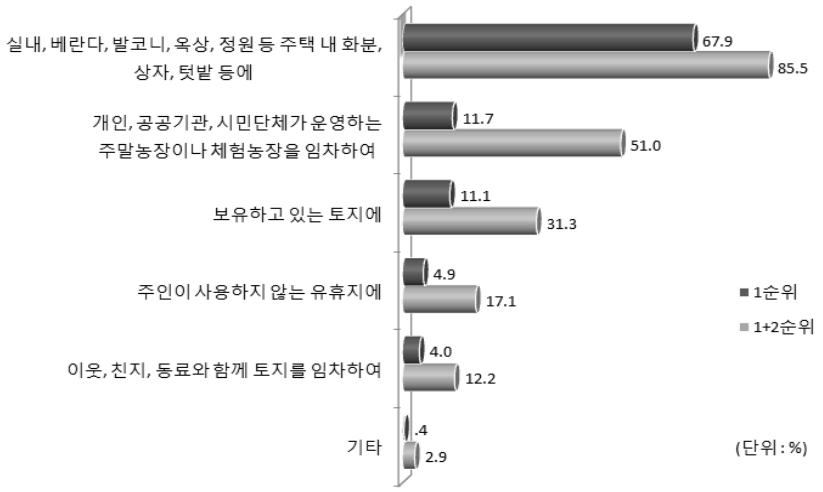
〈그림 3-33〉 도시농업 활성화 장애 요소

(3) 희망하는 농작물 재배 방식

희망하는 농작물 재배 방식으로는 '주택 내 화북이나 상자, 텃밭 등에 재배하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기관/단체가 운영하는 주말농장/체험 농장을 임차하여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경우는 그다음으로 많았다.

기관/단체가 운영하는 주말농장/체험 농장을 임차하는 경우는 1+2순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아져 비교적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기존의 일반적 방식 다음으로 고려할 수 있는 대안으로 판단된다.

여성 및 30대 연령층, 서북권 거주자, 농작물 재배자는 주택 내 화분이나 상자, 텃밭 등에 재배하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 40대 이상 연령층 및 농작물 비재배자는 주말농장이나 체험농장을 임차하는 방식을 희망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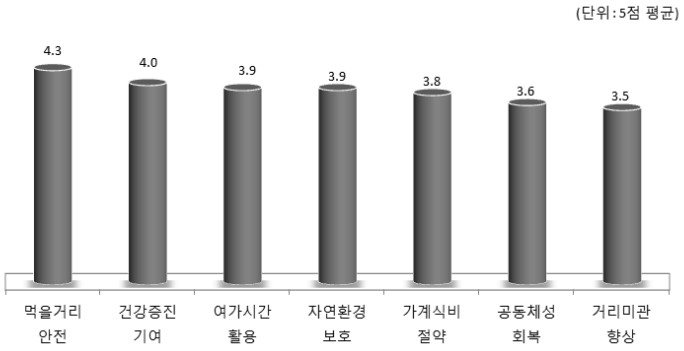
(Base : 응답자 전체 (N=1,000))

〈그림 3-34〉 희망하는 농작물 재배 방식

(4) 도시농업에 대한 긍정 요소

도시농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요소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가운데, '먹을거리 안전' 및 '건강증진 기여', '여가시간 활용' 측면을 긍정요소로 인식하는 경우가 다른 요소보다 상대적으로 많았다.

반면, '거리미관 향상' 측면이나 '공동체성 회복' 등 요소는 상대적으로 낮은 긍정적 인식 수준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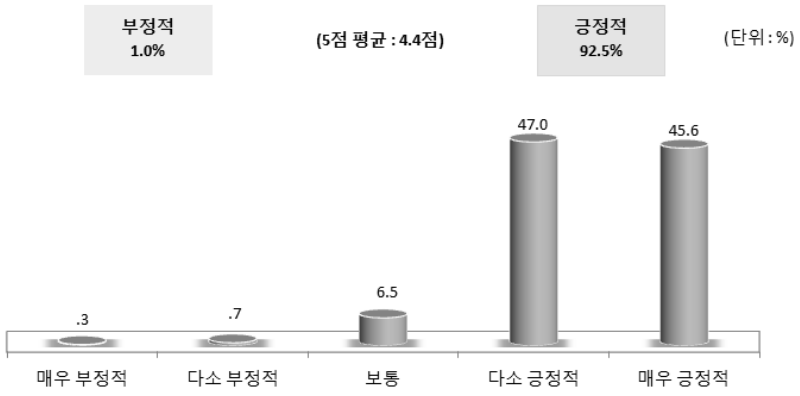
(Base : 응답자 전체 (N=1,000))

〈그림 3-35〉 도시농업에 대한 긍정 요소

4) 도시농업 정책 방향 관련

(1) 서울시의 도시농업 확대에 대한 태도

서울시에서 도시농업을 확대해 가는 것에 대해 전체의 92.5%가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우는 1.0%에 불과하여 서울시의 도시농업 확대에 대해 대부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Base : 응답자 전체 (N=1,000))

〈그림 3-36〉 서울시 도시농업 확대에 대한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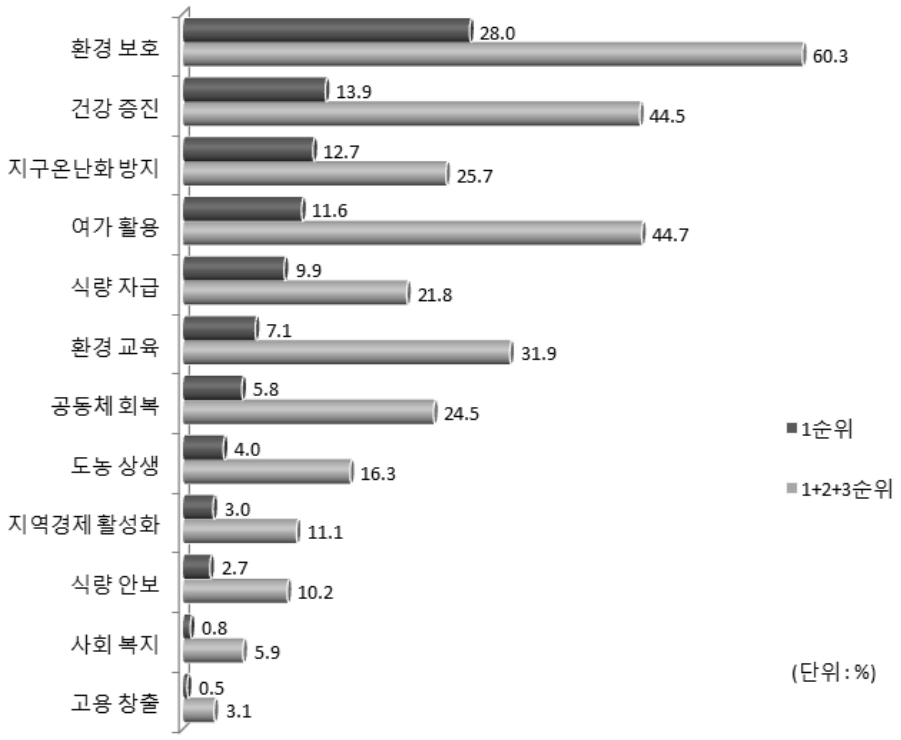
(2) 도시농업 활성화의 중요 목적

서울시가 도시농업을 활성화해야 하는 중요 목적으로 환경보호, 건강증진, 지구 온난화 방지, 여가 활동 등의 순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 고용 창출 및 사회복지, 식량 안보,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측면에 대해서는 중요 목적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여가 활용에 대한 인식이 큰 반면, 여성은 식량 자급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대해 남성에 비해 높은 인식을 하고 있다.

또한, 농작물 재배자는 건강증진 및 지구 온난화 방지, 식량 자급 측면에서 비재배자에 비해 높은 인식을 하고 있는 반면, 비재배자는 환경교육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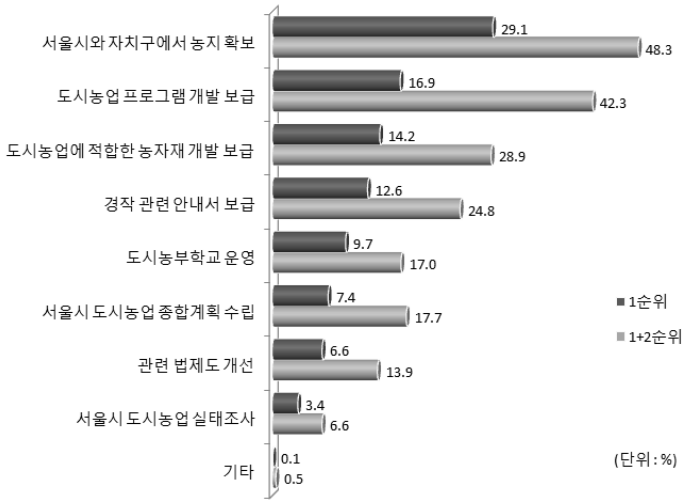
(Base : 응답자 전체 (N=1,000))

〈그림 3-37〉 도시농업 활성화의 중요 목적

(3)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필요 조치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필요 조치로 '서울시와 자치구의 농지 확보'가 29.1%로 가장 많았으며, '도시 농업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은 16.9%로 그다음으로 많았다.

전반적으로 농지 확보가 가장 시급한 과제이며, 농작물 재배 관련 경험이나 정보 부족이 도시농업 참여의 장애요소로 인식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도시농업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우선적인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Base : 응답자 전체 (N=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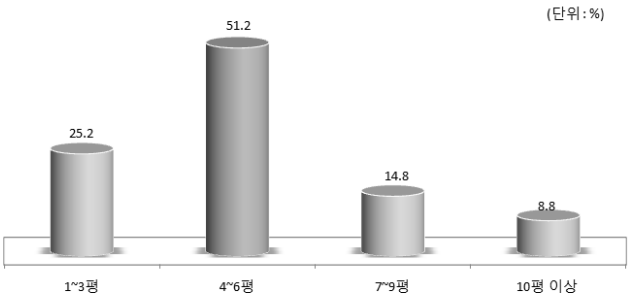
〈그림 3-38〉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필요 조치

(4) 가구당 적정 경작면적

가구당 적정 경작면적에 대해서는 4~6평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1.2%로 가장 많았으며, 1~3평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5.2%로 그다음으로 많았다.

반면, 10평 이상이 적정 규모로 인식하는 경우는 8.8%에 불과하여 도시농업 적정면적이 소규모이고 크게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남성은 여성에 비해 경작면적이 다소 큰 규모를 인식하고 있으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적정면적이 큰 특징을 보이고 있다.



(Base : 응답자 전체 (N=1,000))

〈그림 3-39〉 가구당 적정 경작면적

제3절 시민참여 프로그램 현황

전국적으로 도시농업과 관련한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예를 들면 대구시 코레일 부지의 다랭이논 조성사업,[7] 텃밭, 요리, 사회봉사활동이 어우러진 제주농업기술센터의 키친 가드너 (Kitchen Gardener) 교육과정[8], 폐목재를 텃밭상자로 재생하는 마을 기업인 대구시의 '에코팜잉'[9], 성남시 농업기술센터의 3대가 함께 하는 텃밭 체험 프로그램[10], 안산시민텃밭모임의 예술텃밭투어[11], 완주군의 예술텃밭 프로그램인 '업싸이클(Up-cycle) 삼례'[12] 등이 있다.

서울에서도 여러 공공기관과 시민사회단체가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 일부 모범적인 사례를 소개한다.

1. 서울시 농업기술센터의 시민참여 프로그램

서울시농업기술센터는 도시농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 300명에게 원예기술과 가정채소 재배법 등을 알려주는 「녹색생활화 가정원예강좌」를 운영하고 있다.[13] 「녹색생활화 가정원예강좌」는 '원예입문강좌'와 '공기정화식물강좌'의 2개 과정으로 나뉘며, 참가비는 무료다. '원예입문강좌'는 평소 식물에 관심이 많지만 가꾸는 데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기초적인 원예기술, 가정채소 가꾸기, 관엽・관상화목류 재배, 식물 번식하기, 병해충 방제법을 배울 수 있다. 2일 과정으로 직장인을 배려한 평일 저녁반, 주말반도 개설되고, 교육인원은 반별로 50명이며 교육시간은 14~17시, 장소는 서울시농업기술센터이다. 실내 식물의 공기정화 원리와 공간별 배치법을 알려주는 '공기정화식물강좌'는 희망

---

7) http://www.la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13696

8) http://www.jeju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868

9) http://cafe.naver.com/ecofarming

10) http://seongnam.go.kr/board/board_main.asp?board_idx=5&board_cd=REPORT&idx=3616&mode=view

11) http://cafe.daum.net/ansanfarm

12) http://news.wanju.go.kr/board/view.sko

13) http://agro.seoul.go.kr/education/education01.html

시민 200명을 대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개최한다. 참여시민은 식물의 실내 공기정화 원리, 식물의 실내 공기정화 효과, 실내 공간별 환경 특성에 따른 식물의 배치법 등을 배운다. '공기정화식물강좌'는 1일 교육과정으로 100명씩 참여하며, 이 과정도 평일반과 주말반으로 운영된다. 교육시간은 10~12시이다.

또한 서울시농업기술센터는 초등학생 가족을 대상으로 서울에서 농업과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어린이 농업체험 프로그램을 2012년 6월 중 매주 토요일에 5회 운영한다. 「어린이 농업체험」은 서울시의 '어린이가 행복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수업 없는 토요일에 초등학생 어린이가 아빠, 엄마와 함께 농업과 자연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다. 참여가족들은 센터 시민자연학습장에서 농업의 개요와 다원적 기능을 배우기, 실체현미경으로 식물구조 관찰 및 허브 심기, 생태연못 관찰, 200여종 농작물 관찰, 떡메치기로 인절미 만들기, 토끼 등 소동물 관찰 등을 체험한다. 참가비는 무료지만 점심도시락은 참여가족이 직접 준비해야 한다. 참여대상은 서울시 초등학생 가족으로 1일 50명씩 총 250명이 참여한다.

2. 여성환경연대의 문래도시텃밭 옥상농부학교[14)]

여성환경연대는 2011년에 이어 금년에도 문래 도시텃밭 옥상농부학교 프로그램을 개설한다. 3월 14일부터 4월 21일까지 교육일정 동안 도시농업, 로컬푸드, 공동체, 텃밭디자인 등을 주제로 18여명의 수강생이 전문강사의 지도 아래 공부하게 된다.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3가 문래예술공장 2층 강당에서 열린 옥상농부학교 입학식에는 50대 주부부터 20대 직장인까지 18명의 다양한 사람이 문래도시텃밭 공동체가 주관하는 옥상 텃밭 가꾸기를 배우기 위해 모였다. 문래도시텃밭 공동체는 문래동에 입주한 예술가들과 지역주민들이 '철공소로 가득 찬' 이 지역을 도시의 농촌으로 탈바꿈시켜보는 취지로 결성한 지역단체다. 철공소 수 십여 곳이 밀집해 있는 곳이니 화가, 음악가, 작가 등 예술인들로서는 동네를 인간미 넘치는 곳으로 변화시켜 보려는 욕구를 느낄만하다. 여성환경연대는 2011년 5월 문래동 3가 영동스테인리스 건물 옥상(120평)을 어렵사리 얻었다. 나

14) 프로그램 홈페이지 http://cafe.naver.com/mullaefarm

무와 흙을 들여와 텃밭을 일구기 시작했다. 200여 회원들과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했다. 텃밭에서 키운 배추・무・당근・대파 등으로 김치를 담가 나누기도 하고 파전을 만들어 잔치도 했다. 일부는 유기농 레스토랑에 팔았고 식당의 음식쓰레기는 다시 텃밭의 거름으로 썼다. 이 덕분에 문래도시텃밭 공동체는 2011년 11월 열린 '제3회 시민참여 생활녹화 경진대회'에서 서울시로부터 대상을 받았다.

3. 노들섬 도시농업공원 농사체험 프로그램

노들섬 도시농업공원은 서울시 제1호 도시농업공원으로서 서울시의 도시농업 육성 의지와 방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랜드마크다. 노들텃밭은 도시농업의 다양한 가치를 구현하여 도시농업에 대한 시민 인식을 확산시키며 공동체 의식을 제고하고 시민참여를 통한 공원 운영의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다.

현재 시민텃밭에는 600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공동체텃밭에는 7개 단체 100명이 참여하고 있다. 공동체 텃밭에 참여하는 단체에는 텃밭보급소, 서울한살림, 서울도시농업네트워크, 영등포도시농업네트워크, 농협서울본부, 용산도시농업공원추진위원회, 농사짓는변호사모임이 있다.

노들텃밭의 운영원칙은 시민단체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자치공간화와 자원순환, 에너지 자립, 전시 교육 체험의 도시농업 거점공간화, 4무 농사원칙 준수, 3대 농사원칙(자가 거름 만들기, 토종과 전통농법, 공동체 농사)를 지향하고 있는 점이 색다르다.

서울시는 한강 노들섬 서측부지 22,554㎡를 임시 활용해 운영하고 있는 '노들섬 도시농업공원(노들텃밭)'에서 6월16일(토)부터 '노들섬투어', '토요농부교실' 등 농사 체험 문화 시민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15] 개별 프로그램은 (재)서울그린트러스트, 텃밭보급소 등 도시농업단체들과 함께 6월부터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주요 프로그램에는 토요농부교실, 어린이농부교실 등 농사프로그램과 노들섬투어, 울력농부체험 등 체험프로그램과 토종 콘서트 등 문화프로그램이 있으며, 흙살림과 서울그린트러스트가 주체가 되어 지원센터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

---

15) 프로그램 안내 http://culturenomicsblog.seoul.go.kr/2587

4. 강동구청의 시민참여 프로그램

강동구는 구내에 발달된 도시텃밭을 민간주도로 발전시키기 위해 2011년부터 텃밭자치회 자원활동가를 선발하였다.[16] 자원활동가는 도시텃밭의 건전한 농촌 문화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도시텃밭·상자텃밭 멘토, 강사, 텃밭 자치위원의 역할을 맡게 된다. 자원활동기는 텃밭당 3~5명씩 배정되도록 총 42명을 선발한다. 자원활동가에게는 텃밭별 활동비(월 25,000원), 강사 파견 알선, 강사료, 재료비, 텃밭 1구좌 2년간 무료 제공 등의 지원이 이루어진다.

강동구는 훼손되고 버려진 강일동 33-3 일대 유휴지를 활용하여 사회적 배려대상인 장애인, 다문화, 다자녀가구를 위한 '친환경 테마 도시텃밭' 을 조성했다.[17] '친환경 테마 도시텃밭'은 강일동 도시텃밭 총 규모 5,284㎡ 중 지난 4월 친환경 도시텃밭 120구좌를 분양하고 남은 잔여 구간 3,330㎡로 장애인 가족과 다둥이 가족(4자녀 이상)을 위한 '사회적 배려 텃밭', 주민들이 함께 농사짓고 수확물을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나눔 텃밭', 체험텃밭 등 테마별로 운영된다. 또한 상추, 열무, 시금치, 얼갈이 등 계절별 작물이 지렁이 배설물과 음식물쓰레기로 만든 퇴비를 활용해 친환경으로 재배된다.

'장애인 텃밭'과 '다둥이 텃밭'은 1구좌당 11㎡ 규모로 무료 분양되며 씨앗과 모종이 지원된다. 고랑 간격을 휠체어가 지나갈 수 있도록 넓게 조성하고 개인별 퐛말에 점자를 넣어 몸이 불편한 참여자들을 배려했다. '나눔 텃밭'은 강동구 직원 도시농업 학습동아리 '그리니티(Greenity)' 회원들과 관내 자원봉사자들이 순수 봉사차원에서 참여해 텃밭을 가꾸게 된다. 이들이 농사짓고 수확한 작물은 저소득층에게 기부된다. 이밖에 '체험텃밭'에서는 수확체험을 할 수 있다. 사회적 배려대상인 장애인 35가정, 다문화 8가정, 다자녀 19가정이 함께 참여하게 되며, 세대 및 이웃 간에 텃밭을 통한 소통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화목한 가정을 세우고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여 따뜻한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보고자 준비한 것이다.

---

16) 자치구 공고 http://www.gangdong.go.kr/web/board/ko/5/uiView.do?seq=121250&bbsId=1140

17) 강동구 보도자료
http://news.gangdong.go.kr:9090/enewspaper/articleview.php?master=&aid=2367&ssid=6&mvid=504

이 밖에도 강동구에서는 장기 투병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원예치료텃밭』, 10대 청소년의 정서와 꿈을 심어 줄『청소년 행복텃밭』, 탈북자들이 참여하는『새터민 텃밭』, 도시농업 아카데미 참여자를 위한『실습텃밭』, 자원봉사자들이 농산물을 생산하여 소외계층에 기증할『나눔텃밭』, 도시 촌 만들기 일환으로 운영되는『두레텃밭』, 노인일자리 시장형 사업에 제공되고 있는『노인일자리 텃밭』, 도시농업 자원활동가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되는『텃밭동네』, 도시텃밭 잉여 농산물 기증을 통해 취약계층에 친환경농산물을 제공하는『착한 배달부』등 다양한 테마텃밭과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5. 텃밭보급소의 텃밭 프로그램

텃밭보급소는 각종 교육사업을 벌이고 있다. 우선 이론 중심의 도시농부학교가 있다. 도시농부학교는 강당에서 이론 중심의 농사교육을 일주일에 두 번씩 진행하고 있다.

특히 4대 원칙(무제초제, 무농약, 무화학비료, 무비닐멀칭), 3대 지향(자가거름 만들기, 토종종자와 전통농업, 이웃과 함께 하는 공동체 농사)의 철학 학습을 통해 유기순환 생태농업 의식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텃밭보급소의 도시농부학교는 지금까지 13기에 걸쳐 250여명이 수료하였다.

강동 농장과 노들텃밭에서는 현장 실습 농부학교가 진행되고 있다. 시민농장에서 회원들 상대로 실습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천적과 벌레 탐사, 퇴비 실습, 생물농약 만들기 실습, 풀 공부, 작물 중간 관리법 등을 주제로 1달에 한 번씩 밭에서 진행한다.

텃밭보급원(도시농업 지도사) 양성과정도 운영하고 있다. 연 1회 또는 2회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7기가 수료했다. 또한 텃밭보급소는 시민농장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교육농장으로는 안산바람들이, 군포개울건너, 감나무골, 선유농장, 대학청춘텃밭, 강동농장, 노들텃밭이 있고, 협력농장으로는 벽제농장, 사릉농장, 초중고 학교텃밭, 회원텃밭이 있다.

시민농장 멘토단도 운영되고 있다. 시민농장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주말을 이용해 멘토가 3시간 상주하며 회원들을 직접 지도한다. 특히 강동 농장에서는 토종 종자 증식 농장이 운영되고 있다.

텃밭보급소와 별도로 설립된 농업회사 법인인 주식회사 텃밭보급소도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다. 내구성이 뛰어난 고무텃밭상자를 개발해서 보급하는 사업도 하고 있고, 저비용 옥상텃밭사업과 음식물 퇴비통을 이용한 학교급식 잔반퇴비화 사업도 펼치고 있다. 특히 상자텃밭 119 왕진 서비스 사업은 인상적이다. 상자텃밭은 농사가 꽤 힘든 방법이다. 병해충도 의외로 많고 물도 잘 마르고 거름 양도 잘 맞추질 못해 한 번 실패하면 농사를 포기하게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반드시 사후관리가 있어야 한다. 도시농부학교 출신자들로 119왕진 팀을 교육하여 조직하고 이들이 왕진가방(생물농약, 웃거름)을 들고 상자텃밭 농부들을 방문해 진료해준다. 왕진으로 직접 방문해 지도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 '텃밭 신문'과 '텃밭 매뉴얼'도 제작하고 있다.

6. 광화문광장 상자벼 재배 전시[18)]

서울시는 6월 9일부터 10월 수확기까지 벼 모종을 심은 상자 1,400여개를 세종문화회관 앞 광화문광장에 전시했다. 중앙광장 840㎡에 농협에서 협찬한 지방특산 110여 벼품종의 모종을 1,218개의 상자에 나누어 담아 배치했다. 조형물 디자인과 공간배치계획은 임옥상 미술연구소가 주관하고 쌈지농부가 협력했다.

광화문광장 맞은 편, 세종문화회관 야외 중앙계단에서 6월 4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이제는 농사다' 전시도 함께 열리는데 실내의 오브제를 실외로 옮긴 것뿐인 야외전시가 아니라 공동체적이고 생태적인 가치에 주목해 시민참여까지 고려한 전시이다. '이젠 농사다' 전시의 테마는 농사와 예술의 만남이다. 특별히 제작한 유기농 배양토 위에 벼와 감자를 심은 화분들이 무심히 걷는 시민들을 맞는다. 세종문화회관 계단 중앙에는 전쟁을 상징하는 폭탄 조형물이 자리했고, 계단과 인도의 경계선에는 종교를 상징하는 미륵상 얼굴 형상의 대형 철판 작품 '흙의 얼굴'이 놓여 있다. 두 조형물에도 역시 넝쿨작물을 심었다. 이들은 전시 기간 내내 햇빛과 바람, 비를 맞으며 자라날 터다. 특히 '흙의 얼굴' 설치물은 철판에 뚫린 구멍 사이로 보이는 강낭콩 잎이 나날이 선명해져 또렷한 사람의 형상을 보여준다.

광화문광장 벼농사는 2012년 2월 시민단체들이 광화문 잔디정원을 논으로 바꾸고 광

18) 관련 언론보도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5250300055&code=950201

화문광장에서 매주 토요일 ‘농부시장’을 여는 정책안을 서울시에 제안하면서 논의가 시작됐다. 광화문광장 벼농사는 시 예산 투입과 광장의 시설 변경 등이 필요해 서울시가 절충안으로 상자벼 설치를 내놓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상자벼 설치는 별도의 공사 없이도 가능해 광장을 훼손하지 않아도 되고 통행에도 불편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제4절 서울시 도시농업의 쟁점

서울시 및 자치구의 도시농업 현황 분석과 현장조사,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서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주요 시민참여 프로그램 분석, 이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열렸던 2차례의 전문가 자문회의, 2차례의 연구원 내부 간담회, 1차례의 시민사회단체 간담회에서 나온 논의 내용을 종합하면 서울시 도시농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5가지 주요한 쟁점이 도출된다.

1. 먹을거리 중심의 도시농업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서울시민은 먹을거리 안전을 도시농업의 가장 큰 긍정요소로 보고 있고, 실제 도시텃밭 현장조사에서도 거의 모든 곳에서 먹을거리를 재배하고 있었다. 하지만 광의의 도시농업에는 곡물이나 채소 재배뿐 아니라 화훼나 관상용 식물 재배도 포함된다.

먹을거리 중심의 도시농업 경작지 확대와 도시 내 경작물 생산 증가가 도시농업이 추구하는 가치 중 하나인 도농상생의 원칙에 적합한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 연구의 자문위원 중에는 도시농업의 목표가 식량자급이 되어서는 안 되며, 공기오염 우려지역에서의 먹을거리 생산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위원도 있었다. 먹을거리 생산용 50%, 볼거리, 여가, 교육용 50% 정도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도시농업을 이야기할 때 '농작물 재배'보다는 '농사활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힐링이나 문화예술, 관광 등의 개념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교통량이 많은 도로변이나 기타 오염이 우려되는 곳에서는 곡물이나 채소 이외에 꽃이나 다른 관상용 식물을 심는다든지 하는, 좀 더 다양한 접근방법이 서울시 도시농업의 다양화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 도시농업의 획일화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복 응답을 포함하여 응답자의 67.8%가 상추를 재배하고 있고 55.9%가 고추를 재배하고 있다. 토마토, 배추, 파까지 포함하면 나머지 채소류는 극히 소수를 차지할 따름이다. 서울시민이 재배하는 농작물이 매우 단순함을 알 수 있다. 현장조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임대형 텃밭도 크기나 형태가 자치구마다 비슷했으며, 상자텃밭도 그 크기나 형태가 다양하지 못했다. 서울에서는 외국 도시에서 쉽게 눈에 띄는 자루텃밭이나 이동형 텃밭 등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서울시 도시농업은 형태나 방식 등에서 획일화되어 있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서울시 도시농업은 양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형태가 상자텃밭이나 행정주도형 임대텃밭이 대부분으로 획일적인 문제가 있다. 도시농업이 제도화되고 표준화되면서 자치구와 마을공동체의 특색이 상실될 우려가 있다. 법과 조례가 만들어지고 도시농업 지원센터가 설치되고 도시농부학교가 운영되며 도시농업공원이 만들어지면서, 도시농업의 동형화(isomorphism) 현상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

여러 가지 재배방식과 함께 재배 가능한 장소를 안내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자투리 공간이 많은 아파트 내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도시농업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한편, 도시농업의 형태와 방식, 절차 등을 더욱 다양화해서 서울시 도시농업의 동형화 현상을 극복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3. 도시농업의 목적

도시농업의 목적은 일반적으로 공동체 형성, 생활환경 보전, 자연환경 보호, 기후 보호, 건강 증진, 도농상생, 지역경제 활성화, 자급자족, 식량안전, 사회복지, 환경교육, 여가 활동, 방재와 방범 등으로 다양하다. 하지만 현재로는 도시농업의 다양한 목적과 기능 중 서울시가 가장 중점을 두는 목적이 무엇인지 불명확하다. 다양한 목적을 추구하는 것도 좋으나 정책의 일관성이라는 관점에서 많은 이해관계자가 공감하는 우선적인 목적 설정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특히 8월 28일에 연구원 중회의실에서 있었던 도시농업 관련 주요 시민사회단체 간담회에서 서울시 도시농업의 목적이 무엇이며,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가 중요한 논점이 된

바 있다. 시민단체 간담회에서, 도시농업을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 문제가 서울시 도시농업 활성화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무턱대고 텃밭을 조성하기보다는 사람의 의식 변화를 이끌어내는 일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귀농과 힐링에 기초한 도시농업 프로그램은 드물기 때문에 맞춤형 텃밭 조성을 통해 다양한 시민참여를 이끌어내면서 도시농업의 본질적 기능을 살리는 일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민은 서울시가 도시농업을 활성화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환경보호를 들고 있고, 그다음으로 건강 증진, 지구온난화 방지, 여가 활동, 식량자급 순으로 들고 있다. 의외로 서울시 당국이 중시하고 있는 공동체 회복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 창출은 조금 낮은 순위를 보이고 있다. 서울시 도시농업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들의 좀 더 많은 고민과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4. 환경안전성 점검

도로인접지역에 많은 도시텃밭이 입지해 있으나 안전성 점검이 이루어진 적이 거의 없다. 대기오염, 토양오염, 수질오염 등이 도시농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거의 논의되지 않고 있다. 2012년 6월 7일 농림수산식품부가 '도시농업관련 농자재 등의 안전한 관리 및 처리에 관한 기준'을 제정하여 다음과 같이 텃밭조성 금지지역을 규정하고 있다.

첫째, 텃밭의 안전성 점검 결과 중금속이 오염된 지역

둘째, 분진이나 매연이 발생하는 도로인접 지역

셋째, 오수와 폐수 및 악취가 유입되는 지역

넷째, 다른 법령에서 농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지역

한편 대기오염이 도시농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최근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급성 영향으로 엽병변이 일어날 수 있고, 만성 영향으로 생장 저하와 수확감소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이차적 영향으로 가뭄, 서리, 병충해에 대한 민감도 변화를 들 수 있으며, 토양 영향으로는 토양 산성화, 질소 침전에 의한 부영영화, 토양 미생물 감소 등의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독일 등 선진외국은 도로변 가까이에서는 경작을 금지하고 있다고 한다. 서울시도 교통량을 중심으로 도시농업의 유형을 체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보아야 한다. 2~3년을 주기로 해서 토양 오염도와 다른 환경안전성 검사를 실시해 해당 경작지가 농산물 생산에 적합한지 판단할 필요가 있으며, 그에 따라 경작물의 종류를 다양화하는 한편, 경작지의 배치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5. 도시농업공원 조성

서울시는 연차별로 추진하여 2020년까지 자치구별로 1개소씩 25개의 도시농업공원을 조성할 계획인 것으로 보인다. 현행 도시공원녹지법에서 공원 내 경작을 허용하고 있지 않아 도시농업공원 조성에 상당히 제약이 있는 것도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차제에 공원, 녹지, 놀이터, 텃밭 등 도시 오픈스페이스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도시농업공원도 결국은 공원이고 공원은 텃밭에 비해 조성비나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새크라멘토 시 사례연구 결과, 도시공원은 도시텃밭에 비해 조성비용이 20배, 유지관리비용이 27배 더 든다고 한다. 도시텃밭에서 일어나는 활동의 53%는 경작, 물주기 등 활동적인 데 비해 도시공원에서 일어나는 활동의 74%는 앉아 쉬기, 음식 먹기 등 비활동적이다. 그리고 공무원은 텃밭보다 공원에, 시민은 공원보다 텃밭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다.[19] 도시텃밭은 녹지축, 생태축의 일부로서 생활권 공원녹지 확충을 위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참고로 경관형용사를 이용한 공원과 텃밭의 개념적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19) Mark Francis, 1987, “Meanings attached to a City Park and a Community Garden in Sacramento”, Landscape Research, 1987, Vol. 12, No. 1, pp.8-12.

〈표 3-10〉 경관형용사를 이용한 공원과 텃밭의 개념적 차이

공원	텃밭
수동적	능동적
조용한 / 긴장이 풀리는	활동적인 / 일하는
혼자 있는	함께 하는
깨끗한 / 깔끔한	너저분하나 돌보고 있는
바라보는	참여하는
만들어진 / 설계된	자연적인
공공기관이 통제하고 관리하는	사용자가 통제하고 관리하는
영구적인	임시적인
나른한	새로워지는
녹색이 사람을 끌어당기는	사람이 사람을 끌어당기는
좋아하는	사랑하는

출처: Mark Francis, 1987, "Some Different Meanings Attached to a City Park and Community Gardens", Landscape Journal, vol 6, no 2, pp.101-112.

동네 산을 텃밭으로 조성할 경우 임야가 훼손되거나 수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 특히 비오톱 1등급 내지 2등급 지역을 텃밭이나 도시농업공원으로 조성 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도시농업공원은 서울시 5대 권역별 1개 정도를 시범적으로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할 것이다. 도시농업공원 조성 목적도 교육과 체험, 홍보가 중심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앞으로 공원녹지계획, 토지이용계획 수립 시 도시텃밭을 합법적 공원녹지로 인정하고 필요한 법적, 제도적 조치 마련이 필요하다.

Ⅳ 외국의 도시농업 사례

제1절 외국 도시농업의 일반 현황

1. 쿠바의 도시농업

쿠바는 인구가 1,142만 명이며 면적이 110,860㎢이다. 쿠바의 수도 아바나는 인구가 220만 명이며 면적이 727㎢이다. 쿠바의 도시농업은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와 함께 시작되었다.

1959년 쿠바 공산혁명 이후 쿠바 정부는 충분한 음식 섭취를 기본적 인권으로 받아들였지만 198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도 식량 자급률이 50%를 넘지 못했다.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에 따른 당시 소련의 원조 삭감, 1993년 허리케인으로 인한 사탕수수 농작물 피해, 1990년대 초 미국의 경제 봉쇄 등으로 식량위기에 처한 쿠바는 1990년대부터 도시에서의 식량 생산을 장려하기 시작했다. 시민들은 공한지를 이용해 작물을 경작하거나 가축을 기르고, 테라스나 마당에서뿐 아니라 심지어 통을 이용해 농작물을 길렀다. 1989년 이전만 하더라도 쿠바의 수도 아바나에서는 도시농업이란 존재하지 않았다. 국가에서 식량을 배급하므로 먹을 것을 시민 스스로 재배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1990년대 초의 식량위기는 도시 내 모든 토지를 경작하게 했는데, 쿠바 농업부의 대지내 공지가 텃밭으로 경작되기까지 했다.

쿠바에는 Patio(자가 소비형 가정텃밭), Parcela(공한지 이용 텃밭), Huerta Intensiva(베드를 이용하지 않는 경작), Organoponico(재배 베드 이용)의 4가지 형태의 도시농업이 있다. 2006년 현재 35만 명 이상의 쿠바 국민, 4만 4,000명의 아바나 시민이 직업으로서

도시농업 부문에 종사하고 있다. 이 수치에는 가정에서 자가 소비용으로 경작하는 텃밭경작 시민 약 150만 명은 제외되어 있다. 35만 명은 쿠바 노동인구 500만 명의 7%에 해당한다. 쿠바 노동자 14명 중 1명, 농업 노동자 3명 중 1명이 도시농업 부문에 종사하고 있는 셈이다.

쿠바의 도시농업이 지나치게 과대평가되어 있다는 주장도 있다.[20] 우리나라에서는 쿠바의 도시농업에 대해 "유기농업을 통한 식량자급 달성", "전 국토의 유기농업화", "세계적인 유기농업의 메카" 등의 찬사가 이어졌다. 하지만 박진도(2012)는 쿠바의 유기농업이 쿠바 전체 농업의 일부에 지나지 않고 쿠바의 식량자급률이 20~60%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적으로 보면서도 유기농업과 지역농업의 조직화, 지역자원을 활용한 생태순환형 유기농업, 토종종자의 보존과 개발 등은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2. 미국의 도시농업

미국에서 도시텃밭을 관리 운영하는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첫째는 제3자가 운영하는 기존 도시텃밭에 행정 및 재정 지원을 해주는 방법이다.

둘째는 다른 공공기관이나 시민사회단체와 협력하여 도시텃밭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방법이다.

셋째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도시텃밭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방법이다.

첫째 유형의 사례도시로 뉴욕, 둘째 유형의 사례도시로 새크라멘토, 셋째 유형의 사례도시로 시카고를 각각 살펴본다.[21]

1) 뉴욕

뉴욕의 도시텃밭사업 발달과정을 살펴보면 어떻게 시민사회단체의 사회적 활동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도시텃밭의 조성으로 이어지는지를 알게 된다. 뉴욕의 그린 섬(Green Thumb) 프로그램은 시민사회단체가 운영하는 도시텃밭을 시정부가 지원하는 유형의 전형적인 예이다.

---

20) 박진도, 2012, "쿠바의 도시농업", 흙과 도시 포럼(준), 서울연구원 공동 주최, 쿠바의 도시농업과 서울의 미래 세미나, 2012. 10. 9.

21) Bethany Rubin Henderson and Kimberly Hartsfield, 2009, "Is Getting into the Community Garden Business a Good Way to Engage Citizens in Local Government?", *National Civic Review*, 2009 Winter.

1973년 환경단체인 그린 게릴라가 1970년대의 재정 위기 상황에서 뉴욕시에 방치된 공한지를 줄이고 정비하고자 도시텃밭운동을 시작했다. 이러한 풀뿌리 시민운동을 계기로 뉴욕시는 도시텃밭사업에 착수하게 되었다. 그린 섬 프로그램은 기존의 도시텃밭 경작자들이 시유지를 무단점유해서 하던 텃밭 경작을 계속할 수 있도록 시에 협조를 요청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린 섬 프로그램은 기존 도시텃밭에 창고를 제공하거나 기술 지원을 하거나 농업교육 워크숍을 여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도움을 준다. 그린 섬 프로그램은 연방정부의 지역사회개발기금을 사용해서 도시텃밭에 재정 지원을 한다.

그린 섬 프로그램은 미국에서 가장 성공적인 시영 도시텃밭사업이다. 원래 이 사업은 뉴욕시 총무국 관할이었다가 1995년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국으로 이관되었다. 그린 섬은 미국 내 최대 도시텃밭 프로그램으로 600개소의 텃밭에 약 2만 명의 경작자가 참여하고 있다. 각 도시텃밭은 해당 텃밭 이용자조직의 대표자가 시에서 주관하는 도시농업 워크숍에 참여해야만 예산이나 농자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뉴욕시 당국은 도시텃밭 이용자조직에게 각종 행정 편의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청소국에 연락하여 텃밭 조성이 계획되어 있는 곳의 쓰레기를 치우게 하거나, 텃밭 경작자에게 소화전의 물을 이용할 수 있는 특별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뉴욕을 포함한 대부분의 미국 지방자치단체는 지금까지 빈 땅에 주민들이 농사를 짓고 있으면 모른 체하며 소극적으로 대처하였다. 하지만 도시의 건강, 복지, 안전, 미화, 환경 문제의 해결에 시민의 참여가 중요하게 되면서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구역 내에 도시텃밭을 조성하는 데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2) 새크라멘토

새크라멘토 최초의 공식적인 도시텃밭인 사우스사이드 도시텃밭이 2004년에 개장되었는데, 이 텃밭은 민관 협력에 의해 조성되고 운영되는 좋은 예다. 이 텃밭의 조성에는 사우스사이드 주민협의회, 새크라멘토 시, 새크라멘토 지역 도시텃밭 연합, 캘리포니아 주 총무국, 캐피털 지역 개발청 등이 참여했다. 캐피털 지역 개발청이 2002년 소유 토지를 새크라멘토 시에 기증하면서 사우스사이드 도시텃밭 조성이 가능해졌다.

사우스사이드 도시텃밭의 관리 책임이 있는 새크라멘토 시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국은 2008년에 공원 내와 시유지에 도시텃밭을 더 많이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나아

가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시설에 로컬푸드와 유기농산물 공급을 늘리고 공원 내에 시범 농원을 조성하는 한편, 시민을 대상으로 도시농업 교육 기회를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3) 시카고

도시텃밭을 시가 직접 조성하고 관리하는 예로는 시카고가 대표적이다. 도시농업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시의 법적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러한 유형의 도시텃밭에는 엄격한 규정이 만들어지게 마련이다. 시카고 시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국은 '공원사업소 텃밭'을 관리하고 감독한다. 시카고 공원사업소들은 공원 내 특정 공간을 지역사회단체 회원이 채소나 화훼를 가꿀 수 있도록 배정해준다. 이 텃밭 구획에서 경작을 원하는 이용자들은 공식적으로 텃밭 이용자조직을 구성한 후 이 조직을 대표하여 공원사업소 및 일반시민과 소통하기 위하여 대표자를 선출해야 한다. 각 도시텃밭 이용자조직은 공원사업소 내 여러 부서와 의사소통하는 접점 역할을 하는 시 공원 감독관 및 지역관리인과도 자주 접촉한다. 각 도시텃밭 이용자조직은 텃밭이 있는 공원의 자문위원회 위원과도 만나서 의견을 나눈다.

시카고 시 공원감독관과 지역관리인은 텃밭 사용 신청이 접수될 경우 해당 토지가 이용 가능하면서 시카고 공원사업소 소유임을 확인하고, 조사를 위해 현장방문을 할 때 텃밭 이용자조직 회원들과 동행해야 한다. 그리고 텃밭 경작자에게 텃밭에 영향을 미치는 행사나 활동이 공원 내에서 있을 경우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3. 일본의 도시농업

일본에서는 주말농장이나 도시텃밭을 시민농원(市民農園)이라고 부른다. 시민농원이란 "일반시민 중에서 농지가 없는 사람이 레크리에이션, 자신이 먹을 농산물 재배, 고령자의 삶의 보람 찾기, 어린 학생의 체험학습 등 다양한 목적으로 소규모 면적을 이용하여 채소나 꽃을 기르기 위해 조성된 농원"을 말한다. 장소, 개설 주체, 기능에 따라 구민농원, 레저 농원, 취미 농원, 상호교류 농원, 고향체험 농원으로도 불린다. 숙박 여부에 따라 당일형과 체재형으로 나누고, 도시지역 시민농원인 도시형과 농촌지역 시민농원인 농촌형으로 구분한다.

1989년에 「특정농지 대부에 관한 농지법 등의 특례에 관한 법률」(특정농지대부법)이 제정되어, 지방자치단체나 농업협동조합이 소규모 농지를 단기간, 일정조건하에서 이용자에게 빌려줄 수 있게 되었다. 1990년 6월 「시민농원정비촉진법」(시민농원법)이 제정되어 전반적으로 시민농원 정비가 가능하게 되었다.

2005년 9월에 개정 특정농지대부법이 시행되어 시정촌 등 지방자치단체와 농업협동조합 이외의 자라도 시정촌 등과 협정을 체결하면 특정농지 대부에 의해 시민농원을 개설할 수 있게 되었다. 농지소유자는 물론이고 농지를 소유하지 않은 개인이나 기업, 비영리법인도 시정촌 또는 농지보유합리화법인한테 농지를 빌려 시민농원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

특정농지대부법과 시민농원법에 의해 개설된 시민농원의 수는 2009년 3월 현재 전국적으로 3,382개소이며, 구획수는 16만 5,479구획, 면적은 1,164ha에 이른다. 전국의 시민농원 중 특정농지대부법에 의한 시민농원이 2,938개소로 전체의 87%이고 시민농원법에 의한 시민농원은 444개소로 13%를 차지한다. 개설주체로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2,276개소(67%), 농업협동조합이 482개소(14%), 농업자가 480개소(14%)이다. 지역별로 보면, 도시지역에 있는 시민농원은 2,643개소, 13만 2,192구획, 719ha로 전체 시민농원의 78%에 달한다.

시민농원을 개설하는 방법에는 특정농지대부법에 의한 방법, 시민농원법에 의한 방법, 농원이용방식의 세 가지가 있다.

① 특정농지대부법에 의한 시민농원

면적 10a 미만 농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일정 조건으로 대부해야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되며 대부기간이 5년을 초과해서도 안 된다.

특정농지대부 및 이를 위한 농지의 권리 취득에 대해서는 농지법 제3조의 허가 및 동법의 소작지소유제한 등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농업협동조합은 농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소유한 농지에 대하여 특정농지대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민농원법에 의한 시민농원

도도부현지사는 시민농원 정비 기본방향, 시민농원구역 설정에 관한 사항 등을 내용

으로 하는 ‘시민농원 정비에 관한 기본방침’을 정한다. 시정촌은 기본방침에 따라 해당 시정촌 구역 중 요건에 해당하는 곳을 시민농원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시민농원구역 또는 시가화구역내에 시민농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토지의 소재, 시민농원 정비와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한 정비운영계획을 작성해서 시정촌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③ 농원이용방식

농가가 지정하는 장소에 입원(入園)해 그곳에서 농작업을 통하여 농원을 이용하는 방식이다. 비영리로, 계속해서 농지를 농작업 용도로 쓰는 이 방식은 농지법상의 허가 규제를 받지 않는다. 임차권이나 기타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설정할 수 없다.

제2절 외국의 시민참여 프로그램 사례

1. 교육 분야

1) 뉴욕 위생국의 마스터 컴포스터 과정 (NYC Master Composter Course)[22)]

뉴욕시 위생국에서 1993년 개발한 교육프로그램인 Master Composter Certificate Course는 뉴욕시민, 비영리단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역기반의 퇴비화 작업에 관한 노하우를 전수한다. 이수과정은 18~23시간의 강의와 두 번의 현장답사, 15시간의 지역훈련실습, 15시간의 수강자 개별프로젝트로 이루어져 있다. 교육주제는 소규모 퇴비화 과정, 퇴비 사용 방법, 현장 맞춤형 퇴비화 체계 설계 및 제작 방법, 퇴비화 노하우 전수방법 등이다. 참가자들은 지역사회단체와 뉴욕시의 이해에 맞추어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된다. 그들 중 일부는 학교나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퇴비화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공동체 정원에 퇴비화 통을 설치하거나, 퇴비작업장에서 노동을 제공하는 등의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다. 수강료는 40달러이다.

<그림 4-1> 마스터 컴포스터의 교육 모습
(출처:Master Composter Program)

〈그림 4-2〉 마스터 컴포스터의 홍보자료
(출처:Master Composter Program)

22) 프로그램 홈페이지 http://www.nyc.gov/html/nycwasteless/html/compost/compostproj.shtml

2) Just Food의 Farm School NYC[23)]

USDA의 지원으로 운영되는 이 프로그램은 뉴욕시민을 대상으로 도시농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제공하는 2년 과정의 자격증 이수 프로그램이며, 풀뿌리운동과 사회정의를 실천하는 먹거리 관련 리더를 양성하기 위하여 식량정의운동, 효율적인 공동체 구성 방법, 변호 및 지지 기술을 가르친다. 팜스쿨은 도시농부, 정원가, 결식반대 및 식량정의 옹호자들의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뉴욕의 특수한 공동체성과 먹거리 문제를 가장 잘 이해하는 리더가 운영한다. 팜스쿨은 뉴욕시의 다양성을 대표하는 학생회를 조직하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사회정의 관련 사안에 관심을 두고 수강료도 수강생의 소득과 가족규모에 따라 다르게 책정한다.

〈그림 4-3〉 팜스쿨의 교육 모습
(출처:Inhabitat)

3) 미국의 Truck Farm Food Project[24)]

Truck Farm Food Project는 King Corn이라는 다큐멘터리 필름에서 1에이커의 옥수수 농사를 지었던 먹을거리 관련 다큐멘터리 감독 Ian Cheney가 2009년 뉴욕 브루클린에서 시작한 먹을거리 운동으로, 경작지가 부족한 도시에서 오래된 트럭의 화물공간을 경작활동에 이용하자는 아이디어에 착안했다. 시공 후 농사과정, 시민과 어린 학생들을 위한 순회과정을 촬영하여 제작한 뮤지컬 형식의 다큐멘터리 필름 Truck Farm을 2010년에

23) 프로그램 홈페이지 http://justfood.org/farmschoolnyc

24) 트럭팜 시카고 홈페이지 http://www.truckfarmchicago.org/

발표하고, 여러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한국에서는 2011년 제8회 서울환경영화제 심사위원특별상과 관객상을 수상하였다. 또한 2011년 브루클린 소재의 CSA를 설립하고 20여 가구에 먹을거리를 공급했다. 300달러의 비용으로 트럭농장을 설치하는 방법도 제공했다. 트럭을 활용한 트럭농장은 2011년 봄 기준 미국 25개 지역에서 실천 중이다. 그 중 시카고에서는 트럭농장을 활용하여 식품사막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비영리단체 Truck Farm Chicago가 설립되어 2011년 한 해 동안 47개 지역학교를 순회하면서 2,700여명의 어린 학생들에게 도시농업과 로컬푸드에 관한 환경 및 식생활교육을 제공했다.

〈그림 4-4〉 트럭팜의 순회 교육 모습 1
(출처:Truck Farm Chicago)

〈그림 4-5〉 트럭팜의 순회 교육 모습 2
(출처:Truck Farm Chicago)

2. 홍보 분야

1) 시카고 시의 Sustainable Backyard Program[25)]

이 프로그램은 개인 주택, 학교, 교회 등의 뒤뜰을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만드는 데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환급프로그램으로 설치목적과 방법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하기도 한다. 2011년도에는 빗물수거통과 퇴비함 구매항목에 대해서만 환급이 가능했지만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토종식물과 나무를 환급대상에 추가하였다. 또한 올해에는 워크숍 참가에 대한 의무사항을 없애고 웹사이트에 올라온 환급양식을 작성하여 우편으로 부치면 해당 품목을 환급받도록 규정을 완화하였다. 하지만 새롭게 추가된 토종식물과 나무는 외래종에 관한 시카고시의 조례에 따라 지정된 추천 품종 이외의 식물 구매에 대해서는 환급이 불가능하다. 빗물수거통은 최대 40달러, 퇴비함은 50달러, 토종식물은 60달러, 나무는 100달러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2) National Trust의 My Farm Project[26)]

이 프로젝트는 단체 소유의 농장에서 연회비 30파운드를 받고 1만 명의 '가상 농부'를 모집해, 이들이 내리는 결정에 따라 실제 농장의 농부들이 각종 가축과 작물을 키우는 프로젝트로 내셔널 트러스트가 인기 온라인 소셜 게임 '팜빌(FarmVille)'과 온라인 의사결정 구조를 갖춘 Ebbsfleet United Football Club의 사례에서 영감을 얻어 추진하게 되었다. 마이팜 프로젝트는 내셔널트러스트 소유 윔폴홈 농장의 1,450에이커 토지에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결정권을 가상 농부에게 맡긴다. 회원들은 한 달에 한 번 투표를 통해 어떤 작물을 심을지, 가축들에게 어떤 사료를 먹일지 등에 대하여 다른 회원들과 농장 운영문제 등을 논의한다. 가상 농부들은 농장 운영팀이 개설한 블로그를 통하여 비디오나 웹캠에 담긴 농장의 이모저모를 살필 수 있다. 최근에는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인원을 늘리고 식품 관련 토의 주제의 범위를 넓히기 위하여 무료로 회원을 받고 있다. 또한 온라인 투표와 댓글을 통하여 농부들은 유럽 및 세계 식품시장의

---

25) 프로그램 홈페이지
http://www.cityofchicago.org/city/en/depts/cdot/provdrs/conservation_outreachgreenprograms/svcs/chicago_sustainablebackyardprogram.html

26) 마이팜 프로젝트 블로그 http://myfarmnt.com/

흐름을 읽고, 농사 관련 이슈의 새로운 시각을 읽을 수 있다. 가상 농부들은 농사와 식량생산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환경적인 영향은 얼마나 되는지, 관행농과 유기농의 차이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직접 문제에 부닥치면서 배우게 된다. 2012년 상반기부터는 본래의 취지를 더욱 살리고 보다 많은 회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연회비 없이 회원을 받고 있다.

3. 지역경제 분야

1) GrowNYC의 Youth Market[27)]

지역청년들에 의해 운영되는 그린마켓인 유스 마켓은 지역 농부가 공급한 농산물을 뉴욕시 공동체에 보급하도록 계획된 도시농장 가판대의 네트워크이다. 유스 마켓을 통하여 5개 자치구의 가구들은 농장의 신선한 먹을거리를 소비하기 편해지고, 지역청년들은 돈을 벌고 소규모 사업의 기술을 익힐 수 있게 된다. 유스 마켓의 훈련프로그램은 청년들이 건강, 영양, 환경문제, 지역농업에 관해 배우는 동안 가판대 사업을 계획하고 운영하도록 돕는다. 또한 청년들이 인근 식료품점이나 슈퍼마켓의 먹을거리에 대해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에서 생산한 먹을거리의 장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2011년에 65명 이상의 청년들이 유스 마켓 가판대에서 수확철 16주 동안 일하면서 임금을 받고, 지식을 얻을 수 있었다. 2012년도에는 50명을 모집하여 GrowNYC의 11개 유스 마켓을 운영할 계획이다.

〈그림 4-6〉 유스 마켓 판매 모습
(출처:GrowNYC)

27) 프로그램 홈페이지 http://www.grownyc.org/youthmarket

2) People's Grocery[28)]

도시 내에서 식품사막에 대항하여 성공한 사례는 California 주 Oakland 시 West Oakland에 있는 비영리단체 People's Grocery(PG)에서 찾을 수 있다. PG는 2002년에 설립되어 1960년대에서부터 지속되어 온 West Oakland 지역의 불안전한 식량문제와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운영을 중단한 California Hotel의 주차장 부지를 활용해 조성된 농장에서 CEO Brahm Ahmadi는 지역 식량체계를 통하여 West Oakland 지역의 보건과 경제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단체는 도시농업, 영양교육, 푸드 트럭과 좌판 같은 노상판매 등의 프로그램을 펼쳤다. 특히 도시농업 프로그램은 오클랜드 시내에 세 곳의 경작지를 두고, 교외에 3에이커(약 3,600평)의 농장을 운영하면서 성공적으로 발전하였다. 사업모델 개발의 일환으로 트럭에서 생산물을 판매하는 Mobile Market, CSA를 통해 판매하는 Grub Box 제철꾸러미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는데, Mobile Market은 미국에서 처음 행해진 것이라고 한다. 특히 Grub Box 프로그램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가정을 대상으로 건강한 농산물을 주 1회 제공한다. PG는 저변을 확대하기 위하여 소매업에도 도전하고 있는데 2010년에는 People's Community Market을 세우기 위한 준비단계에 돌입했고, 2012년에는 지원을 받아 오클랜드 시내에 15,000평방피트의 상점을 개설할 예정이다.

2011년부터 수석 담당자인 Nikki Henderson는 시민들과 지역리더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식품 정의 프로그램인 Growing Justice Institute를 개설하여 매년 6~10명의 지역 참가자들과 함께 그들이 구상한 식품 및 보건 관련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된다. 2년에 걸친 프로젝트 완성과정을 통해 참가자들은 사업의 이윤이 보장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2011년 참가자들의 프로젝트 결과로는 요리 강좌, 상업용 공동체 정원, 식재료 좌판 등이 있다. 2012년 참가자 중 Sabur 씨는 지역식품체계에 대한 이해는 물론 건강한 먹을거리를 선별하고 조리하는데 필요한 방법을 담은 책을 발간할 계획이다. 지역공동체가 알칼리성 음식과 개선된 식습관을 선택하도록 돕는 것이 그의 목표이다.

최근(2012. 06. 17)에 PG는 "농업적 뿌리를 기념하기"라는 행사를 개최하여 PG의 경작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아프리카인, 라틴아메리카인, 그리고 미국 원주민들이 어떻게 식량과 농업의 지속성을 실현했는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PG

---

28) 단체 홈페이지 http://www.peoplesgrocery.org/

는 요리 실습이나 경험담 공유 시간을 통해 그들의 농업경험을 재창하고 자치를 부여하려 한다. “1만 명의 사람, 1만 개의 이야기, 1만 시간의 음식 캠페인”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요리법을 공유하고, 작물을 심어보는 작업을 진행한다. PG는 이 행사에서 300인분의 유기농식품을 준비하여 지역의 건강한 식문화를 홍보하는 데 앞장설 것이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도시농업과 농경문화를 전파하는 데 힘써 온 다양한 단체들과 개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지속가능한 도시농업 사례나 지역경제 활성화 사례들을 공유하게 될 것이다. 2012년 동안 PG는 그들의 네트워크를 캘리포니아 주로 확대하여 변화를 위한 플랫폼을 만들 예정이다.

3) SOLEfood[29)]

솔푸드는 밴쿠버 East Hastings Street의 Astoria Hotel 인근 14만 평방피트(약 400평) 규모의 예전 주차장 부지에 상자텃밭을 설치하고, 2010년에는 1만 파운드(약 4.5톤), 2011년에는 3만 파운드(약 13.6톤)의 농산물을 생산해냈다. 특히 인상 깊은 실적은 2010년에는 8~12명의 인력(이 중 6명은 풀타임)을 고용하여 시간당 12달러의 임금을 지불해 총 지불액이 15만 달러에 이른다는 점이다. 최근 (2012년 5월) 솔푸드는 밴쿠버 시의 지원을 받아 False Creek 북쪽의 예전 엑스포 부지 중 2에이커(약 2,450평)에 40여 가지의 경작물을 재배할 상자텃밭을 설치했는데 이는 밴쿠버에서 시도된 도시농장 사례 중 가장 큰 규모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 새로운 농장의 운영을 위해 인근 Downtown Eastside의 주민 중에서 25명을 고용하고 이들 25명과 함께 4명의 연습생을 두어 미래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해당 부지는 3년의 계약으로 임대되었으나 2,800여 개의 상자텃밭 모두 이동 가능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도시농업의 새로운 모델을 실험한 후 새로운 부지로 이전할 계획이다. 올해 여름까지 약 50만 달러의 예산으로 추가 조성될 도시농장까지 포함하면 솔푸드는 총 5개소, 3에이커(약 3,700평)에 달하는 밴쿠버 최대의 도시농장을 운영하게 되며, 30개 이상의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

29) 단체 홈페이지 http://1sole.wordpress.com/

〈그림 4-7〉 밴쿠버 엑스포 광장의 솔푸드 상자텃밭
(출처:SOLEfood)

4. 공동체 분야

1) Landshare와 Incredible Edible Todmorden[30)]

Todmorden은 지역 경찰서, 학교, 보육센터, 버스 정류장, 심지어 묘지에서도 먹거리를 재배하면서 영국에서 안전한 식품을 섭취하기에 가장 편리한 마을 중 하나가 되었다. Todmorden은 게릴라 가드닝이 어떻게 시유지 상의 광범위한 경작활동을 이끌어내고 좋은 음식을 생산해냈는지 잘 보여준다.

2008년 여름 전 시의원인 Pam Warhust와 Mary Clear은 Incredible Edible Todmorden(IET) 운동의 일환으로 West Yorkshire의 시장구역에 채소를 기르기 시작했다. 지역 버스정류장 근처에 장군풀밭을 조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묘지, 포장도로 인근의 로터리 공터까지 경작의 범위를 넓혀나갔다. 그리고 두 사람은 '로컬푸드 키우기와 경작지 나누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모집하는 광고를 지역소식지에 게재하여 60여명의 참가자들과 함께 다양한 아이디어를 나누는 모임을 가지게 되었다. 이들이 주선한 지역모임 이후로 지역주민들은 빈 땅을 찾아 과수원을 가꾸고, 인근 학교에 비닐멀칭을 도입한 텃밭을 만들면서 동네 이곳저곳을 채소 키우기에 적당한 텃밭으로 바꾸어 나갔다. IET는 2018년까지 지역 내 과수원 과일, 달걀, 채소의 자급자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가 영국 내에서 회자되면서 Network Rail과 같은 공공 토지 소유자 또한 마을의 자투리 공

30) 프로젝트 홈페이지 http://www.incredible-edible-todmorden.co.uk/projects

간이 주는 혜택을 이해하기 시작하게 되었고, 경작지를 위한 토지를 기부하는 결과를 낳았다.

지역노인복지관 같은 지역사회시설 또한 '원예치료'용 텃밭을 조성하도록 허용하면서 정신적 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우들에게 경작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Pennine Housing이라는 지역인증 사회적 지주는 세입자들이 스스로 경작할 수 있도록 경작용 도구와 경작지를 제공하였다.

IET는 자체적으로 Every Egg Matters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생산한 달걀의 잉여분을 판매하는 양계장 소유주의 집을 표시한 지도를 작성하였다. 네 곳으로 시작한 Every Egg Matters는 40여 곳으로 확대되었으며 점점 많아지고 있다.

IET의 광범위한 지역연계활동은 Todmorden의 지역적 결속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 반사회적인 사건의 감소로 이어졌다. 한 고등학교 후면의 버려진 땅에 과수원, 양봉장을 설치하여 주변경관을 향상시키고, 지역의 자부심을 높이는 결과를 낳았다.

2) Edible Schoolyard NYC[31)]

브루클린 남단은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유명 해수욕장과 놀이동산이 즐비했던 Coney Island로 잘 알려져 있다. 역사적인 주요 여가공간이었던 것 외에도 코니아일랜드는 제조업과 대규모 교통망 발달로 이전의 농업경관을 점유하기 시작했던 뉴욕시 개발의 전환기를 대표하는 곳이다. 1800년대 코니아일랜드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도 일반 승객용 철도가 들어섰던 데 있다.

지역의 농경문화는 경제 발전과 산업화에 의해 사라져 갔다. 그러나 사우스 브루클린의 조용한 주택가에는 이민자들이 가꾸는 채소 경작지가 여전히 남아 있다. 이들이 몇 해에 걸쳐 경작을 실천하는 동안 Gravesend 지역에서 새로운 공립학교 프로젝트가 시작되어 인근에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땅을 경작하는 데 대한 지식과 열정을 계발시키도록 돕고 있다. Edible Schoolyard NYC는 원래 선도적인 요리사이자 식품 활동가인 Alice Waters가 California 주 Berkeley 시에서 창시한 것으로 서부연안지역에서 15년간의 경험을 축적했으며, 동부해안지역에서는 브루클린의 Arturo Toscanini School에서 최초로 시

31) 프로젝트 홈페이지 http://esynyc.org/

행되었다. 프로그램 담당자인 Christiane Baker는 Edible Schoolyard를 통해 전통적인 학습내용인 읽기, 말하기, 수학, 역사뿐 아니라 지역공동체 형성이나 사회발전도 체득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한다. 프로그램 현장은 예비유치원에서 5학년까지 5백여 명의 어린이를 수용할 수 있다. 참여 어린이들은 다양한 인종 구성을 이루고 있고, 대부분 식비 보조를 받는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이다.

농장 운영자인 Vera Fabian은 한 해에 걸쳐 매일 4개의 수업을 책임지는데 개별 학생이 한 달에 연속 2일을 경작지에서 보낼 수 있도록 돕는다. 첫째 날에는 학생이 계절별 먹을거리를 이해하는 것을 돕기 위해 지리를 공부하게 되고, 둘째 날에는 퇴비 만들기 작업이나 상추 수확하기 작업을 통해 손에 흙을 묻히게 된다. 교실로 돌아가면 그들이 가꿨던 경작지의 채소가 어떻게 자라나고 있는지 그래프나 차트를 통해 배우게 된다.

점심시간에는 어린이들이 뉴욕시 교육국의 SchoolFood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는데 요리전문학교 졸업생들과 함께 교내 식당에서 신선한 음식을 준비해 보는 것이다. 어린이들은 경작지에서 바로 수확된 농산물로 음식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제철 작물에 맞춘 점심 메뉴를 짜보기도 한다.

아스팔트 주차장을 이용해 만든 1/4 에이커(약 300평)의 작은 경작지이지만 아이들이 맨발로 다닐 수 있도록 잔디도 깔고, 추운 겨울을 대비해 온실도 만들 계획이다. 2012년에는 건축가에 의해 설계된 온실과 부엌도 들어설 예정이다. 한 달에 한 번은 Family Night가 개최되는데 학생들이 바쁜 부모와 함께 모여 경작지와 부엌을 오가며 음식을 만들고 나누면서 공동체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프로그램 담당자들은 일련의 활동들을 통해 학생들의 자존감이 눈에 띄게 높아졌다고 말한다. 절반에 가까운 학생들이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중앙아시아, 동유럽, 중동, 그리고 중국 출신이지만 경작활동을 통해 어색한 분위기를 깨고 친구들과 이야기하면서 영어를 배울 수 있었다. 프로그램 담당자는 Edible Schoolyard 프로그램이 뉴욕시의 의무 교육프로그램으로 지정되어 학교마다 농장이나 경작지를 만들고 담당 교사와 행정직원이 배치되어 전문적인 프로그램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3) Nomadisch Grün(Nomadic Green)의 Prinzessinnengarten(Princess Garden)[32]

베를린 시의 유휴지, 공한지를 임대하여 팔레트 카트로 이동 가능한 상자 텃밭으로 도

시 내 공동체 정원을 가꾸는 사회적기업 Nomadic Green의 대표사례는 Princess Garden이다. 베를린 장벽에서 200m 떨어진 낙후지역 Kreuzberg에 위치한 Princess Garden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쓰였던 상가건물을 개조하여 400여 가지 식물, 8개의 벌통, 레스토랑과 카페를 겸비한 도시농장이다. 시유지의 일부분을 점유한 농장은 새로운 개발계획이 실행되기 전까지 낙후지역의 공동체를 위한 공동체 정원으로 기능하며, 추후에 다른 땅으로 이동이 가능하다. 평소에는 20여명의 인원이 경작에 참여하며, 행사 시에는 수백 명의 지역주민이 찾는다. 카페에서 얻은 수익은 다시 농장을 운영하는 데 쓰인다.

〈그림 4-8〉 노마딕 그린의 프린세스 가든
(출처:Nomadic Green)

32) 프로젝트 홈페이지 http://prinzessinnengarten.net/

5. 사회형평성 분야

1) Janus Youth Program, Inc.[33)]

Janus Youth Programs (JYP)는 태평양 연안 북서부 지역에서 가장 큰 비영리 단체 중 하나이다. JYP는 Oregon 주와 Washington 주에서 매년 6천명 이상의 고위험군 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출과 노숙을 방지하기 위한 20개의 프로그램을 전개하고 있다. 그 프로그램들 중 하나인 도시농업 프로그램은 지역의 저소득층 가정이나 이민자 가정의 청소년을 위해 공동체 경작지를 지원한다. 1972년에 시작된 JYP는 처음에 도시농업이나 식량문제를 다루지 않았으나 가출청소년을 위한 돌봄 센터인 Harry's Mother에서 치료목적의 정원을 조성하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Harry's Mother 센터에서 첫 씨앗을 뿌린 사람은 마스터 가드너 봉사자인 Tera Couchman Wick이었다. 그녀는 가출청소년들의 의지할 곳 없는 마음이 땅에서 위로받을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은행에서 센터 근처 유휴지를 빌려 경작지로 바꾸었다. 그 후 경작지를 확보하기 위해 몇 차례 장소를 바꾸어 경작을 지속하던 차에 Portland 북부 St. Johns Woods 공공주택단지에 사는 이민자 가족들의 경작활동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다. Tera Wick과 JYP의 도움으로 공공주택단지의 이민자 가족들은 공동체 경작지를 형성할 수 있었다.

경작프로그램에 대한 체계가 잡히면서 단체는 Food Works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시작했고, 청소년들에 의해 운영되는 일련의 생산 및 판매과정은 성공적이었다. 청소년들은 더 많은 경작지를 원했고, Tera Wick이 주도하여 1에이커(약 1,200평)의 농지를 마련하였다. 그 후 매년 5,000달러 어치의 농산물을 판매했고, 2009년에는 11,000달러 어치의 판매고를 기록했다. 청소년들이 파머스 마켓에 팔고, 집으로 가져가는 것 외에 남는 농산물은 모두 지역사회에 기부했는데 그 양이 5,000파운드(약 2,300kg), 수혜자는 75명에 달한다. Harry's Mother의 작은 텃밭에서 시작하여 St. Johns Woods 공공주택단지의 공동체 경작지, Food Works의 비교적 규모 있는 경작지까지 프로그램이 확대되었고, 이 과정에서 일부 청소년들은 대학에 입학하고 장학금을 받고 체육 특기자가 되는 등의 놀라운 발전을 보여주었다.

---

33) 프로그램 홈페이지 http://www.janusyouth.org/

2) The Cook County Sheriff의 Urban Garden Program[34)]

1993년에 처음 개설된 쿡 카운티 교도소의 경작프로그램은 쿡 카운티 교도소의 예비석방 담당부서의 재소자 사회적응 프로그램으로 시작되었다. 400여명의 재소자에 의해 여름 동안 집중적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교도소 내 65,000평방피트(약 1,800평)의 땅을 일구어 노숙자 보호소나 비영리단체 등 지역사회에 54톤의 채소수확물을 기부하였다. 올해 여름에는 5,000파운드(약 2.2톤)의 농작물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인근의 Daley Plaza 농민시장에서 농산물을 판매하게 되어 신선한 먹을거리가 필요한 지역사회에 도움을 주고 있다. 농민시장이나 지역 식당에서 나온 판매 수익금은 다시 경작지에 재투자된다. 젊고 비폭력적인 범죄자들을 위한 대체복역 프로그램 중 하나로 인기가 있는 경작프로그램은 참가자들이 경작기술과 퇴비화기술을 익히고, 그들의 경력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교도소는 2000년부터 일리노이 대학 평생교육원과의 공조를 통해 경작프로그램에 참여한 수감자를 대상으로 마스터 가드너, 마스터 컴포스터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는데 교육과정의 성공적 수료율은 56%이며, 200명 이상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2011년도에 수료생 중 두 명은 출소 후 시카고 식물원에서 농업 경력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그림 4-9〉 교도소 내의 경작지
(출처:Cook County Sheriff)

34) 프로그램 홈페이지
http://www.cookcountysheriff.org/ReentryAndDiversion/ReentryAndDiversion_Garden.html

6. 환경보호 분야

1) The Conservation Volunteers의 Green Gym[35)]

지역의 돌봄이 필요한 텃밭에서 운동과 함께 경작활동을 한다고 해서 붙여진 Green Gym 프로그램은 자원봉사단체인 The Conservation Volunteers에서 실행하는 자원봉사 프로그램 중 하나이다. 숙련된 강사의 지도하에 녹지에서 이루어지는 육체 훈련은 야외 근로를 준비하기 위한 실무경험을 쌓거나 근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보통 평일 오후나 주말 오전 반나절을 이용해서 지역의 녹지를 가꾸게 되는데, 워밍업 이후엔 각자의 요구에 맞는 도구로 일을 시작하고, 즐겁게 이야기하면서 차를 마시는 시간도 갖는다. Green Gym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들은 각종 환경 관련 행사에 참여해서 도시농업을 알리기도 하고, 지자체와 협력하여 공터에 텃밭을 조성하거나 공원시설을 관리하기도 한다.

2) Efficient City Farming의 Frisch vom Dach (Fresh from the Roof)[36)]

라이프니츠 담수생태계 연구소에서 개발한 aquaponics 시스템인 ASTAF pro 기반의 도시농장은 건물주, 레스토랑 경영자, 호텔리어 등 고객의 요청에 따라 현지 타당성 조사, 시공, 운영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베를린의 Schoneberg 구역의 버려진 효모공장을 활용하여 7,000 평방미터의 옥상에 온실을 설치하고 과채류, 생선 등의 2013년 수확을 목표로 하고 있다. 5백만 유로의 경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

7. 문화예술 분야

1) Boer'n Brood(Farmer and Bread)의 Gentse Feesten(Ghent Festival, Belgium)[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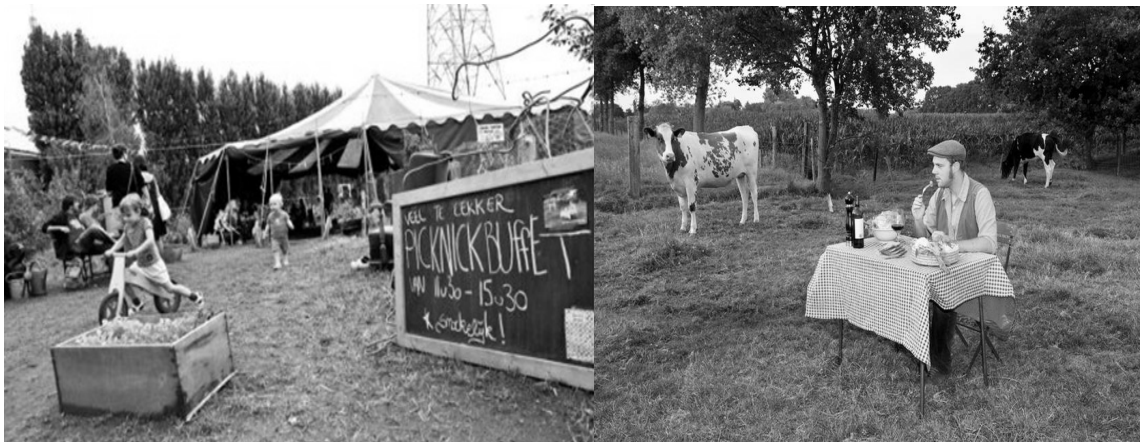
Ghent Festival은 벨기에 서북부 겐트지방의 25개 거점마을에서 지역농산물과 예술을 매개로 한 마을소풍을 기획한다. 단체는 축제의 시간과 장소를 페이스북 등을 통해 공지

35) 프로그램 홈페이지 http://www.tcv.org.uk/greengym

36) 단체 홈페이지 http://www.ecf-center.de/en/

37) 단체 홈페이지 http://www.boerenbrood.org/

하고, 공터를 골라 농촌 콘셉트의 축제장과 양, 닭들을 준비한다. 참가시민들은 어른 10유로, 아이 5유로의 입장료를 내고 축제장에 들어와 지역에서 생산된 벌꿀, 육류와 유제품, 다양한 유기농 채소를 뷔페식으로 맛보고 마련된 소풍용 깔개 등에 가족단위로 모여 앉아 음악연주, 시낭송 등 각종 예술 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



〈그림 4-10〉 마을 소풍 행사
(출처:Boer'nBrood)

V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

제1절 경작가능지 확대

1. 서울시내 경작가능지 발굴

도시의 행정구역 내에는 텃밭으로 이용이 가능한데도 방치된 토지가 널려 있다. 공동주택단지,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병원, 군부대, 교회, 사찰, 하천 고수부지, 철도 폐선부지, 고압선 선하부지, 그린벨트, 공원, 광장, 주차장, 공항, 시청·도서관 등 공공기관, 가로변, 공한지 상태의 시유지, 건물 옥상, 베란다·발코니·테라스 등 우리 도시 내에서 채소, 작물, 화훼의 재배가 가능한 곳은 찾아보면 무수히 많다.

최적의 도시농업 경작가능지로 공원이 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공원은 텃밭에 비해 조성 및 관리비용이 많이 드는 데도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공원의 인근 주민과 지역사회단체의 참여를 전제로, 공원 내 일부지역을 도시텃밭으로 활용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맺어 공원 내 텃밭을 시민이 관리하면 예산 절감에도 도움이 되고 지역공동체 회복에도 기여한다. 미국의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공원에서의 텃밭 경작을 확대하고 있으며, 영국 런던의 아일링턴(Islington) 자치구도 한 공원의 일부지역에 소규모 농원을 조성하여 낮 시간에 인근주민이 경작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영국 도시농업협회나 그린 스페이스(Green Space) 등 도시농업 관련단체들이 공원 내 텃밭 조성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고 도시텃밭 조성을 지원하고 있다.

도시 내에서 방치되고 있는 시유지도 도시텃밭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놀려두고 있는 시유지를 인근주민들이 도시텃밭으로 경작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이다.

최근 영국에서 랜드셰어라고 하는, 웹상에서 경작 희망자와 토지 소유자를 연결해주는 사업이 인기를 끌고 있다. 토지소유자, 경작희망자, 도움을 주는 사람의 3개 그룹이 참여하는 이 사업은 웹사이트에 자신의 거주지와 함께 제공 가능한 토지나 경작하고 싶은 토지에 관련한 사항을 올린 후 이메일 시스템을 통하여 메시지를 주고받고 합의가 되면 랜드셰어가 제공하는 표준 계약서 양식을 활용하여 서로 협약을 맺고 도시농업을 시작하게 된다.

개인 소유의 정원도 다른 사람에게 경작하게 할 수 있다.[38] 이를 뒤뜰 셰어링(Backyard Sharing)이라고 한다. 자기 집에 정원이 있으나 고령이나 질병 등의 사유로 관리가 어려운 소유자가 텃밭 경작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경작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경작자가 소유자와 같은 동네에 살며 성실하게 약속 사항을 지킨다면 서로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도시텃밭 경작방식이라 하겠다. 이렇게 사유지를 도시텃밭으로 이용할 경우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는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제공함으로써 토지 소유 및 이용과 관련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사후에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2. 경작가능지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일반시민이 검색 가능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경작가능지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둘 필요가 있다. 서울시민의 도시농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경작 공간을 확인하고 보급하는 일이 시급하다. 서울시는 서울시내 국공유지에 대한 통계자료를 목록으로 정리하고 책자로 발간해야 한다. 일반시민이 25개 자치구에 산재되어 있는 모든 유휴지에 대한 토지 속성까지 포함된 구체적인 토지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필요하다면 앞으로 서울시 도시농업 육성지원 조례를 개정할 때 검색 가능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추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

38) Analisa Blake and Denise Cloutier-Fisher, 2009, “Backyard bounty: exploring the benefits and challenges of backyard garden sharing projects”, *Local Environment,* Vol. 14, No. 9, October 2009, pp.797-807.

3. 건물 옥상의 체계적 관리

건물 옥상은 전력생산 공간, 경작 공간, 휴식 공간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나, 건물입지나 구조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최적 용도를 정하는 등 옥상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 현재 서울시내 대부분의 건물 옥상이 폐쇄되거나 방치되어 도시미관이 저해되고 있다. 옥상조경면적의 의무조경면적 인정제도가 지상부 녹화면적을 잠식하고 있는 문제도 안고 있다. 옥상녹화의 장점과 사후관리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건축주가 옥상녹화에 대한 투자를 주저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옥상텃밭은 조방적 옥상텃밭과 집약적 옥상텃밭으로 구분하여 관리해야 한다. 조방적 옥상텃밭은 상자텃밭이나 토심이 얕은 텃밭 중심으로 운영하고, 집약적 옥상텃밭은 토심이 깊고 관개시설이 된 상당 규모의 옥상텃밭 중심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현재 서울시내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햇빛지도 제작을 위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건물 옥상의 태양광 패널 설치를 위한 타당성조사를 실시할 때 이런 조사를 잘 활용하면 경작에 필요한 공간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옥상 전체 면적, 태양광 노출도, 건물 옥상의 하중도 등 태양광 패널 설치를 위한 조건이 경작을 위한 조건과 유사하기 때문에 이러한 조사를 확대하면 경작 가능 옥상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제2절 도시농업 종합계획 수립

1. 외국 주요 도시 도시농업 종합계획 벤치마킹

1) 도쿄 농업진흥계획 2012

일본 도쿄에는 도시농업 종합계획에 해당하는 도쿄 농업진흥계획 2012가 수립되어 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도쿄 농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이 정리되어 있다.

첫째, 다양한 농산물 생산에 의한 지역 특성 고취

둘째, 고령화가 진행되는 동시에 의욕적인 농업인의 증가

셋째, 지속적인 농지 감소

넷째, 도쿄 농업을 지지하는 자원 봉사의 증가

이와 관련한 향후 도쿄 농업의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농산물 가공 판매 등에 의한 산업 역량 강화

둘째, 민간과 공공부문이 일관된 식품 안전을 확보하고 신뢰를 향상

셋째, 농업의 다면적 기능의 발현을 위한 프로그램 강화

넷째, 도시 농업·농지에 관한 현행 제도의 개선

도쿄 농업의 비전은 “도민 생활과 긴밀하게 연결되고 미래를 향해 발전하는 산업”으로 제시되어 있다. 다시 말해 도쿄 농업의 진흥 방향은 지역 특성을 살린 산업역량 강화, 도내 농축산물 안전 확보와 지산지소 운동 추진, 풍부한 도민생활과 도시환경에 기여하는 데 있다. 그 세부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 도쿄 농업의 특성을 살린 산업 역량 강화
  - 도쿄의 잠재력을 살릴 수 있는 매력적인 농업 경영체제의 확립
  - 도쿄 특산품 개발과 브랜드화의 추진
  - 도쿄 농업을 지원하는 의욕적인 일꾼과 다양한 담당자의 확보 및 육성
  - 농업생산 기반시설 정비와 농지의 보전·활용 촉진
- ○ 도내 생산 농축산물의 안전·안심의 확보와 지산지소 추진
  - 농축산물의 안전·안심 확보를 위한 시책의 강화
  - 도내 농산물의 지산지소 추진

- 친환경 농업 추진
- 식물 방제 및 가축 방역 대책 등의 강화

○ 풍부한 도민 생활과 쾌적한 도시 환경에 적극적으로 기여
- 농업·농촌의 다면적 기능이 발현되는 지역 만들기 추진
- 도내 농산물 및 농업 체험을 통한 바른 식생활 실천 교육 추진
- 도내에서 자란 녹화식물로 도시 녹화 추진
- 도민과 함께 만들고 기르는 도쿄 농업

2) New York Food Works 2011

뉴욕은 도시농업 종합계획을 별도로 수립해놓고 있지는 않지만 생산, 가공, 유통, 소비, 소비후의 5단계로 나누어 뉴욕시의 종합적인 식량 계획을 수립한 바 있는데, 이 중 생산 단계가 도시농업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뉴욕시의 종합적 식량체계의 과정별로 나뉜 12개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이 중 생산 단계의 두 가지 목표는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생산	1. 광역 식량생산의 보전과 증대 2. 도시의 식량생산 증대
가공	3. 식품 제조 및 가공 부문의 성장과 고용 촉진 4. 뉴욕 내 식품가공의 수요 공급 증대 5. 뉴욕시 내 식품가공의 환경영향 감축
유통	6. 기반시설 강화, 기술적 진보, 대체운송수단, 통합계획을 통한 식품유통 향상
소비	7. 건강한 식품소비 환경 창출 8. 결식 및 영양 안전망 프로그램 강화 9. 기관 급식물의 영양 향상 10. 음식, 영양, 조리 지식에 관한 양적 질적 기회 증대
소비 후	11. 식량체계 전반의 폐기물 감축 12. 식량체계 내의 자원 재활용 증대

(1) 광역 식량생산의 보전과 증대

우선 광역 식량생산의 보전과 증대를 위해 뉴욕시는 다음의 두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① 전략 1: 국지적 식품 공급망을 강화한다

연방 농가 보조금 지원책을 재정립하여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식량생산을 지원한다. 뉴욕

주 농지 보전기금을 개선한다. 신규농업인을 장려하고 상설 도매 농민시장을 개설한다.

특히 농민시장을 확대하고 지원한다. 미국 전역에서 2002년에서 2007년까지 직거래를 통한 지역식품 판매량은 49%(3억9,900만 달러), 1997년에서 2007년까지는 120%(6억6,000만 달러) 증가했다. 한편 미국 전체 농민시장은 1,755개소에서 6,132개소로 늘어났다. 2011년 현재 뉴욕시의 농민시장은 120개소이다. 시는 농민시장이 유동인구가 많고 안정적인 공간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자원을 지원해야 한다. 농민시장 전자이체시스템(Electronic Benefits Transfer)과 여성, 유아, 어린이를 위한 영양프로그램을 확대한다. 농민시장을 지원하는 다른 방안은 고른 소비자 기반을 다지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주민들이 농민시장에 들러 손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전자이체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2005년에 3개소에 불과하던 EBT 적용 농민시장이 2009년에는 23개소로 확대되고, 거래량도 24,00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에는 시의회가 이 프로그램을 기존 23개소에서 40개소까지 늘릴 계획이다.

공동체지원농업(CSA)을 확대하고 지원한다. 미국의 CSA는 1986년 2개소에서 시작하여 2010년에는 2,500개소까지 증가했다. 뉴욕시에는 CSA 생산물 수하지점이 100여 곳에 이른다. 양적으로 크게 증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기수요가 존재한다. CSA의 확대를 위하여 시청의 공무원부터 앞장서서 CSA회원으로 등록하고 각종 단체나 기업체의 등록도 유도해야 한다. 그리고 뉴욕시 주택국과 공조하여 주택국이 추진하는 개발사업의 주민들에게도 CSA 등록을 장려할 수 있다.

② 전략 2: 도시의 경제적 영향력을 이용하여 지역 생산자를 지원한다

도시의 구매력은 상당해서 노인회관, 일일돌봄센터, 방과후 학습 프로그램, 여름방학 급식 프로그램 등의 음식 제공 프로그램에만 한 해 1억7,500만 달러가 쓰인다. 뉴욕시 교육청은 뉴욕주에서 미국 국방부 다음으로 식품 조달을 많이 하는 공공기관이며, 2005년도 조사에 의하면 뉴욕시 교육청이 조달하는 식품 중 10%, 금액으로는 1,200만에서 1,500만 달러가 로컬푸드로 충당될 수 있다고 한다. 로컬푸드 조달에 관한 이력 추적을 지원한다. 상류 수계의 농장주를 지원한다.

(2) 도시의 식량생산 증대

뉴욕시민의 대부분은 특정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없는 상황이라 뉴욕시에서는 오픈

스페이스가 희소한 자원이다. 그러나 뉴욕의 5개 자치구에 20개소의 농장이 있다는 사실이 최근의 농업 통계 보고서에서 보고되었다. 게다가 도시에는 식량을 생산해 내는 수백 개의 공동체 텃밭이 존재한다. 몇몇 단체에서는 도시 안에서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기업의 사업가능성을 실험하기 시작했다. 이들 도시 경작자와 농부들에게는 먹을거리를 기르기 위한 안정적인 공간은 물론 기술적 지원이 필요하다. 도시의 식량생산 증대를 위해 뉴욕시는 다음의 2가지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① 전략 3: 도시 내 식량생산을 위하여 기존 공간을 잘 활용한다

뉴욕시는 미국에서 가장 크고 밀집한 대도시권역이어서 경작공간을 찾는 일이 수월하지 않다. 경작자들은 경작지를 탐색하고 조성하는 데 시정부의 허가가 필요한다.

공동체 텃밭을 보호한다. 뉴욕시의 5개 자치구에 걸쳐 600여 개의 공동체 텃밭이 있으며 도시의 역사와 깊은 연관이 있다. 이 공동체 텃밭은 해당 지역의 강력한 정체성을 반영하기도 한다. 최근 뉴욕시장은 이 공동체 텃밭 중 300개소를 보존하도록 하는 규칙을 공포했다. 이러한 노력이 다음 시장 임기 중에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시의회는 새로운 경작지를 추가하는 것은 물론 규칙에 의해 보존되는 경작지를 위한 장기적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농업통계조사에서 도시농장을 포함시킨다. 미국 농무국의 농업 통계는 매년 최소 1천 달러 가치의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다. 도시의 많은 경작지 또한 이러한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으나 생산하는 농산물에 대한 금전적 가치를 추적하고 보고하지 않기 때문에 도시농장으로서 공식적으로 인식되지 못한다. 현재 뉴욕시의 20여개 농장만이 미국 농무국의 농업 통계의 집계에 포함되어 있다.

시유지를 검색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도시농업에 적합한 시유지의 건물 옥상을 확인한다. 특정 옥상 온실의 설치 시에 요구되는 용적률 제한 및 고도 제한을 철회한다. 옥상 녹화에 대한 세금공제 지원책을 일부 변경하여 식량생산이 가능한 옥상녹화를 유도한다. 수도요금을 변경하여 옥상녹화를 장려한다. 옥상녹화 조성 및 등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② 전략 4: 음식과 원예에 관한 지식을 복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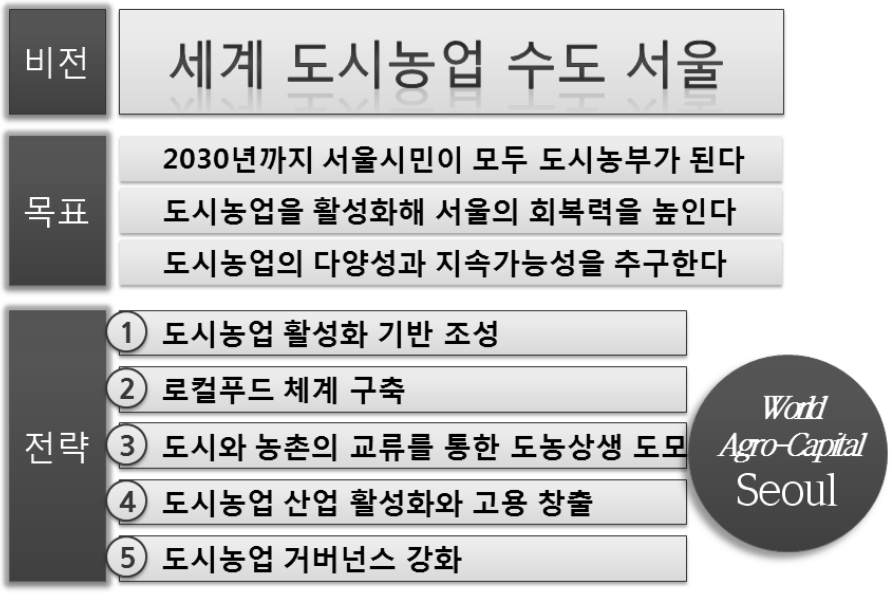
1840년 뉴욕에서는 20,286명의 시민이 농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었고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미국 전역에서 2,000만 가구가 식량을 생산하고 있었다. 도시농업이 활발했던 당

시의 지식은 현재 도시민들에게는 특수하고 접근하기 힘든 내용이 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의회는 도시 전역에 걸쳐 경작 교육센터에 투자할 예정이다. 또한 도시 전체에 걸쳐 적용 가능한 곳에 경작교육을 실시하며 도시농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2. 서울시 도시농업 종합계획 수립

서울시는 위에서 살펴본 도쿄와 뉴욕의 도시농업 관련 종합계획을 벤치마킹해서 서울시의 여건에 적합한 도시농업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아래의 <그림 5-1> 도시농업 종합계획(안) 예시 참조). 현행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 · 도지사는 이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서울시는 종합계획을 수립할 의무가 없으므로 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할 필요가 있다. 도쿄, 런던, 뉴욕의 도시농업 종합계획 분석 후 서울시 도시농업 종합계획 수립에 참조할 필요가 있다.

한편 서울시 도시농업 활성화 종합계획과 병행하여 전환도시 서울 추진계획도 수립해야 한다. 피크오일과 기후변화 위기를 맞아 회복력 있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전환도시 서울 추진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 추진계획 속에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행동계획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5-1〉 서울시 도시농업 종합계획(안) 예시

제3절 도시농업 거버넌스 강화

1. 도시농업 거버넌스 네트워크 구축

시민사회단체 간담회나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면 대부분 서울시 도시농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일로 거버넌스 네트워크 구축을 꼽고 있다. 2012년은 서울시가 다양한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을 펼치면서 도시농업이 양적으로 성장한 한 해로 기록될 수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도시농업 추진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한 측면도 있다. 따라서 도시농업 거버넌스 네트워크 구축이 시급하다.

도시농업 거버넌스와 관련해 서울시는 새로 제정된 도시농업 육성 지원조례에 근거해 서울시 도시농업위원회를 11월 1일자로 구성했다. 이 위원회는 1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당연직인 경제진흥실장을 비롯해, 시의원 1명, 시민단체 5명, 연구기관 2명, 학계 3명, 농민 1명으로 되어 있다.

서울시 도시농업위원회의 주요 임무는 도시농업 정책 수립과 시행 등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는 다음의 네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도시농업의 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둘째, 도시농업의 관련 연구, 기술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셋째, 도시농업의 중장기 비전 설정 및 실천계획에 관한 사항

넷째, 도시농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시농업위원회가 위와 같은 임무를 수행하면서 서울시 도시농업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해나가는 데 나침반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도시농업에 대한 시민의 높은 관심도를 고려할 때 별도의 민관 파트너십 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및 자치구 공무원, 시민단체 활동가, 도시농업 관련 기업, 일반시민이 망라된 민관 파트너십 기구로서 서울시 도시농업 거버넌스 네트워크가 어떤 형식으로든 만들어져서 서울시 도시농업위원회가 수행하기 어려운 거버넌스 네트워크 역할을 보완하고 발전시켜나가길 기대해본다.

2. 도시농업 관련 법령 정비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조례 제정과 함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농지법 등에 도시농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조항은 없는지 검토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기존 법률에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근거조항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

장기적으로는 미국 여러 도시의 도시계획조례와 동물관리조례에서 도시농업과 양봉 양계를 규정하는 것과 같이 서울시도 관련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이 필요할 것이다(아래의 표 참조).

〈표 5-1〉 미국 도시의 도시계획조례 중 도시농업 관련조항

도시	관련조항
덴버	대부분의 지역에서 부대 시설물과 양봉을 포함한 도시텃밭 허용 비주거지역의 도시텃밭에 한하여 현장판매 허용
캔자스시티	거의 모든 용도지역에서 가정텃밭, 공동텃밭, 공동체지원농업 농장 허용 공동텃밭과 공동체지원농업의 현장판매 허용
로스앤젤레스	일부 주거지역에서 트럭텃밭과 양계 허용
미네아폴리스	2개의 용도지역을 제외한 모든 용도지역에서 공동텃밭 허용
뉴욕	모든 주거지역과 복합 제조업지역에서 온실과 트럭텃밭을 포함한 농업적 이용 허용
샌프란시스코	일부 상업 및 제조업지역에서 트럭텃밭 허용
시애틀	모든 용도지역에서 공동텃밭과 도시농장 허용 양계, 옥상 온실, 농민시장도 허용
워싱턴 D.C.	모든 주거지역에서 농장과 트럭텃밭 허용

〈표 5-2〉 미국 도시의 동물관리조례 중 양봉, 양계 등 관련조항

도시	관련조항
덴버	우리 또는 벌통이 대지경계선에서 3미터, 인근 주택에서 12미터 이상 떨어져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저밀도 주거지역에서 암탉 4마리와 벌통 2개 허용
캔자스시티	우리 또는 벌통이 대지경계선에서 4.5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경우에 한하여 동물보호협회의 허가를 얻어 1필지당 암탉 6마리 허용 부지면적이 1,000㎡ 이하일 경우 벌통 2개 허용 부지면적이 1,000㎡ 이상일 경우 벌통 추가 가능
로스앤젤레스	인근주택에서 60m 이상 떨어져 사육할 경우에 한하여 대형가축 2마리 허용 인근주택에서 암탉은 30m, 수탉은 90m 이상 떨어져 사육할 경우에 한하여 암탉 15마리, 수탉 1마리 허용
시애틀	특정 조건하의 허가를 받았을 경우 가금류 3마리와 가축 2마리 허용
워싱턴 D.C.	거리제한 및 시행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암탉, 수탉, 대형 가축 허용 우리가 암탉은 15m, 수탉은 30m, 대형 가축은 30m 이상 인근주택에서 떨어진 경우에 한하여 사육 허용 예외적인 경우 별도의 허가 필요

한편 도시농업 추진조직도 체계적으로 정비해나가야 한다. 경제진흥실, 공원녹지국, 도시계획국 등으로 시대 상황에 맞추어 주관 부서를 전략적으로 변경하거나 도시농업과 신설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제4절 도시농업의 다양성 추구

1. 시민에게 다양한 옵션 제공

체재형 주말농장, 도시농업공원, 공원 내 텃밭, 전업농민의 지도하에 농사를 체험하는 일본의 입원이용방식 시민농원, 반농반X 등 다양한 도시농업 유형을 개발해서 보급할 필요가 있다.

도시농업 형태도 현재로서는 임대텃밭과 상자텃밭이 대부분이지만 앞으로 벽돌로 만든 상자텃밭, 자루 텃밭, 탑형 텃밭, 모바일 텃밭, A프레임 텃밭, 수경재배, 기무농업, 양봉, 양계 등 다양한 도시농업 형태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일반시민에게도 보급해나가야 할 것이다.

2.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 개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서울시민들은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도시농업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이 연구보고서의 제4장에서는 상당한 지면을 할애하여 세계 각국의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다양한 주제별로 나누어 소개했다. 우리나라 여러 시민사회단체도 외국 도시에 못지않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도 있었다.

먹을거리 중심의 획일화된 서울시 도시농업, 임대텃밭과 상자텃밭이라는 획일화된 방식의 서울시 도시농업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민참여 프로그램이 우선 다양화돼야 한다. 서울시는 도시농업 프로그램 개발 보급 분야에 좀 더 많은 예산과 인력을 배분해야 한다. 또한 서울시는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시민참여 프로그램 개발 공모사업을 수년간 지속적으로 벌일 필요가 있다. 5년 정도 교육, 홍보, 지역경제, 공동체, 사회형평, 환경보호, 문화예술 등 7개 분야로 나누어 지속적으로 시민참여 프로그램 공모사업을 펼쳐나간다면 서울시 도시농업이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

3. 도시농업 우선 추진지역 선정

식품사막(신선한 식품을 구매하기 어려운 사각지대)에 우선적으로 텃밭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재래시장이나 유기농산물 판매점, 식료품 판매점이 과소한 지역, 저소득지역, 공한지나 유휴지가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 비만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 노령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 등을 종합 판단하여 도시농업 우선 추진지역으로 선정한다.

도시농업 우선 추진지역과 함께 교통량이 과다하여 대기오염이 우려되는 지역 등을 도시텃밭 조성 금지지역으로 정하여 시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전하게 농사일을 즐길 수 있도록 한다.

4. 도시농업공원 시범 조성

도시농업공원은 조성비용뿐 아니라 유지관리비용이 상당히 많이 소요된다. 도시농업공원은 교육과 홍보 목적으로 시범적으로 조성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도시공원 등의 녹지환경을 직접적으로 공공투자로 확보하여 관리하면 많은 비용이 들지만 도시녹지로서의 도시농업 경작지를 농업자와 이용자인 시민의 공동작업으로 유지관리하면 공원에 비해 적은 예산으로 유사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공원, 텃밭, 도시농업공원의 장단점과 비용효과 비교가 필요하다. 공원은 공원대로, 텃밭은 텃밭대로, 도시농업공원은 도시농업공원대로 의미와 가치가 있다. 시민의 수요와 행정적·재정적 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개수의 도시농업공원이 조성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앞으로 도시 공원녹지계획을 수립하거나 도시계획상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때 도시텃밭을 공식적이고 합법적인 공원녹지로 인정하고 필요한 법적, 제도적 조치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도시텃밭을 주거지 주변에 조성하면 그곳이 생활권 공원 역할을 한다.

5. 기타 다양화 정책

임시 텃밭이 아닌 영구적인 텃밭 조성이 필요하다. 서울시내 텃밭 대부분이 임시 텃밭으로 영구 텃밭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현재에는 민간텃밭이든 공공텃밭이든 1년 단위로 선착순으로 텃밭을 임대하고 있다. 모범적인 텃밭 경작자에게는 최대 5년간 장기 경작이 가능하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 유휴지 소유자가 인근 주민에게 텃밭 경작 허용 시 세금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

시민이 다양한 형태의 도시텃밭을 안심하고 경작하기 위해서는 텃밭 조성 대상지에 대한 부지환경평가 의무화가 필요하다. 텃밭 조성 대상지에 대해 기본적인 환경오염 평가항목에 따른 부지환경평가가 시행돼야 한다. 오염되었다고 평가된 대상지에 대한 대안 마련이 중요하다. 또한 토양 반입, 베드 재배, 수경 재배, 수직농업 등 대안 모색이 바람직하다. 기존 텃밭도 5~10년 단위 정기적인 부지환경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우수 유출, 비산 오염물질 등의 원인으로 기존의 깨끗한 텃밭도 일정 기간 경과 후 오염될 우려가 있다.

지역화폐 운동을 통해 지역내 거래를 활성화하면 복잡한 유통단계를 거치며 야기되는 에너지 낭비와 폐기물 발생을 줄일 수 있다. 지역내 거래가 활성화되면 생태적 발자국을 직접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 환경오염을 적극 막을 수 있다. 지역사회의 복지와 공동체 의식, 사회적 약자의 기초수요를 염두에 두면서, 지역화폐와 도시농업을 결합하면 우리는 색다른 경험과 함께 놀라운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LETS eat! 프로젝트를 시행해볼 만하다. 유기농산물 거래를 지역화폐로 한다든지, 도시텃밭과 관련한 농기구 구입 등을 지역화폐로 한다든지, 식당에서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게 한다든지 하는 등 먹을거리와 지역화폐를 결합시키는 방법이 있다.

제5절 도시농업 교육 홍보 강화

1. 도시농부학교 운영 및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

기존에도 농업기술센터와 도시농업 추진 시민사회단체에서 다양한 형태의 도시농부학교를 운영하면서 도시농업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지만 이를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 도시농부학교나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반은 1~3개월 정도의 과정만 있는 실정이다.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도시농부를 양성하기에는 커리큘럼이 빈약하다. 앞의 외국사례에서 살펴보았던 뉴욕시 도시농부학교의 2년 과정 자격증 이수 프로그램처럼 장기에 걸친 심도 있는 교육훈련과정이 필요하다.

2. 도시농업 홍보 이벤트 개최

시민의 관심과 참여 없이는 도시농업이 활성화될 수 없다. 시민의 관심을 높이고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전략에 기초한 다양한 홍보 이벤트가 있어야 한다. 도시농업을 홍보할 때 도시농업이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할 뿐 아니라 정신적, 육체적으로 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한다는 점을 부각한다. 도시농업 경작지가 공원녹지 역할도 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녹지 네트워크 형성에 도시농업이 기여한다는 점도 좋은 홍보 포인트다.

지방자치단체 주최로 경진대회나 품평회, 먹을거리 페스티벌을 열어 도시텃밭에서 수확한 농작물 중 우수한 농작물을 선발하거나 수확물로 음식을 만드는 행사도 개최한다. 도시농업 관련 간담회, 토론회, 공청회를 열어 지식과 정보를 교환하는 기회를 자주 가져야 한다. 도시농업 주제의 벽화 그리기를 홍보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해볼 수 있다.

신문, 방송, 잡지 등 각종 대중매체에 도시농업 관련 활동을 빈번하게 노출시켜야 한다. 관내 임대텃밭이나 가정 내 텃밭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을 스토리텔링 기법으로 창작하여 보도자료로 만들어 주요 신문사, 방송국, 잡지사에 보낼 필요도 있다.

3. 도시농업 가이드 등 책자 발간

서울시는 도시농업의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효과를 홍보하는 팸플릿, 브로슈어는 물론이고 텃밭 안내서, 도시농업 가이드북, 도시농업 모범사례집 등 시민에게 도시농업의 필요성과 중요성, 의의를 알리고 참여를 촉구하는 데 도움을 주는 책자를 발간해야 한다.

서울시는 계절별 최적 경작물의 종류와 특성 및 경작방법, 좋은 종자 고르는 방법, 지렁이 사육법, 퇴비 만드는 방법, 채소・작물・화훼 재배 가이드, 도시농업 용어사전, 도시농업 백과사전, 도시농업 관련 법・조례・시행규칙 등 도시농업 규정집 및 해설서 등을 직접 발간하거나 도시농업 관련 단체나 전문가가 책자를 발간할 때 재정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

서울시는 도시농업 참여자를 세분하여 대상자별 맞춤형 안내책자도 준비해야 한다. 예를 들면 고령자와 도시농업, 장애인과 도시농업, 여성과 도시농업, 다문화가정과 도시농업, 시민사회단체와 도시농업 등의 인쇄물도 발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서울시는 도시농업 관련 각종 통계자료나 정보를 인쇄물로 발간해서 시민에게 제공해야 한다.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 경작가능지의 위치 등 기본 정보, 도시농업 경작자의 수 등 현황자료, 도시농업 관련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기관의 목록과 연락처 등이 이러한 인쇄물에 해당한다.

이상에서 열거한 각종 책자는 모두 pdf 파일로 만들어 웹에 올려서 시민들이 언제나 참고할 수 있게 해야 한다.

Ⅵ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결론

진정한 의미에서 서울시가 지속가능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도시공간을 실제로 형성하는 힘을 파악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도시농업은 도시연구의 주요 대상이 아니었으나 이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에 나타나 있듯이 많은 서울시민이 도시농업을 알고 있으며 실제로 도시농업을 실천하고 있다. 지난 수년간에 걸쳐 도시농업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이해가 폭발적으로 늘었다는 사실을 설문조사와 각종 문헌조사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서울시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에 앞서 서울시 전체에 걸쳐 도시농업이 가지는 긍정적 효과에 대한 시민적 합의와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도시농업이 환경교육 및 여가활용 수단으로서 큰 효과가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으나 도시생태계 보호 효과는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으므로 앞으로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공한지를 비롯한 유휴지를 이용한 도시텃밭은 도시생태계를 유지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공한지 상태로 내버려 둘 때보다 표토유실을 줄이고 도시의 물 순환에 도움을 준다. 또한 도시텃밭이 공장과 주택지 사이, 도로와 주택 사이, 도시중심부에 있을 때에는 공기정화 기능, 소음방지 기능까지도 수행한다. 도시텃밭은 동식물의 서식처 역할도 한다. 서울시는 시민에게 도시농업의 이러한 환경적 기능뿐 아니라 에너지 절약 기능을 비롯한 다양한 기능을 널리 알려 시민들의 도시농업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

는 데 한층 더 노력해야 한다.

도시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경작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과제다. 이상적인 도시농업 경작지는 인구밀집지역에 가까우면서 규모가 어느 정도 커야 한다. 문제는 공한지는 대부분이 개발유보지로서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앞으로 버려진 자투리 시유지뿐 아니라 사유지도 임시적으로 도시농업 경작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서울시는 영구적인 도시농업 경작지를 시민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가까운 시간 이내에 개발할 계획이 없는 공한지는 경관이 파괴되고 쓰레기 무단투기장소로 사용되어 공중위생상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경작지로 적극 활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서울시와 자치구는 서울시 행정구역 내에 존재하는 여러 형태의 공한지를 비롯하여 현재의 도시농업 경작지 실태에 대하여 대대적인 조사를 벌여야 한다. 특히 공한지는 이를 경작가능지와 경작불가능지로 분류하는 등 공한지 관리를 체계화해야 한다.

중앙정부에 대해서도 도시농업 활성화와 관련한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건의해야 한다. 2011년 12월 도시농업 육성 지원법이 제정되어 2012년 5월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시행과정에서 불합리한 점이 발견되었거나 서울시 측면에서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농림수산식품부를 비롯한 중앙정부 관련 부처에 건의해야 한다. 서울시도 앞으로 도시농업 육성 조례 개정 시에는 도로인접지역 등 적절하지 못한 곳에서의 도시농업을 금지하고 유해 농약의 사용도 제한함으로써 오염된 경작물이 생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도시 곳곳에 도시텃밭을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많이 만들어야 한다. 개개 도시농업 경작지의 설계뿐 아니라 서울시 전체의 도시농업 활동이 도시계획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이 계획과정에 시민이 반드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개별 도시농업 경작지 설계 시 생태공원, 자연보호지, 어린이놀이터 등이 종합적으로 상호 연관되게 입지할 수 있게 고려해야 한다. 외국 여러 도시의 공동텃밭은 공원이나 녹지와 함께 도시의 녹지대로 인정되어 도시계획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제2절 정책 제언

1. 경작가능지 확대

서울시내 경작가능지를 최대한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최적의 도시농업 경작가능지로 공원이 있다. 공원의 인근 주민과 지역사회단체의 참여를 전제로, 공원 내 일부지역을 도시텃밭으로 활용할 수 있다. 도시 내에서 방치되고 있는 시유지도 도시텃밭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놀려두고 있는 시유지를 인근주민들이 도시텃밭으로 경작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이다.

일반시민이 검색 가능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경작가능지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둘 필요가 있다. 서울시민의 도시농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경작 공간을 확인하고 보급하는 일이 시급하다. 서울시는 서울시내 국공유지에 대한 통계자료를 목록으로 정리하고 책자로 발간해야 한다.

건물 옥상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앞으로 옥상텃밭은 조방적 옥상텃밭과 집약적 옥상텃밭으로 구분하여 관리해야 한다. 조방적 옥상텃밭은 상자텃밭이나 토심이 얕은 텃밭 중심으로 운영하고, 집약적 옥상텃밭은 토심이 깊고 관개시설이 된 상당 규모의 옥상텃밭 중심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현재 서울시내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햇빛지도 제작을 위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건물 옥상의 태양광 패널 설치를 위한 타당성조사를 실시할 때 이런 조사를 잘 활용하면 경작에 필요한 공간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2. 도시농업 종합계획 수립

서울시는 도쿄 농업진흥계획 2012와 뉴욕 식량계획 2011을 벤치마킹해서 도시농업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일본 도쿄에는 도시농업 종합계획에 해당하는 도쿄 농업진흥계획 2012가 수립되어 있다. 도쿄 농업의 비전은 “도민 생활과 긴밀하게 연결되고 미래를 향해 발전하는 산업”으로 제시되어 있다. 뉴욕은 도시농업 종합계획을 별도로 수립해놓고 있지는 않지만 생산, 가공, 유통, 소비, 소비후의 5단계로 나누어 뉴욕시의 종합적인 식량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현행법상 서울시는 종합계획을 수립할 의무가 없으므로 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할 필요가 있다. 도쿄, 런던, 뉴욕의 도시농업 종합계획 분석 후 서울시 도시농업 종합계획 수립에 참조할 필요가 있다. 한편 서울시 도시농업 활성화 종합계획과 병행하여 전환도시 서울 추진계획도 수립해야 한다.

3. 도시농업 거버넌스 강화

시민사회단체 간담회나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면 대부분 서울시 도시농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일로 거버넌스 네트워크 구축을 꼽고 있다. 2012년은 서울시가 다양한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을 펼치면서 도시농업이 양적으로 성장한 한 해로 기록될 수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도시농업 추진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한 측면도 있다. 따라서 도시농업 거버넌스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조례상의 위원회와 별도로 민관 파트너십 기구의 구성이 필요할 수 있다고 본다. 서울시 공무원, 자치구 공무원,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도시농업 관련 기업, 일반시민이 망라된 민관 파트너십 기구로서 서울시 도시농업 거버넌스 네트워크가 어떤 형식으로든 만들어져서 서울시 도시농업위원회가 수행하기 어려운 거버넌스 네트워크 역할을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4. 도시농업의 다양성 추구

시민에게 도시농업의 다양한 옵션 제공이 필요하다. 체재형 주말농장, 도시농업공원, 공원 내 텃밭, 전업농민의 지도하에 농사를 체험하는 일본의 입원이용방식 시민농원, 반농반X 등 다양한 도시농업 유형을 개발해야 한다. 벽돌로 만든 상자텃밭, 자루 텃밭, 탑형 텃밭, 모바일 텃밭, A프레임 텃밭, 수경재배, 기무농업, 양봉, 양계 등 다양한 도시농업 형태도 시범 운영할 필요가 있다. 시민참여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개발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은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시범사업으로 펼쳐나가야 한다.

식품사막(신선한 식품을 구매하기 어려운 사각지대)에 우선적으로 텃밭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재래시장이나 유기농산물 판매점, 식료품 판매점이 과소한 지역, 저소득지역, 공한지나 유휴지가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 비만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 노령인구

가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 등을 종합 판단하여 도시농업 우선 추진지역으로 선정한다. 도시농업 우선 추진지역과 함께 교통량이 과다하여 대기오염이 우려되는 지역 등을 도시텃밭 조성 금지지역으로 정하여 시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전하게 농사일을 즐길 수 있도록 한다.

도시농업공원은 교육과 홍보 목적으로 시범적으로 조성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는 앞으로 도시 공원녹지계획을 수립하거나 도시계획상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때 도시텃밭을 공식적이고 합법적인 공원녹지로 인정하고 필요한 법적, 제도적 조치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도시텃밭을 주거지 주변에 조성하면 그곳이 생활권 공원 역할을 한다.

도시농업 관련 법령도 정비해나가야 한다. 도시농업법, 농지법, 국토계획법, 도시공원녹지법 등 관련 법 개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해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농지법 등에 도시농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조항은 없는지 검토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기존 법률에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근거조항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 장기적으로는 미국 여러 도시의 도시계획조례와 동물관리조례에서 도시농업과 양봉 양계를 규정하는 것과 같이 서울시도 관련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이 필요할 것이다.

앞으로 도시농업 추진조직도 체계적으로 정비해나가야 한다. 경제진흥실, 푸른도시국, 도시계획국 등으로 시대 상황에 맞추어 소속 부서 전략적 변경, 도시농업과 신설을 추진해야 한다.

임시 텃밭이 아닌 영구적인 텃밭 조성이 필요하다. 서울시내 텃밭 대부분이 임시 텃밭으로 영구 텃밭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유휴지 소유자가 인근 주민에게 텃밭 경작 허용 시 세금 감면 혜택 부여가 필요하다. 텃밭 조성 대상지에 대한 부지환경평가 의무화도 필요하다. 텃밭 조성 대상지에 대해 기본적인 환경오염 평가항목에 따른 부지환경평가가 시행돼야 한다. 지역화폐와 도시농업을 결합하면 우리는 색다른 경험과 함께 놀라운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유기농산물 거래를 지역화폐로 한다든지, 도시텃밭과 관련한 농기구 구입 등을 지역화폐로 한다든지, 식당에서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게 한다든지 하는 등 먹을거리와 지역화폐를 결합시키는 방법이 있다.

5. 도시농업 교육 홍보 강화

기존에도 농업기술센터와 도시농업 추진 시민사회단체에서 다양한 형태의 도시농부 학교를 운영하면서 도시농업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지만 이를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시민의 관심과 참여 없이는 도시농업이 활성화될 수 없다. 시민의 관심을 높이고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전략에 기초한 다양한 홍보 이벤트가 있어야 한다. 도시농업을 홍보할 때 도시농업이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할 뿐 아니라 정신적, 육체적으로 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한다는 점을 부각한다.

지방자치단체 주최로 경진대회나 품평회, 먹을거리 페스티벌을 열어 도시텃밭에서 수확한 농작물 중 우수한 농작물을 선발하거나 수확물로 음식을 만드는 행사도 개최한다. 도시농업 관련 간담회, 토론회, 공청회를 열어 지식과 정보를 교환하는 기회를 자주 가져야 한다. 도시농업 주제의 벽화 그리기를 홍보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해볼 수 있다.

신문, 방송, 잡지 등 각종 대중매체에 도시농업 관련 활동을 빈번하게 노출시켜야 한다. 서울시는 도시농업의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효과를 홍보하는 팸플릿, 브로슈어는 물론이고 텃밭 안내서, 도시농업 가이드북, 도시농업 모범사례집 등 시민에게 도시농업의 필요성과 중요성, 의의를 알리고 참여를 촉구하는 데 도움을 주는 책자를 발간해야 한다.

서울시는 계절별 최적 경작물의 종류와 특성 및 경작방법, 좋은 종자 고르는 방법, 지렁이 사육법, 퇴비 만드는 방법, 채소・작물・화훼 재배 가이드, 도시농업 용어사전, 도시농업 백과사전, 도시농업 관련 법・조례・시행규칙 등 도시농업 규정집 및 해설서 등을 직접 발간하거나 도시농업 관련 단체나 전문가가 책자를 발간할 때 재정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

서울시는 도시농업 참여자를 세분하여 대상자별 맞춤형 안내책자도 준비해야 한다. 도시농업 관련 각종 통계자료나 정보를 인쇄물로 발간해서 시민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김수봉・조진희・정응호, 2002, “환경친화적 도시와 도시농업”, 「환경과학논집」, 계명대학교 낙동강환경원, 제7집.

김태곤・박문호・허주녕, 2010, “도시농업의 비전과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촌진흥청, 2010, 「도시농업 실태 및 의식조사 결과」, 국립농업과학원.

박진도, 2012, “쿠바의 도시농업”, 흙과 도시 포럼(준), 서울연구원 공동 주최, 쿠바의 도시농업과 서울의 미래 세미나, 2012. 10. 9.

오대민・최영애, 2005, 「자연과의 만남으로 나와 세상을 치유하는 도시농업」, 학지사.

요시다 타로, 2002, 「아바나의 탄생」, 들녘.

이창우, 1995, “도시농업과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제83회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 1995. 8. 18.

장동헌, 2006, “생태지향형 도시농업에 관한 연구: 전주시 사례를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농업경제학 박사학위논문.

장보경・최윤지・황정임, 2011, “도시농업활동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요구 분석”, 「농촌지도와 개발」, 한국농촌지도학회, 제18권 제3호.

東京都, 2012, 「東京農業振興プラン」, 東京都,産業勞働局.

Alexandratos, N. and J. Bruinsma, 2012, “World agriculture towards 2030/2050: the 2012 revision”, *ESA Working paper*, No. 12-03, Rome: FAO.

Altieri, M., and F. Funes-Monzote, 2002, “The Paradox of Cuban Agriculture”, *Monthly Review*, Volume 63, Issue 08. Monthly Review Foundation.

Armar-Klemesu, M., 2000, “Urban Agriculture and Food Security, Nutrition and Health”, Thematic Paper 4. United Nations Administrative Co-ordinating Committee/ Sub-Committee on Nutrition.

Blake, Analisa and Denise Cloutier-Fisher, 2009, “Backyard bounty: exploring the benefits and challenges of backyard garden sharing projects”, *Local Environment,* Vol. 14, No. 9, October 2009, pp.797-807.

Carter, T., and A. Keeler, 2008, “Life-cycle cost.benefit analysis of extensive vegetated roof systems”, J*ournal of Environmental Management 87*, Elsevier.

Doshi, H. et al, 2005, *Report on the Environmental Benefits and Costs of Green Roof Technology for the City of Toronto*, Toronto: Ryerson University, Dept. of Architectural Science.

FAO, 2010, “Fighting Poverty and Hunger. Economic and Social Perspectives”, *Policy Brief*, No.10.

Francis, Mark, 1987, “Some Different Meanings attached to a City Park and a Community Garden in Sacramento”, *Landscape Journal*, Vol. 6, No. 2, pp.101~112,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Francis, Mark, 1987, “Meanings attached to a City Park and a Community Garden in Sacramento”, *Landscape Research*, Vol. 12, No. 1, pp.8-12.

Henderson, Bethany Rubin and Kimberly Hartsfield, 2009, “Is Getting into the Community Garden Business a Good Way to Engage Citizens in Local Government?”, *National Civic Review*, 2009 Winter.

Hodgson, K., M. Campbell, and M. Bailkey, 2011, *Urban Agriculture: Growing Healthy, Sustainable Places*, APA Planning Advisory Service.

Jacobs, Jane, 1969, *The Economy of Cities*, New York: Vintage Books.

Koont, S., 2009, “The Urban Agriculture of Havana”, *Monthly Review*, Volume 60, Issue 08, Monthly Review Foundation.

Mayor of London, 2006, *Healthy and Sustainable Food for London*, London Development Agency

McClintock, N., and J. Cooper, 2010, *Cultivating the Commons: An Assessment of the Potential for Urban Agriculture on Oakland’s Public Land*, HOPE Collaborative.

MIG Inc., 2011, *Urban Agriculture Assessment*, City of Richmond.

Mougeot, L., 1994, “Urban food production: evolution, official support and significance”, *Cities Feeding People Series Report 8*. Ottawa: IDRC.

Mumford, Lewis, 1961, *The City in History: Its Origins, Its Transformation, and Its Prospects,* London: Secker & Warburg.

Nelson, T., 1996, *Closing the nutrient loop*, World Watch.

The New York City Council, 2011, *FoodWorks: A Vision to Improve NYC's Food System*, The New York City Council.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1996, *Urban agriculture: food, jobs and sustainable cities*, New York: UNDP.

Urban Design Lab, 2011, *The Potential for Urban Agriculture in New York City: Growing Capacity, Food Security, & Green Infrastructure*, The Earth Institute in Columbia University.

Voicu, I., and V. Been, 2008, “The Effect of Community Gardens on Neighboring Property Values”, *Real Estate Economics*, American Real Estate and Urban Economics Association, V36.

Waters, A. Harry, 1973, *Ecology, Food & Civilization*, London: Charles Knight & Co. Ltd.

Weber, Max, 1960, *The City*, London: Heinemann.

부 록

서울연구원
The Seoul Institute

ID				

서울시민의 도시농업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주)리서치플러스입니다.

서울시는 올해를 도시농업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도시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도시농업이란 시민이 상자텃밭, 옥상텃밭, 임대텃밭, 주말농장, 유휴지 등을 이용해 도시나 도시 인근에서 농사를 짓는 일체의 활동을 말합니다. 현재 서울시민의 도시농업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으나 도시농업에 대한 인지도나 인식, 태도 등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본 설문은 서울시의 주요 정책개발을 하고 있는 서울연구원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서울시민의 도시농업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도시농업 정책에 대한 요구사항이나 건의사항 등을 조사하여 서울시 도시농업의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귀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은 모두 무기명으로 전산 처리되고, 개인적인 응답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거하여 연구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절대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법에 의해 보호됨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어 설문에 협조해주신다면, 서울시 도시농업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데 귀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본 설문은 총 26문항이며 설문하시는 데 약 10분 내외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10월

(주)리서치플러스

조사수행기관 : (주)리서치플러스
담당연구원 : 장현중 본부장 (02-312-0884)

■ 응답자 선정질문

Q1	거주 지역	도심 동북 서북 서남 동남	① 종로구 ② 중 구 ③ 용산구 ④ 성동구 ⑤ 광진구 ⑥ 동대문구 ⑦ 중랑구 ⑧ 성북구 ⑨ 강북구 ⑩ 도봉구 ⑪ 노원구 ⑫ 은평구 ⑬ 서대문구 ⑭ 마포구 ⑮ 양천구 ⑯ 강서구 ⑰ 구로구 ⑱ 금천구 ⑲ 영등포구 ⑳ 동작구 ㉑ 관악구 ㉒ 서초구 ㉓ 강남구 ㉔ 송파구 ㉕ 강동구 **(☞쿼터확인)**
Q2	성 별	① 남성 ② 여 성 **(☞쿼터확인)**	
Q3	연령별	만 ( )세 **(☞쿼터확인)**	

※ **도시농업이란**

시민이 상자텃밭, 옥상텃밭, 임대텃밭, 주말농장, 유휴지 등을 이용해 도시나 도시 인근에서 농사를 짓는 일체의 활동을 말합니다.

문1. 귀하는 이러한 도시농업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① 그렇다 ② 아니다

문2. 도시농업에 대하여 처음으로 접하게 된 경로는 무엇입니까?

① 인터넷이나 언론방송매체 ② 서적이나 잡지 ③ 주변 사람과의 대화나 소개
④ 도시농업 텃밭 현장 ⑤ 관련 행사 ⑥ 기타 (구체적으로 :)

문3. 귀하는 현재 실내, 베란다, 발코니, 옥상, 정원 등 주택 내부 또는 밭, 유휴지 등 주택 외부에서 식용이 목적이 아닌 관상용으로 화초를 가꾸고 계십니까?

① 그렇다 ② 아니다

문4. 귀하는 현재 실내, 베란다, 발코니, 옥상, 정원 등 주택 내부 또는 밭, 유휴지 등 주택 외부에서 채소, 과수, 곡류 등의 농작물을 재배하고 계십니까?

① 예 **(☞ 문4-1으로)** ② 아니오 **(☞ 문13으로)**

문4-1. 그렇다면 주택 내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십니까? 주택 외부에서 재배하고 계십니까?

① 주택 내부 ② 주택 외부 ③ 해당 없음

문5. 현재 경작을 하고 있는 경우 농작물의 종류를 재배면적이 넓은 순서대로 3개까지 적어주십시오.

재배면적 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농작물 종류			

문6. 귀하가 도시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사 활동을 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항목에 모두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농산물을 재배하여 먹기 위해 ② 자신이나 가족의 건강을 위해
③ 농사 체험을 하고 싶어서 ④ 여가 선용을 위해
⑤ 주변 환경 녹화를 위해 ⑥ 자녀 환경교육을 위해
⑦ 귀농 준비를 위해 ⑧기타(구체적으로:_____)

문7. 귀하가 도시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사 활동을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 )년 ( )개월

문8. 귀하는 1년 중에 평균 몇 개월 정도 농사 활동을 하십니까? ( )개월

문9. 귀하는 1주일 (또는 한 달)에 몇 시간 정도를 농사 활동에 투자하십니까?

단위	평균 투자 시간
① 주 단위 ② 월 단위	( )시간

문10. 현재 경작을 하고 있는 경우 주로 혼자 하십니까? 아니면 가족이나, 친구, 동료, 이웃 등과 함께 하고 있습니까? 보기에서 해당하는 모두를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혼자 ② 가족 ③ 친구 ④ 동료 ⑤ 이웃

문11. 연간 텃밭 유지비 및 임대료는 얼마입니까? 연간 ( )만원

문12. 귀하의 거주지에서 텃밭까지의 이동거리와 이동수단을 적어주십시오.

거주지에서 텃밭까지 이동 수단	평균 이동 시간
① 도보 ② 자전거 ③ 자가용 ④ 버스 ⑤ 지하철 ⑥ 기타( )	( )분

문13. 귀하께서는 과거에 농작물을 재배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① 있다 **(☞문14번으로)** ② 없다 **(☞문15번으로)**

문14. 농작물 재배를 중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관심이나 흥미를 잃어서 ②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③ 육체적으로 힘이 들어서 ④ 장소 확보가 용이하지 않아서
⑤ 방법이 어려워서 ⑥ 비용이 부담되어서
⑦ 기타

문15. 귀하께서는 도시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일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관심이 부족해서 ② 경작공간이 부족해서
③ 재배방법을 몰라서 ④ 토지주나 건물주가 허락하지 않아서
⑤ 유지비용이 많이 들어서 ⑥ 시간이 부족해서
⑦ 기타

문16. 시민이 더 많은 농작물 재배나 경작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재배시간 부족 ② 텃밭 등 공간 부족 ③ 법과 제도 제한
④ 재배 경험이나 정보 부족 ⑤ 기후 불안정 (홍수, 태풍 등) ⑥ 오염된 땅
⑦ 경제적 부담 ⑧ 기타( )

문17. 귀하께서 앞으로 농작물을 재배하신다면 어떤 방법으로 농작물을 재배하기를 원하십니까? 희망하시는 순서대로 2개까지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 (2순위 :)

① 실내, 베란다, 발코니, 옥상, 정원 등 주택 내 화분, 상자, 텃밭 등에
② 보유하고 있는 토지에

③ 주인이 사용하지 않는 유휴지에
④ 이웃, 친지, 동료와 함께 토지를 임차하여
⑤ 개인, 공공기관, 시민단체가 운영하는 주말농장이나 체험농장을 임차하여
⑥ 기타

문18. 도시에서 농사를 지으면 좋은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평가항목	동의 정도				
	매우 그렇다	다소 그렇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먹을거리 안전	①	②	③	④	⑤
2) 공동체성 회복	①	②	③	④	⑤
3) 거리미관 향상	①	②	③	④	⑤
4) 자연환경 보호	①	②	③	④	⑤
5) 가계식비 절약	①	②	③	④	⑤
6) 여가시간 활용	①	②	③	④	⑤
7) 건강증진 기여	①	②	③	④	⑤
8) 환경교육 효과	①	②	③	④	⑤

문19. 서울시에서 도시농업을 점점 확대해나가는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긍정적이다 ② 대체로 긍정적이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부정적이다
⑤ 매우 부정적이다 ⑨ 관심 없다

문20. 서울의 도시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조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2개까지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 (2순위 :) (3순위 :)
① 도시농부학교 운영 ② 도시농업에 적합한 농자재 개발 보급
③ 경작 관련 안내서 보급 ④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농지 확보
⑤ 관련 법제도 개선 ⑥ 도시농업 프로그램 개발 보급
⑦ 서울시 도시농업 종합계획 수립 ⑧ 서울시 도시농업 실태조사
⑨ 기타

문21. 서울시가 도시농업을 활성화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3개만 적어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3순위 :)

① 식량 자급	② 지구온난화 방지	③ 환경 보호	④ 공동체 회복
⑤ 건강 증진	⑥ 여가 활용	⑦ 도농 상생	⑧ 고용 창출
⑨ 지역경제 활성화	⑩ 식량 안보	⑪ 사회 복지	⑫ 환경 교육

문22. 가구당 경작면적은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1~3평 ② 4~6평 ③ 7~9평 ④ 10평 이상

다음은 통계적 분류를 위한 일반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1. 귀하는 농촌에서 생활한 경험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2. 귀하의 교육 정도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① 중학교 졸업 이하 ② 고등학교 졸업 이하 ③ 대학교 졸업 이하 ④ 대학원 입학 이상

3. 귀하의 직업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① 농업/임업/수산업	② 자영업	③ 판매/서비스직	④ 기능직
⑤ 사무/기술직	⑥ 경영/관리직	⑦ 전문/자유직	⑧ 전업 주부
⑨ 학생	⑩ 무직	⑪ 기타	

4. 귀하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① 100만원 미만	② 100~199만원	③ 200~299만원
④ 300~399만원	⑤ 400~499만원	⑥ 500~599만원
⑦ 600~699만원	⑧ 700~799만원	⑨ 800만원 이상

♣ 설문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Working Paper 2012-PR-35

서울시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

발 행 인 이 창 현
발 행 일 2012년 10월 15일
발 행 처 서울연구원
137-071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391번지
전화 (02)2149-1234 팩스 (02)2149-1319

본 출판물의 판권은 서울연구원에 속합니다.